인제문화

2020 | 제35집

인제문화원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인제문화원장 이만철

벌써 올 한해도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 5월 29일 제12대 인제문화원장 취임식을 갖고 자리를 바꿔 앉았는데 유수 같음을 실감합니다. 문화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온고정신을 되살려 많은 문화 사업을 설계하고 또 추진하고 싶었는데 마음과 생각뿐인 결과로 해를 보내게 되어 매우 아쉬움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덧없이 찾아온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어놓고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올 한해 우리는 긴장과 공포 속에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삶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욕이 많았던 문화사업도 대면사업의 제약으로 대부분 못하고 비대면 일부 사업에만 따르는 전시와 공모사업 그리고 향토지 재 발간 사업과 문화지 발간에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차제에 문화지 발간에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제문화지는 인제군민의 향수와 정서적 취향으로 다양한 마음에 담은 이야기와 문화예술의 가치성을 드높이는 옥고로 편찬되오니 앞으로도 계속 성원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치고 있는 코로나 고난에도 꾸준히 문화원 직원으로 사업에 전력을 다하며 인제문화 제35집 편집에 주력한 사무국 직원에게 수고와 기쁨의 말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안보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언제인가는 지나간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인제문화원 원사준공

정기임원회의

임시총회

12대 문화원장 취임식

향토사연구위원 간담회

목공예일자리창출사업

샤이니스타를찾아라_라이징스타를 찾아라(한국무용)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예선(댄스스포츠)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예선(한국무용)

샤이니스타를찾아라예선(민요)

인제군 도시재생 업무협약체결식

강원영서북부,설악문화연합 간담회

인제군 장학금 기탁

신임이사 인준

송은 심우식선생 초대 특별기획 전시전

문화학교 난타

문화학교 노래교실

문화학교 다도교실

문화학교 라인댄스

문화학교 민요(중)

문화학교 우크렐라

문화학교 전통연희

문화학교 한국무용

문화학교 한글서예

문화학교 한문서예

문화학교 합창반

문화사랑방 댄스스포츠(인제)

문화사랑방 뗏목아리랑

문화사랑방 민요

문화사랑방 색소폰

문화사랑방 수묵화

문화사랑방 플룻

찾아가는문화학교 목공예교실

찾아가는문화학교 서양화

찾아가는문화학교 실버기타

찾아가는문화학교 아코디언

찾아가는문화학교 어반스케치

차 례 Contents

- 발간사
- 2020 문화사업

제1장 특집

- 나와 박인환의 운명적 만남 _ 손홍기 24

제2장 향토사

-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지역적 향유성 _ 이학주 40
- 記錄되지 못한 歷史, 麟蹄의 獨立運動 _ 한승윤 68

제3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 김규중 _ 바지랑대 · 104
- 김미숙 _ 변 사또의 말 1 · 105

• **문부자** _ 모래기 물결 · 106 / 모순의 시대 · 107

• **박돈녀** _ 끈 · 108 / 동문서답 · 109 / 들을 귀가 있나보다 · 110
무국 · 111 / 인제 뗏목아리랑 · 112

• **원영애** _ 달뜬 밤 · 113 / 중독 · 114 / 제주바다 · 115
9월이 오면 · 116 / 죄 값 · 117

• **정순덕** _ 매미 · 118 / 리모델링 · 119 / 밥상 · 120 / 세신을 받고 · 121

• **최은희** _ 국화(菊花)여행 · 122 / 김장 · 124 / 오일장 · 125

• **한용운** _ 內麟川 · 126 / 운두령 · 128 / 산마을 · 129
꽃바람 · 130 / 눈 · 131

• **권순덕** _ 구부러진 길 · 132 / 그때 우리는 · 133 / 까닭 · 134
너를 보내고 · 135 / 상강 · 136

• **김경애** _ 늦가을 · 137 / 코로나 19 · 138 / 나 · 139

• **김미숙** _ 고백 · 140 / 달맞이 · 141 / 배꼽시계 · 142
소나기 · 143 / 자화상 · 144

• **김봉희** _ 오월의 시 · 145 / 들국화 · 146 / 황혼의 친구1 · 147
황혼의 친구2 · 148

• **허계홍** _ 내린천 연가 · 149 / 삶의 통증 · 151 / 선홍빛 손톱 · 152

• **장혜경, 이기덕** _ 인제사랑 · 153

산문 /

• **문부자** _ 가을에 즈음하여 · 154

• **박돈녀** _ 자연과의 약속 · 157

• **최광윤** _ 그땐 어디로 소풍을 갔나? · 160

• **최은희** _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 168 / 불광불급(不狂不及) · 170

제4장 기고문

-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_ 정재환 174
- 長毋相忘 _ 심종기 178
- 제12대 인제문화원장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_ 황범식 182

제5장 백일장 입상작품

- 제19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188
- 제28회 박인환백일장 청소년 문예작품 231

제6장 임서전

- 제24회 인제서회임서전 267

- 임원현황 289
- 직원현황 289
- 원고모집 290

나와 박인환의 운명적 만남

손흥기

제 1 장

| 특집 | 나와 박인환의 운명적 만남

나와 박인환의 운명적 만남

손 흥 기* 문학평론가, 인제문화원 이사

목차

1 대중가요를 통해 만난 박인환
2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우다
3 박인환을 다시 읽다
4 나, 그리고 인제 문학과 박인환
5 부침(浮沈)의 시절
6 '박인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다
7 2020, 돌아오다
8 여기까지다!

1 대중가요를 통해 만난 박인환

박인환과 나의 만남은 70년대 초반 문학 소년 시절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경기도 이천의 면 소재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나는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 인근 공업도시 안양으로 유학을 왔다.

수리산 채석장 가는 철길 옆 판자촌 자취방이나 박달동 시장근처 옥탑방에서 라면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인기 절정의 혼성 듀엣 '뚜아 에 무아 'Toi et Moi'(너와 나)의 멤버 박인희의 청아한 바이브레이션으로 낭송한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와 노래 〈세월이 가면〉을 통해서였다.

이렇듯 박인환과 나의 첫 만남은 시집이나 작품이 아닌 대중가요를 통

* 계간 『시와 세계』 신인상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작품 활동 시작했으며 시론(詩論)집 『시에게 길을 묻다』, 문학평론집 『박인환을 다시 읽다』가 있다. 늦봄 문익환문학상 (평론부문), 강원환경인상, 인제군민대상(문화예술부문), 고대문우회상 등을 수상했다. 월간 『유심』 편집위원, 계간 『인제문예』 편집주간, 고대문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인제문화원 이사, 동국대학교 만해문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해서였다. 1976년, 박인환 작고 20주기 기념으로 장남 박세형이 시집『목마와 숙녀』를 발간하기까지 박인환은 문학사적으로 정립되기 전이어서 대부분의 독자들 역시 박인환을 시집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나기보다 박인희의 노래와 낭송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1970년대. 컬러 TV와 전화가 있고 없음이 가정환경조사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던 시절, 라디오는 매우 중요한 문화 매스미디어였다. '박인희의 3시의 다이얼'을 비롯하여 '김세원의 밤의 플랫폼', '이장희 0시의 다이얼', 그리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차인태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은 가난한 젊은이들의 낭만과 소통, 문화의 장이었다.

당시 숙명여대 불문과에 재학 중이던 박인희는 70년대 대표적 통기타 가수로 〈약속〉, 〈모닥불〉, 〈방랑자〉, 〈끝이 없는 길〉 등의 히트곡을 낸 인기 가수였다. 문학도였던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생머리를 손수건으로 질끈 동여매고 '동아방송 3시의 다이얼' 진행을 맡았다. 우리들은 그 시간만 되면 만사 제쳐 두고 금성 트랜지스타 라디오 앞에서 박인희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젖어 문학에 대한, 시인에 대한 막연한 꿈을 키웠다.

2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우다

당시 안양에는『사랑의 광세』의 베스트셀러 작가 김대규 시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매년 10월 한글날을 기해 '관악백일장'을 개최했다. 그 백일장에서 입상한 안양 시내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낙엽문학회〉를 창립했다. 〈낙엽문학회〉는 남녀 학교, 학생 간 연합동아리(서클)가 금지되었던 당시, 안양시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인정해 준 남녀고교 연합동아리였다. 작고한 김대규 시인을 고문으로 모시고 함께 활동했던 회원으로는 제1회 관악백일장에서 장원을 수상한 배준석(1993년『시와시학』등단)을 비롯하여 현재 중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택(1989년《한국일보》 신춘문예 등단), 박승우 시인(1997년『순수문학』등단)과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여학생 몇 명이 있었다.

〈낙엽문학회〉의 자문역을 자처하신 김대규 시인께서는 안양 양지동에서 태어나 안양공고와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18년 77세의 나이로 작고할 때까지 시와 함께 양지동을 떠나지 않은 안양 토박이 시인이다. 그는 1960년 안양공고 졸업 기념으로 시집 『靈의 流刑』을 발간하며 문단에 나왔다.

나의
故鄕은
急行列車가
서지 않는 곳

친구야,
놀러오려거든
三等客車를
타고 오렴.

–「葉書」 전문

安養은 서울 바로 아래라서
서울로 가려다 지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안양은 서울 가까운 곳이라서
서울을 피해 나온
덜 약은 사람들도 내려와 산다.

나처럼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이
안양에도 적어졌다.
겁이 많은 장남들만 남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기다리며
조상의 무덤이나 쓰다듬고 있다.

바람 탓이다,
돈 바람.
가면 다시 안 부는
돈 바람.

근대화의 폐수가
송사리까지 몰아낸 냇물을 막아
여름에는 풀장,
서울 사람들이 몰려와
한겨울 난 먼지 돈으로 씻고 가고
휴일에는 관악산 골짜기마다
더러운 서울 공기 토해 놓고 간다.
安養서 살던 깨끗한 공기들도
나무숲 속에서 빠져 나간다.

요즘에는 山귀신들도 딴 곳을 찾아
사람 몰래 도망가는 걸
나 혼자 지켜보고 있다.

—「安養」 전문

김대규 시인, 그의 안양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 철부지 문학소년 · 소녀들의 모임인 〈낙엽문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문학과 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으며,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짜장면이나 라면을 사서 배고픈 청춘들의 허기를 달래주시고는 했다. 이렇다 할 문화 공간이 없었던 당시 〈낙엽문학〉의 모임은 회원의 자취방이나 역전 로터리 앞 찐빵집, 중앙시장 라면집, 채석장 가는 철길 옆 중국집 등을 전전하며 각자 습작한 어설픈 글들을 돌려 읽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는 했다. 상공회의소나 문화원 강당에서 시낭송회와 시화전을 개최하고 1년에 한 번 동인지 『낙엽문학』을 발간했다. 예산이 없어 회원 중 누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주보(週報)를 인쇄하는 창고에서 철필 등사기로 밀어 만든 리플렛에 불과했지만 내가 쓴 글이 인쇄(복사)되어 책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마냥 가슴 뿌듯해했다.

고2 때인가? '관악백일장'에서 입상한 필자의 졸시 한 편 기억을 더듬어 올려보기로 한다.

K!
나는
가냘프고 연약스런
당신이 좋소이다.

여덟 개의 날개마다
분홍빛깔 수줍은 꿈을 간직하고
짙어가는 잿빛 하늘을
음미하는 당신이……

K!
갸날픈 당신의 모습에서
머–언
태고(太古)적 정성을 연상하며
참신하고 티 없는 당신을 대할 때면

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한 마리 빨강 고추잠자리가 되어
당신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싶은

내
솔직한
심정이외다.

–「코스모스」 전문

치기(稚氣)와 유치찬란(幼稚燦爛) 그 자체인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사절하겠다. 다만 빛나던 청춘 한 때, 얼치기 문학 소년의 설익은 감상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별빛이 부서져 내리는 여름밤이면 안양유원지 계곡, 혹은 냉천동 충혼탑에서 어설픈 솜씨로 기타를 치며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이나 「목마와 숙녀」를 가만히 읊조리며 우리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막연하게 시인의 꿈을 키워갔다.

당시에는 오후 5시에 국기 강하식이 있었다. 학교나 관공서의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방과 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들은 물론 거리의 행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행동을 멈추고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치기(稚氣), 혹은 반발심에서였는지 우리들은 이를 무시하고 시내 한복판을 활보하다 단속 경찰을 피해 도망을 치고는 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국기 강하식은 애국가가 아니라 따로 있었다. 안양 시내 중앙로터리 삼원극장 건물 1층에 있던 삼원전파사에서 박인희의 〈세월이 가면〉이나 〈목마와 숙녀〉, 송창식의 〈고래사냥〉, 양희은의 〈내님의 사랑〉이 나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경건한 마음(?)으로 음악을 경청하고는 했다. 아마도 한때 젊은 날의 치기(稚氣)였겠지만 시와 음악에 대한 순수한 경의(敬意)나 공경의 마음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했지만 그럭저럭 행복했던 낭만의 문학 소년 시절이 갔다.

3 박인환을 다시 읽다

내가 박인환을 다시 만난 것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면서부터다. 어느 해 겨울방학인가 '시창작 이론과 실습' 강의 과목 중 좋아하는 시집 한 권을 필사하여 비평문(시 감상문)과 제출하는 과제가 주어진 적이 있었다. 대학의 문예창작 전공에서 필수로 꼽는 시인, 이를테면 김소월로 시작하여 이상, 정지용, 백석, 이용악, 서정주, 윤동주, 김수영, 김춘수 등 근현대 시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들은 이미 귀에 닳도록 읽고 들어 온 처지여서 뭔가 새로운 시인을 찾으려 학교 도서관을 뒤지던 중 우연찮게도 문학소년 시절 열병처럼 좋아했던 박인환 시집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 박인환이 있었지……'

나는 박인환 추모 20주기를 맞이하여 아들 세형(世馨)이 간행한 『목마와 숙녀』(근역서재 槿域書齋)를 구입해서 필사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가수 박인희의 감미로운 노래와 낭송을 통해서 박인환의 시를 맹목적 · 감성적으로 접했던 나는 박인환 시집 『목마와 숙녀』를 읽어가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박인환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명동의 댄디보이, 좌절한 모더니스트, 실패한 감상주의 문학, 통속적이고 경박한 유행의 숭배자' 정도였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었다. 박인환, 그는 광복과 함께 좌 · 우익 민족의 갈등을 절망의 언어로, 때로는 분노로 끌어안고 그 희망을 문학에서 찾고자 고뇌하고 갈등한 시인이었으며, 당대 누구보다도 시의 사회성이나 역사 문제를 자각한 시인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쓴 평론이 졸고(拙稿)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적 경향」이다. 이 글은 2000년 인제군과 〈내린문학회〉에서 개최한 '제1회 박인환문학제' 학술 세미나의 주제 발표한 글이다. 2002년도에 이 작품을 일부 개작하여 계간 『시와세계』 평론 부문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하게 되었다.

박인환의 진보적 문학 성향은 "전환하는 역사의 움직임을 모더니즘을 통해 사고해 보자"는 의도로 결성된 〈신시론〉의 동인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에 수록된 발문을 살펴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는 불모(不毛)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이 이반된 언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
> 자본(資本)의 군대(軍隊)가 진주(進駐)한 시가지(市街地)는 지금은 증오(憎惡)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난날을 노래했던 식민지의 애가(哀歌)며 토속(土俗)의 노래는 이러한 지구에 갈앉아 간다.

박인환은 해방 이후의 정치 · 사회적으로 극도로 혼란했던 시기를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로, 또한 그 사회를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인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찬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동시대의 문학이 "시민정신에 이반된 언어 작용만의 어리석음을" 일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의 애가(哀歌)이며 토속(土俗)의 노래"와 같은 기존의 문학을 버리고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비애적 정조 일색의 식민지 시대의 시문학이나 토속적 정서를 노래한 전통 시가문학의 답습'은 동시대의 진실을 올바로 반영한 시문학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즉 시대적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적 대응 방법과 노력의 일환으로 서구의 모더니즘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박인환은 1955년 발간한 자신의 『선시집』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나는 십 여 년 동안 시를 써 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
>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박인환은 자신의 세대를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를 쓰는 행위가 시대적 혼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의미를 지닌 싸움임을 잘 알고 있으며, 시인은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을 지켜야 하고, 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를 올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인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 6.25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절망의 언어로, 때로는 분노로 끌어안고 그 희망의 빛을 문학에서 찾고자 고뇌하고 갈등한 시인이었으며, 또한 당대 누구보다도 시의 사회성이나 역사 문제를 자각한 시인이었다. 그의 작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는 리얼리즘적 요소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그의 문학이 지닌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쓴 논문이 졸고(拙稿) 『박인환 시의 현실 인식 연구』(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이다.

4 나, 그리고 인제 문학과 박인환

1991년.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던 도시의 바람 찬 삶을 청산하고 내설악의 바람 소리와 내린천의 무량한 물소리에 끌려 박인환 문학의 본향 인제에 정착했다. '나, 그리고 인제 문학과 박인환'의 자취에 대해서 반추(反芻)하기로 한다.

인제의 문학동인(단체) 활동은 1970년대 〈인제문학동인회〉 〈달무리동인회〉 등이 결성되어 활동했지만 회원들이 생업, 직장 등의 이유로 뿔뿔이 흩어진 후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 10여 년 넘게 문학의 불모지로 표류하다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1988년 12월 30일 인제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문학 창작활동 활성화'란 취지를 걸고 〈내린문학동인회〉를 창립한다.

당시 강원도의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환경이 척박했던 인제군 최초 〈내린문학동인회〉(초대 회장 최병헌, 부회장 한성산, 총무 장정섭)는 인제 출신 소설가 이외수, 시인 최돈선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창립총회와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듬해 4월, 동인회 부설 〈광솔시낭송회〉를 창립하여 월 1회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에서 일체의 예산 지원 없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빈약한 주머니를 털어 문화원 사랑방이나 터미널 다방 구석, 혹은 시장 골목 선술집 등에서 서로의 작품을 돌려 읽으며 어설픈 시합평을 하는 시간은 회원들의 가슴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덥혀 주기에 충분했다.

1989년 9월, 인제가 낳은 대표적 시인 박인환 문학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한 취지로 '제1회 박인환시인추모백일장'과 인제 출신 소설가 이외수 초청 문학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대내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그해 12월, "이제 1년간의 업적(業績)을 결산(決算)하면서 내보내는 이 작품집(作品集)에 질(質)을 논(論)하고 싶지 않다"라는 최병헌 회장의 창간사를 담은 동인지 『내린문학』 창간호를 발간한다.

이후 〈내린문학동인회〉는 한국문인협회 인제지부 창립으로 자진 해체

하는 2002년까지 '광솔시낭송회(총 52회)' '박인환시인추모백일장(총 14회)' '내린문학시화전(총 12회)', 문인초청 문학강연(총 12회), 시합평회 등을 개최하며 등단 문인을 배출하는 등 지역 문학과 문화예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 감당해왔다.

특히 1997년 '내린천댐 반대운동' 일환으로 '내린천댐 반대 전국문인시낭송회', '내린천댐 반대 전국문인 서명운동', 구상 · 황금찬 시인 외 55인 합동시집『내린천, 너 영원하라』등을 발간하여 문학 활동을 통한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선 일은 기념비적 일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2000년, 〈내린문학회〉(제7대 회장 손홍기)에서 한국 시문학사의 대표적 시인 박인환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 나아가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1회 박인환문학제'를 개최한다. '제1회 박인환문학상 시상' '박인환 문학조명 학술세미나', '청소년동화구연대회', '박인환시낭송대회', '박인환시화전' 등 적은 예산과 열악한 지역 문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박인환 문학조명 학술세미나'는 박인환 시인과 〈후반기〉 동인 활동을 전개했던 문우(文友) 김경린 시인과 문학평론가 박태진 선생이 참여하여 '제1주제 : 멋과 순수(純粹)와 열정의 시인, 박인환을 말한다.', '제2주제 : 시인 박인환', '제3주제 : 박인환 시의 리얼리즘적 경향 고찰' 등을 발표하여 의미를 더했다.

1988년 창립 이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학과 지역 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감당해 온 〈내린문학동인회〉는 많은 등단 문인을 배출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법인 문학단체를 설립하자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3년 6월, 인제 지역에서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던 〈내린문학회〉, 〈내린천예술인회〉, 〈인제주부독서회〉 등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를 창립한다. 이로써 인제 문학의 출발이자 구심점이었던 〈내린문학회〉는 깃발을 내리고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시대를 맞게 되었다.

5 부침(浮沈)의 시절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2003년 10월, 한국문인협회 본부로부터 지부 인준(초대지부장 한용운 시인)을 받은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는 그간 〈내린문학회〉가 개최해 왔던 '박인환문학제'를 인수, 제4회~제16회(2015년)까지 개최했으며 동인지 『내린문학』을 제15집~제31집까지 발간했다.

해도 차면 저물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인간 역시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역경』)인가? 역사가 그랬고 우리네 삶도 부침(浮沈)이 있듯 호(好)시절의 인제 문학은 침체기를 맞게 된다.

생활문화 동호회인 〈내린문학회〉에서 전문 문학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로의 전환은 현상적으로 발전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내외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2000년 제1회부터 인제군과 〈내린문학회〉, 계간 『시현실』 공동으로 제정 · 운영해왔던 '박인환문학상'은 운영에 대한 주체 간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2008년 제9회를 끝으로 결별하게 된다. 2009년, 인제문인협회는 독자적으로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을 제정, 2회까지 운영하다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계간 『시현실』은 2009년부터 2019년 제20회까지 단독으로 '박인환문학상'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오던 '박인환문학제'마저 인제군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2015년 제16회를 끝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제 군민이자 지역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 '박인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다

박인환 시인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던 '박인환문학제'가 2년째 중단되자 지역 문인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자성(自省) 목소리가 커져갔다. 좌초한 박인환 문학 선양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

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2017년, 인제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침체되었던 박인환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박인환 선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창립준비위원회'를 갖고 6월 15일, 마침내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를 비롯하여 〈내린문학회〉, 〈내린천예술인회〉, 〈인제주부독서회〉 등 관내 4개 문학단체와 원로 문인,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박인환 시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에서 그동안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에서 개최해왔던 '박인환문학제'를 확대 개최하는 것을 비롯하여 향후 박인환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단체 및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2019년 11월 '박인환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인제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박인환학술세미나-박인환 선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7 2020, 돌아오다

–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

'박인환 선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 대표 문학제와 문학관 운영을 인정받고 있는 학계, 문화예술 축제 기획 · 연구 실무자가 다수 참여하여 박인환 선양사업과 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술 세미나의 주제 발표 내용과 군민 대토론회 등을 토대로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박인환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2020 박인환문학축제'를 개최한다. 박인환상시상식과 연극 〈세월이 가면〉(최불암, 김경란 주연), 〈박인환, 시를 살다〉(극공작소 마방진 공동제작, 홍의준 주연), 박인환 장남 박세형 시인 초청 북콘서트 〈나의 아버지 박인환〉 공연, 전시 행사로 〈박인환 시인을 기억하다 展〉, 〈박인환 시인 그리움 展〉 등을 개최했다.

2020년 새롭게 제정한 '박인환상'은 시 부문과 학술 부문(문학, 영화평론)으로 나누어 수상했다. '제1회 박인환상' 시 부문 수상은 조창환 시인(75 · 아주대 명예교수)의 시집 『저 눈빛, 헛것을 만난』(현대시학사, 2020)이 선정되었으며, 학술상 문학 부문에는 오문석 교수의 문학평론 「동심원을 넘어서 : 박인환의 '외접선'에 대하여」, 영화평론 부문 변해빈 씨의 「영화가 고통을 마주하는 법 : 발언과 침묵의 언어를 중심으로」가 각각 영예의 수상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문학축제의 대면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고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 그에 따라 '박인환학술세미나', '전국박인환시낭송대회', '박인환 백일장', 문학기행, 북콘서트 등 문예 행사를 치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박인환 시인을 우리 곁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박인환문학축제'가 올해처럼 관 주도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인들과 문화예술인, 인제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꾸려가는 대동축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과제로 남는다.

8 여기까지다!

나의 삶과 문학, 그리고 운명처럼 함께했던 박인환과의 문학적 교감(交感)과 교유(交遊)에 대하여 가히 그 질(質)과 공과(功過)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얼치기 문학 소년 시절 대중가요 가수의 노래와 낭송을 통한 우연한 만남이 어느덧 반세기, 50여 년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스산한 삶과 문학에 스스로 작은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다.

편집실

專心致志

전 심 치 지

뜻풀이 /

다른 생각을 끊고 그 일에만 온 마음을 바쳐 뜻한 바를 이룬다.

해 설 /

어느 날 맹자는 학습태도와 총명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다. 나라 안에서 이름난 바둑의 명수인 혁추에게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배운다고 할 때 한사람은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배우는데 한 사람은 스승의 강의를 들으면서 온갖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온갖 생각을 한사람이 정신을 쏟은 사람보다 못할 것이다. 이는 총명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을 끝낸 맹자는 곧이어 결론을 내렸다.

바둑을 비롯한 모든 것에 마음을 굳게 먹고 배우지 않는다면 이치를 깨달아 결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지역적 향유성

이학주

記錄되지 못한 歷史,
麟蹄의 獨立運動

한승윤

제 2 장

향토사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지역적 향유성

이학주 •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목 차〉

Ⅰ. 서론
Ⅱ.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
Ⅲ.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지역적 향유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개요

이 글은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지역적 향유성"에 대해서 고찰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민속놀이의 개념정의와 용어문제와 심사규정의 문제에 대해 제언을 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할 때 대중성를 띠고 지속적으로 향유될 것이라 했다.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에서는 그동안 인제에서 발굴하여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을 일괄해 봤다. 그러면서 민속놀이가 가진 '놀이적 특성과 발굴기준'을 찾아 부합여부를 알아보았다.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을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를 들어 근거를 대어 서술했다. 민속놀이의 발굴기준으로 ㉠ 원형보전 ㉡ 공동체의식 반영 ㉢ 예술성을 들었다. 그동안 인제에서 발굴한 민속놀이는 비교적 지역성을 잘 띠고 이뤄졌으나 일회성에서 그쳐서 아쉬웠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향유되었으면 했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지역적 향유성에서는 놀이의 원소스부터 마당극으로 만들어 쓴 시나리오와 향유성까지 살폈다. 〈하추리도리깨질 소리〉는 하추리 사람들 스스로 누리던 전통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게다가 앞서 논의한 놀이적 특성과 발굴기준에도 부합하였다. 모두 지역성을 잘 띠고 마을사람 스스로 출장공연까지 행하고 있었다.

주제어 | 민속놀이, 인제, 지역성, 향유성, 지속성,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Ⅰ. 서론

본고는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를 통해서 민속놀이의 지역적(地域的) 향유성(享有性)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일상적으로 풍속을 이야기할 때 백리부동풍(百里不同風) 천리부동속(千里不同俗)을 말한다. 이 말처럼 우리의 풍속은 지역적 향유성을 많이 띠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민속놀이는 윷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일상적인 민속놀이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을 하는 가공(加工)된 민속놀이이다. 원천소스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출연진이 연희를 하는 민속예술을 일컫는다. 민속을 주제로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마당놀이이면서 판놀음이다.

이 민속예술은 일찍이 마을마다 농악이나 천렵 등처럼 갖가지 민속분야에서 행해지던 우리의 생활놀이였다. 어쩌면 놀이라 말하기도 쉽지 않은 놀이라 할 수 있다. 어떨 때는 의식이 되고 어떨 때는 노동이 되고 어떨 때는 세시풍속이 되고 어떨 때는 굿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세시풍속과 의식 등이 놀이라는 폭넓은 틀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놀이 속에는 소리인 민요(民謠), 관노가면희 같은 민속극, 마을마다 있던 농악, 신앙인 굿이나 서낭제나 산신제 등 일상의 전통적인 제재는 모두 포함이 된다.[1]

그 때문에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민속놀이의 범주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그 첫째이다. 노동을 마당극으로 만들어도 놀이이고, 세시풍속을 마당극으로 만들어도 민속놀이이다. 또 민속신앙을 마당극으로 만들어도 민속놀이다. 그런데 민요의 경우는 소리가 노동이나 의식이나 유희나 모두 민요를 부른다고 해서 민요라 부른다. 마당극 속에는 노동이나 의식이나 유희가 행위 중심으로 들어가고 소리는 그 행위를 흥(興)나게 하는 도구일

* 이 글은 2020년 3월 『아시아강원민속학』 33집에 실었던 논문을 수정 · 보완하여 싣는다.

1 강원도에서 행해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을 정리한 다음의 책에서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농악, 민속극, 민요, 민속놀이이다.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뿐인데도 민요를 상위개념으로 우위에 두었다. 또 민속극인 관노가면극의 경우도 처음부터 마당극의 개념이지만, 이 또한 다른 마당극의 발생과 같은 여건으로 만들어져 이어오는 과정에서 규격화 되었다. 그런데 민속놀이는 민속신앙을 마당극으로 해도 민속놀이이고, 노동의 현장을 마당극으로 해도 민속놀이이고, 천렵 같은 놀이를 마당극으로 만들어도 민속놀이이다. 또 굿을 마당극으로 공연해도 민속놀이이다. 순수한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자치기, 연날리기 등도 민속놀이라 한다. 이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과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곧, 학계와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함께 고민해서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2] 필자가 제안을 하면, 모두 넓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민속놀이이므로 '민속마당놀이' 또는 '민속판놀음' 중 하나를 택해서 통일해서 부르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하위개념으로 민요, 민속신앙, 생업, 세시풍속, 일생의례, 가면극, 걸립 등으로 구분해서 장르를 분명하게 하면 좋을 듯하다.

문제는 이런 장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평가되며, 문화재로 규정이 되어 전승의 가치가 매겨 진다는 사실이다.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심사규정을 정해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오류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물론 심사를 위해서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대회에 출품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이다.

요즘 원형(原型)과 전형(轉形)이란 말을 쓰고 있다. 원래 전형은 전형(典型)일 텐데, 형편에 맞게 바꾼다는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 굳이 표현하면 전형(轉型)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형과 전형도 그 기준과 규범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원형을 따라야 하고 전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만큼의 변화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뀐다. 굳이 원형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전형이 아닌 변형(變形)도 생각할 때이다. 왜냐면 민속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수용해야 민

2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읽고 그 명칭을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강원민속예술축제' 등으로 바꾸어 부르며,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속을 이해할 수 있다.[3]

만약 바꾼다면, 그 기준을 미리 공지해서 각 지자체에서 출품을 하기 전에 알릴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는 그 어떤 혜택을 가시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서도, 다만 마을공동체의 결속에만 의미를 두고 바쁜 농사철에 모여서 힘들게 준비를 하고 있다. 향유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민속놀이는 의미가 없다. 강릉의 관노가면극처럼 대회를 위한 일회성에서 벗어나 대중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국가와 지자체와 문화재위원과 심사위원은 깨닫고 책임감 있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키니까 경비를 충당해서 행사를 하고, 등수를 매겨야 하니 심사를 한다면, 그를 마당극으로 출품하는 지역민에게는 또 다른 횡포이고 슬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제군을 대상으로 민속놀이와 그 특성을 알아보고, 지역적 향유성을 알아본다. 이 논문을 통해 지역적 향유성이 민속놀이 마당극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Ⅱ.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

인제지역의 민속놀이는 일찍이 인제사람들에 의해서 잘 전승해 왔다. 그리고 이미 세월이 흘러 사라진 민속은 고증에 의해서 새로 발굴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다시 드러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제의 민속놀이는 인제만의 특성을 잘 부각하여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책으로 현재 『강원의 전통민속예술』(1994)과 『

3 민속 중 가장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는 마을제사의 경우도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르게 치러짐을 볼 수 있다. 자치기 등의 '민속놀이'는 아예 사라지든가 모두 변했다.

인제민속사』(2004)를 들 수 있다. 『강원의 전통민속예술』[4]에는 〈숯둔골 숯굽기〉, 〈인제 뗏목놀이〉, 〈보습굽기〉, 〈갈이남박 만들기〉, 〈인제 심메마니〉, 〈개운동 배모으기〉, 〈군량독 채독만들기〉, 〈승냥간 베림질〉, 〈바지게 선질꾼〉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인제민속사』[5]에는 〈인제 뗏목〉, 〈심마니〉, 〈숯 굽기〉, 〈갈이남박 만들기〉, 〈군량동 채독 만들기〉, 〈대장간〉, 〈바지게 선질꾼〉, 〈다릿골 무쇠점간〉, 〈망대세우기〉가 소개되어 있다. 2007년에는 〈인제 숯가마 등치기 소리〉[6], 2017년에는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7], 2019년에는 〈인제 원대리 큰풀썰기 놀이〉[8]를 출연했다. 인제 뗏목은 1986년, 2002년, 2005년에 걸쳐 조사 · 채록되었다.[9] 이 가운데 세시풍속을 놀이화한 〈방동마을 망대세우기〉[10]를 제외하면 모두 생업에 관한 사실을 놀이화 하였다. 곧 노동을 대상으로 한 민속놀이이다. 노동 중에서도 〈인제 뗏목놀이〉와 〈바지게 선질꾼〉은 판매라는 상업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바지게 선질꾼〉을 제외하면 모두 인제인이 누렸던 생산노동의 삶과 연계된다. 살기가 어려워 산과 화전에 의지해서 삶을 이어간 인제인의 모습이 민속놀이에서도 드러난다. 민속놀이가 지역적 특성을 띠고 향유된다는 논거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향유된 인제인의 민속놀이 가운데 인제와 관련이 없는 민속놀이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가령 같은 회다지소리라 하더라도 인제지역에서 불러지는 소리는 사설과 음정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렇게 인제의 지역적 향유성을 띠는 이유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4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앞의 책, 159~166쪽.
5 이만철, 『인제민속사』, 인제문화원, 2004.
6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숯가마 등치기 소리: 갯골막 및 금바리 숯가마〉, 인제군, 2007.
7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인제군 · 인제문화원, 2017.
8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원대리 큰풀썰기 놀이〉, 인제군 · 인제문화원, 2019.; 김진순, 『인제 풀써는 소리』, 인제문화원, 2015.
9 최승순 · 박민일 · 최복규, 『인제 뗏목』, 강원대학교박물관, 1986.; 이만철 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2002.; 장정룡 · 이한길, 『인제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10 제18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방동마을망대세우기〉, 인제군, 2000.

그렇다면 이런 인제의 민속놀이는 어떤 특성과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과 발굴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민속놀이를 시나리오로 작성할 때 그 바탕으로 삼을 수 있으며, 아울러 민속놀이를 평가할 때도 심사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필자는 『인제 민속놀이』(2018)를 발간한 적이 있다. 이 책은 인제의 민속놀이 발굴집으로 14개의 민속놀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근거를 들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과 기준을 언급했는데 도움이 된다. 이 책에 의하여 기술하면 그 특성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11]

첫째,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을 본다. 여기서는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를 들었다. 필자가 주창한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언급한 민속놀이의 놀이적 성격을 반추해 볼 때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은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라는 적어도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이 네 가지의 특성은 함유하고 있어야 민속놀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여기서 전통성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생활의 일부로써 행해온 민속이 지금까지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지금까지 전승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증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는 민속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그 다음 지역성은 인제면 인제, 강원도면 강원도, 한국이면 한국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띠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지역의 고유성을 말한다. 그 다음 향유성은 그런 민속을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유하지 않으면 전통성도 지역성도 없음을 뜻한다. 시공세계는 민속놀이를 시공세계로 엮어내기이다. 세공세계(時空世界)는 3차원의 시공에 4차원의 시간을 더한 시공의 연속체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삶에 조상들의 삶을 덧입혀 마당놀이로 만드는 작업이다. 사실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요즘 단절되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삶이 바뀐 탓이다. 간혹 민속신앙의 경우나 세시풍속의 경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그에 대한 인식도

11 이학주, 『인제 민속놀이』, 인제문화원, 2018.

> 바뀌고 행위에 따른 절실성도 상당부분 상실되었다. 이 때문에 민속놀이로 만들어 공연을 할 때는 옛날 진정하게 절실성을 가졌던 시절을 현재시공으로 가져와야 한다. 현재시공으로 가져와서 재현을 하는 민속놀이여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기에 그때의 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시공세계를 만들어 마당놀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속놀이의 특성을 올바로 계승할 수 있다.[12]

인용문처럼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보도록 한다. 다시 말하지만,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민속놀이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모든 민속을 의미한다. 이때 민요든, 놀이든, 세시풍속이든, 민속신앙이든 모두 놀이의 형태를 띠고 마당극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민속마당놀이' 또는 '민속판놀음'의 형태이다. 민속을 주제로 펼쳐지는 마당놀이이면서 판놀음인 것이다. 이때 마당놀이와 판놀음은 그 의미가 다양한데, 김선풍은 「민속놀이와 축제의 의의」[13]라는 글에서 민속놀이의 개념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 우리나라의 놀이는 오늘날의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Pastime)과 즐기기 위한 오락(Amusement)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
>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속놀이라는 개념 속에서 싸움(Game)을 뜻하는 경쟁의식을 비롯해서 흥을 뜻하는 유희성, 즐김을 나타내는 오락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으로 숨어 있기 때문이다.
>
> 놀이는 종교적 행식(行式)이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한다.[14]

인용문에서 보면 민속놀이를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첫째는 제기차기 등의 일반적인 민속놀이와 민속예술축제를 구분하고 있다. 둘째

12 위의 책, 30쪽.
13 이학주, 『인제 민속놀이』, 인제문화원, 2018.
14 위의 책, 11쪽.; 김선풍 · 장정룡 · 김경남, 『평창군의 민속놀이』, 평창군, 2005, 7쪽.

는 민속놀이의 범주를 경쟁성, 유희성, 오락성, 예술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두었다. 셋째는 출발점을 종교적 행식이나 세시풍속에 두었다. 이 개념은 민속예술축제장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를 규명하는데 아주 유효하다고 본다. 이는 필자가 본고에서 주창하는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를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첫째의 경우는 민속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울러 둘째 항목의 내용과 합치되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둘째의 경우는 민속예술축제를 구성하고 행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필자가 주창하는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싸움을 하는 경쟁의식은 근본적으로 줄다리기나 정월대보름에 행하던 투석이나 횃불싸움 등에서 읽을 수 있다. 춘천의 외바퀴수레싸움놀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놀이는 『동국세시기』에도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민속놀이 중 하나이다. 마을마다 외바퀴수레를 끌고 나와서 동리대항을 했다고 했다.[15] 이렇듯 민속놀이는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 전국대회에 나가고 상을 부여하며,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을 받으면 전승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어지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면 주어지는 이 같은 혜택은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에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줄다리기나 외바퀴수레싸움 같은 경우는 놀이 자체에서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출연한 다른 놀이와도 경쟁의식을 가지게 된다. 사실 연행 마당에 가보면 엄청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강원도는 예전에 '민속경연대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음은 유희성에 대한 흥의 문제와 오락성에 대한 즐김의 문제이다. 흥과 즐김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흥이 생기면 즐거움이 생기고 흥이 일어나면 즐겁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코드를 읽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

15 洪錫謨 著, 李錫浩 譯, 『東國歲時記』, 良友堂, 1988, 49쪽. "春川俗有車戰 以獨輪車各里分隊 前軀相戰 以占年事 逐北者爲凶 加平俗亦然(춘천속유차전 이독륜거각리분대 전구상전 이점년사 축배자위흉 가평속역연) 춘천(春川) 풍속에 차전(車戰)이 있다. 외바퀴 수레를 동리별로 떼를 나누어 앞으로 밀고 나와 서로 싸움으로써 그 해의 일을 점친다. 쫓기는 편이 흉하다. 가평(加平)의 풍속도 또한 그러하다."

러나는 단어는 흥(興)이고 즐거움인 풍류 락(樂)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고대부터 한국인은 음주가무를 즐긴다고 중국정사(中國正史) 조선전(朝鮮傳)에 기록되어 있다. 한(韓)나라 조에 "그들의 풍속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마시고 비파 뜯기를 좋아한다."[16]는 사실처럼 영고(迎鼓)나 동맹(東盟)이나 무천(舞天) 등의 국중행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다는 기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고대 뿐 아니라, 조선조 때도 행했음을 성현(成俔, 1439~1504)이 쓴 『허백당집(虛白堂集)』문집 권3 〈기강릉원주풍속(記江陵原州風俗)〉에서 강릉사람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강릉은 그렇지 않다. 강보를 떠나면서부터 먼저 안락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고, 고운 옷을 입고 편하게 잠자며, 사치와 아름다움을 서로 뽐내고, 집집마다 휘장을 치고, 부자에게 쌀을 빌려서 잔치의 물자를 갖추며, 술잔을 이끌고 술통을 잡고 취하지 않는 날이 없다. 혹 이로 말미암아 고을 풍속에 '월조지평(月朝之評)'이라는 게 있다. 비록 농사철일지라도 농사일에 힘쓰지 않으며, 늦도록 먹고 가며 새벽에 돌아가면서 "모기와 등에가 피부를 물어서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한다. 심한 더위에 등을 태우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가(良家)세족들은 베를 읍중에 벌여놓았지만 부자는 실제로 없다. 내가 일찍이 그 까닭을 기술하고자 하나 아직 얻지를 못하였다.[17]

오죽 흥이 많고 즐거움을 취하고자 했으면 부자에게 쌀을 빌려서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겠는가. 이런 기사는 『허백당집』 곳곳에서 보인다. 이처럼 강원도 사람들은 유희와 오락을 즐겨 했는데, 민속놀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속놀이는 마당놀이고 판놀음이라 했는데, 이 같은 오락과 흥이 없으면 행해질 수 없다. 여기서도 필자가 주창하는 민속놀이의 특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다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다음에 거

16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1986, 17쪽.
17 성현, □허백당집」,『한국문집총간』14, 민족문화추진회, 1988, 435쪽.

론될 민속놀이의 기준과도 결부된다. 민속놀이가 예술성을 띨 수밖에 없는 사실은 마당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연행되는 판놀음이기 때문이다. 광대가 행하는 예술행위와 같은 개념의 민속놀이이다. 그 때문에 실제로 행해지는 긴 노동의 과정이나 제의과정이나 세시과정이 단 30분 이내로 마당에서 예술성을 띤 채 연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고, 과장이 있고, 변형 및 전형이 주어져야 한다. 같은 주제이지만 연출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연행자의 자질에 따라 다르게 연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연출이나 연행자의 자질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민속놀이의 특질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성에서 비롯한 것이다.

셋째는 종교적 행식이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한다는 문제이다. 그런데 종교적 행식과 세시풍속은 대부분 신을 강림시켜서 즐겁게 대접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물론 세시풍속에서 세배를 다닌다든가 덕담을 하는 행위처럼 일상의 연속으로 주어지는 풍속도 있지만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단오제이라든가 추석 및 추수감사제 등은 모두 신과 인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이는 서낭제나 산신제 등처럼 동제가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비슷한 상징체계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종교적 행식과 세시풍속은 축제(祝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축제는 강릉단오제처럼 신을 강림시켜 난장을 벌여 신을 즐겁게 대접하여 올려보내며,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놀이에서 신명에 겨워 한 바탕 신나게 노는 것은 축제의 장에서 벌이는 난장과 흡사하다. 이런 유형도 곧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김선풍이 정의한 민속놀이는 전통성, 지역성, 향유성, 시공세계라는 놀이적 특성을 고스란히 이야기 한 것이다. 이는 민속놀이가 판놀이의 형태를 띤다든가 태극의 카오스 형태를 나타낸다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18] 민속놀이가 태극을 원형으로 하는 『주역』의 변화(變化)와 생

18 『평창군의 민속놀이집』, 앞의 책, 7~17쪽.

성(生成)을 축으로 했음으로 볼 때, 축제와 민속놀이의 판은 인간의 삶이 더 나은 세계가 되기를 기원한 제의적인 판놀음이었다고 하겠다. 이상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신바람 나는 춤사위를 놀이판으로 만들어서 행한 의식이 민속놀이이다.

둘째, 민속놀이의 기준이다. 여기서는 ㉠ 원형보전 ㉡ 공동체의식 반영 ㉢ 예술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은 지역적 향유성을 보기 위한 조건이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했다.

>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는 민속놀이는 민중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이다. 그것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성과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 때문에 민속놀이는 원형이 잘 보전되어야 하고, 공동체적인 의식이 반영되어야 하며, 연희를 행하기 때문에 예술성도 가미 되어야 한다. 이 원형보전, 공동체적 의식의 반영, 예술성은 어쩌면 민속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 이 조건은 민속의 원형을 현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조건 옛것을 발굴해서 연행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
> 민속놀이를 통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민속을 보전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혼자서 이뤄질 수 없으므로 마을 또는 사회와 국가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왜냐면 민속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의 독특한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며 공통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풍속이어야 한다.[19]

민속놀이를 만들 때 왜 원형을 보전해야 하고, 공동체의식을 반영해야 하며,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술성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언급했듯이, 민속놀이가 마당놀이이며 판놀음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전통성만 따지던 모습에서 벗어나 요즘 들어 전형(轉形)을 얘기하는 면과 상통한다. 여기서 전형(轉形)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변화는 예술성을 의미한다. 예술적 아름다움을 가미했다고 해서 원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말해서 민속놀이의 미학(美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다양한 음악장르가 탄

19 이학주(2018), 앞의 책, 31쪽.

생하고, 영화가 진화하듯이 민속놀이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음악이 다양한 장르로 진화한다고 해서 음악의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이때 예술성은 정리하면,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예술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성이 있어야 감동이 있고 여운이 있고 오랫동안 공연을 해도 질리지 않는다. 마치 강릉단오제에서 연행되는 관노가면극이 예술성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민속놀이가 가지는 최소한의 기준인 원형보전, 공동체의식 반영,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속놀이의 특성과 기준에 따르면 인제의 기존 민속놀이는 비교적 잘 발굴되어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마당놀이의 판이 원시종합예술처럼 확장되어 있지 못하고, 축제의 제의적 성격과 난장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놀이적 특성으로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와 놀이의 기준으로서 ㉠ 원형보전 ㉡ 공동체의식 반영 ㉢ 예술성은 비교적 잘 갖춰진 형태이다.

하지만, 지역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과연 앞에서 나열한 인제의 민속놀이 가운데 인제만의 지역성을 띤 민속놀이가 무엇일까? 숯굽기와 보습굽기와 채독만들기, 대장간, 심마니, 풀썰기는 전국에 걸쳐 행해졌으며, 망대세우기도 삼척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뗏목은 강원도 전역에서 행해졌으며, 바지게 선질꾼도 강원도 일대에서는 보편적인 상업형태였다. 그래도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갈이남박 정도이다. 갈이남박도 전국적이지만 인제와 남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목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게다가 일회성인가 향유성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히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뿐 향유되지 않는다면 이미 옛 것에 지나칠 따름이다. 강릉단오제나 횡성회다지소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전승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내포한 채 마을이나 고을에서 향유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월이 가면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통의 문화가 그대로 향유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향유는 전형으로 이뤄진다. 어떤 민

속놀이는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고, 어떤 민속놀이는 실제로 전승이 이어질 수 있다. 정선아라리가 박물관에 전시되기 보다는 현재 불러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 횡성회다지소리, 정선아리리는 모두 지역 또는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지자체와 국가에서 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그 중요성도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 지역성을 인정받고 향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Ⅲ.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지역적 향유성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는 2012년부터 하추리사람들이 하추리에서 전승되던 풍습에 따라 옛 전통을 이어 스스로 발굴하여 만들어 행하고 있는 민속놀이이다.[20] 위에서 언급한 민속예술의 특성과 기준이 비교적 잘 부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적 향유성을 띠고 마을사람들에 의해서 마당극 판놀이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에는 놀이적 특성으로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와 놀이의 기준으로서 ㉠ 원형보전 ㉡ 공동체의식 반영 ㉢ 예술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도록 한다.

전통성과 지역성을 가진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원천소스는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를 통해 원형보전과 공동체의식도 볼 수 있다.

◇ **도리깨질소리에 얽힌 이야기**

하추리 토박이 고 윤길용 소리꾼의 구술로 작성된 이야기 임

조선조 때였다. 하추리에는 마을 일이면 빠지지 않고 내 일처럼 하던 박

20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내용은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인제군 · 인제문화원, 2017.에서 인용하여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씨 부부가 열아홉 장성한 아들 돌쇠와 같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집이지만 늘 서로를 위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은 누구 못지않았다. 자신이 굶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 뭐든지 주었다.

돌쇠는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 때가 되자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빨리 돈을 모아 장가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서였다.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논밭이 없는 터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허드렛일을 해주며 살았다. 그러다가 마침 그해는 화전을 일구어서 콩과 메밀과 팥과 수수를 많이 심었다. 곡식이 자라는 모습에 늘 흡족해 하며 돌쇠는 밤낮을 모르고 일을 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비가 촉촉하게 내린 하추리 매봉산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석이버섯이 곱게 피어났다. 돌쇠는 크기도 크려니와 모양도 좋아서 절벽에 피어난 석이를 따면 꽤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매봉산에 올라서 석이버섯을 따올 게요."

"얘야, 조심 하거라."

"매일 가던 곳인데요 뭐.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부모님에게 석이버섯을 따서 오겠다고 고하고 매봉산으로 향했다. 돌쇠는 석이버섯을 많이 따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생각을 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장비를 챙겨들고 흥얼대며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 절벽에는 석이버섯이 새까맣게 붙어 있었다.

"빨리 따서 가야겠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텐데."

돌쇠는 밧줄을 절벽 꼭대기에 있는 나무에 매고 망태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밧줄을 풀며 아래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석이버섯은 많았다. 돌쇠는 신이 나서 밧줄을 잡고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석이버섯을 땄다. 그때였다.

"툭!"

밧줄이 날카로운 돌 모서리에 걸려 움직이면서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석이버섯을 더 따려고 여러 곳에 옮겨 다닌 것이 화근이 되었다. 밧줄

은 금방 터지고 말았다. 돌쇠는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다. 박 씨 부부는 순식간에 다 키운 아들을 잃고 말았다. 열아홉 젊은 청년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하늘은 참 무심도 하시지."

졸지에 아들을 잃은 박 씨 부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하루 이틀이 가고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사는 재미가 없이 매일 슬픔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할 시기가 되었다. 하추리 산골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싸늘한 가을이 다가왔다. 집집마다 논밭에 널려있던 곡식을 거두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때였다. 돌쇠와 친구인 김수기가 동네사람들에게 의견을 내었다.

"내일 돌쇠네 화전밭 울력을 하면 어떻겠소?"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심전심이었다고나 할까. 김수기의 말 한마디에 아침 이른 시간에 동네 젊은이들은 박 씨 부부의 아들 돌쇠가 심어놓은 화전에 오른 것이다. 울력을 할 참이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마음이 통했나 보네. 힘껏 베어서 지고 가세."

마을의 젊은이들은 저마다 콩과 메밀과 팥과 수수를 베어서 지게에 짊어졌다. 돌쇠의 부모가 살고 있는 마당에는 금방 나락으로 가득했다. 젊은이들은 콩을 널어놓고 도리깨질을 했다. 그때였다. 동네에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잘 하는 소리꾼 김 노인의 소리가 시작되었다.

"에허어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슬픈 노랫가락이 흥겨움을 더하여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은 김 노인의 소리에 맞춰 후렴을 하면서 더욱 힘차게 콩을 털었다.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

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

도리깨질에 맞추어서 소리는 이어졌다. 박 씨 부부는 슬픈 회다지곡조로 흘러나오는 도리깨질소리를 들으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동네 아낙들은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울력을 하는 젊은이들과 박 씨 부부에게 주어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하추리에는 울력의 전통이 이어졌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가 전승되고 있다.[21] (〈하추리의 울력전설〉)

하추리마을의 아름다운 풍속이 화전에서 곡식을 가져와 터는 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추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아주 잘 부각되고 있다. 먼저 논농사가 없고 밭농사 중심의 산악지대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산악지대이다 보니 산에 가서 버섯을 따다 죽은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산간마을에서 주로 행해졌던 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어서 도리깨질소리가 회다지소리 곡조에 맞춰 돌쇠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울려 퍼진다. 그런데 이때 부르는 도리깨질소리는 비록 회다지소리의 가락과 비슷하지만 실상은 노동요이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도리깨의 행위에 맞추어 부르다보니 회다지소리의 가락을 흉내 냈을 뿐이다. 소리도 실제로 들으면 회다지소리와 다르다.

그러면 실제로 위 이야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출품했던 배경설명과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민속놀이가 가진 특성과 놀이의 기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유래

하추리에서 마을청년들이 죽은 아들을 대신해 노부부를 도와 울력할 때 부르던 소리

21 이 이야기는 하추리에서 전승되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을주민 스스로 축제와 자매결연 지역의 출장공연을 위해 만들어서 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2017년에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 도리깨질 소리 서울 상암동공연(2012년부터)

하추리는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촌이다. 산촌 하추리는 대대로 산에 의지해서 잡곡을 심어 먹고 살았다. 1970년대 화전정리 전까지는 화전이 마을의 유일한 생산터전이었다. 험악한 산중에 살다보니, 마을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야 했다. 울력이 발달한 원인도 마을의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추리 사람들은 산촌에서 힘든 일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에 어울리는 나름의 소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소리꾼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 중 근대에는 이미 작고한 소리꾼 조동빈(1950년대 작고) 씨가 있었고, 조동빈 씨를 이어 윤길용(1990년대 초 작고) 씨가 있었다. 이 분들은 마을의 모든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소리를 했다.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와 같은 의식요, 도리깨질소리와 같은 노동요, 타령조의 유희요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이런 소리를 윤길용 씨는 당시 30대인 김군호(남, 59, 2017년) 씨에게 전수를 하였다.

그런데 도리깨질소리는 고 윤길용 씨가 이 소리를 전수하면서 선대부터 들었던 유래를 마을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래의 요지는 이렇다. 하추리에 옛날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화전을 해놓고 거두지 못하고 석이를 따다가 죽었다. 노부부는 겨울이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데도 거두미를 못했다. 이를 본 마을 청년들이 울력으로 노부부의 추수를 해주었는

데, 그때 젊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며 회다지조로 도리깨질소리를 하며 타작을 해 주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 마을에 전승되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축제인 '도리깨축제' 때 공연하며, 자매결연 지역 서울 송파구에서도 출장 공연을 했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특색

의식요[회다지소리]와 노동요[타작소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절한 곡조의 소리마당극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내설악 한계령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산중마을 하추리 일대에서 부르던 노동요(勞動謠)이다. 자식을 잃은 노부부를 도와 울력으로 곡식을 털며 슬픔을 달래던 이 고장 특유의 소리와 절차이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회다지곡조의 리듬으로 불러지다가 유희요조로

그림 2 하추리도리깨축제(2015년)에서 도리깨질소리를 연행하는 장면

바뀌어 부른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는 화전민들의 애환과 울력의 마을공동체의식이 담긴 절차로 진행 된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마을 축제적 성격의 노동집약을 보여주는 소리의 형태를 취한다. 이 때문에 도리깨질소리는 도리깨로 곡식을 터는 소리를 시작으로, 턴 곡식을 키질하는 소리, 키질로 정제한 곡식을 절구로 찧는 소리, 이웃에서 떡을 해와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을 잃어 노동력을 상실한 노부부의 슬픔을 달래서 마을의 노동축제로 승화 시켜 나가는 소리로 이어진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 사설은 회다지곡조의 애절한 노동요로 자식을 잃은 노인을 위로하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참의미를 담고 있다.

◇ **발굴 및 재연**

원래 마을에서 불리어지던 소리를 마을사람들이 '도리깨축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리마당극 -

- 고증: 마을에서 전승되는 소리로 하추리의 소리꾼 고 윤길용의 구술
- 소리꾼: 고 윤길용 씨로부터 사사 받은 김군호(남, 59) 소리꾼
- 연출 및 감독: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최윤필(국민대통합아리랑)
- 시나리오 구성: 2012년 도리깨축제(하추리마을축제) 때 재연 시작. 박재균(하추리 구 이장), 김재노(이장), 김군호(하추리 소리꾼), 박봉수(하추리 정보사무장), 강성애(하추리 체험사무장)
- 시나리오 정리: 이학주(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장)

◇ **구성**

- 시간: 25분
- 장소: 집 마당
- 출연인원: 57명(소리꾼, 도리깨꾼, 키질, 빗질, 절구질, 떡메질, 도리깨질 등)
- 소리: 앞소리/뒷소리(선후창)

◇ **놀이마당 시나리오**

· 준비마당 ⇒ 도리깨질소리공연 준비

- 도리깨질소리 기본 소품을 소리마당극에 이어 먼저 설치한다.

· 첫째마당 ⇒ 노부부 타작, 마을 청년들 입장으로 울력 시작

- 노부부가 굽은 허리로 마당에 들어와서 작대기로 콩을 턴다. 최대한 긴장감과 적막감을 준다.
- 노부부가 콩을 털고 조금 후, 선소리꾼(마을 청년대표)이 마을청년들을 모아 노부부 집의 울력을 하자고 사설을 한다.
  (마을사람 여러분! 돌쇠가 지난여름에 매봉산에서 석이를 따다가 낙상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추워지는데 돌쇠 부모님이 힘이 없어 콩마당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돌쇠네 콩마당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마을청년들은 모두 좋다고 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간다.
- 〈하추리 도리깨질소리〉라는 소리제목 깃발을 앞세워 입장을 한다.
- 〈농자천하지대본〉과 〈인제 도리깨마을 하추리〉 등의 깃발과 출연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소품을 들고 입장을 한다.
- 이때 선소리꾼이 돌쇠 부모님께 마을사람들이 콩마당을 한다고 사설을 한다.
  (돌쇠 부모님 돌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들이 울력으로 콩마당을 해드릴 테니, 이제 쉬세요.)
- 돌쇠 부모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당에서 퇴장을 한다.

· 둘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시작, 콩마당, 팥마당, 수수마당, 조마당

- 소리마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구성원은 크게 후렴을 외친다. 선소리꾼이 도리깨질소리를 하면서 각 마당에 대한 신호를 주므로 이를 잘 따른다.
- 콩마당을 시작하면, 홍의조와 백의조는 마주서서 도리깨질을 제자리에서 좌우로 이어간다. 콩마당이 끝났다는 선소리꾼의 신호에 따라

도리깨질을 하던 사람들 도리깨를 돌리며 환호한다. 콩마당이 끝나면 비질을 빨리 진행한다. 징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넘어간다.
-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팥마당, 수수마당, 조마당을 한다. 도리깨질은 좌우에서,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치기를 한다.

셋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키질로 이어짐, 키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도리깨로 턴 곡식을 키질로 까불어서 낟알을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키질 장면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넷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절구질로 이어짐, 절구질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서 절구질을 해서 곡식가루를 낸다.
- 도리깨질을 하는 사람은 역시 도리깨를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절구질 장면을 돕는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다섯째마당 ⇒ 도리깨질소리 떡메질로 이어짐, 떡메마당
- 선소리꾼이 소리로 마당이 바뀌는 장면임을 알린다.
-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든다.
- 돌쇠 부모님은 떡을 마을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고마움을 표한다.
- 기수와 농악대는 같이 돌며 흥을 돋운다.

마무리마당 ⇒ 길놀이 퇴장, 흥겨운 잔치마당
- 선소리꾼이 마을사람들에게 울력을 하느라 고생했음을 소리로 알린다.

- 참가자 모두 끝까지 후렴을 큰 소리로 한다.
- 농악을 신나게 울리면서 마을사람 모두 신나게 춤을 춘다.
- 퇴장을 하고, 이어서 흩어진 소품을 챙긴다.

◇ **도리깨질소리 사설**

소리사설이 도리깨질이 끝날 때까지 이어짐으로 상당히 길게 불러짐. 소리내용은 고정되어 있으나 내용 자체가 일꾼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이 많이 적용된 상황임

에허어라 당쇠. 에허어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콩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가지고 에루화라 당쇠.
콩마당을 때려놓고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노당쇠님. 힘을 내어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좌우연계를 넘어가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콩을 까불어 물에 불려. 에루화라 당쇠.
삶은 콩을 메주 쑤어.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추장 담가 먹어본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박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빌어 콩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에 늘어서면 저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저기 저 당쇠 무얼 하나.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조마당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네 힘을 내어. 조마당을 때려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당쇠님이 여기 오셔. 조마당을 때려나볼까. 에루화라 당쇠.
조마당을 때린 뒤에 까불어 날려 씻은 조를 인절미를 빚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요 마당은 팥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팥마당을 때려날려. 에루화라 당쇠.
동지섣달 기나긴 밤을.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팥죽을 쑤어 모아놓고 이웃사촌과 나눠보자.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어서 빨리 때리다가.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앞을 보고 들어가요. 에루화라 당쇠.
이 마당은 정리마당.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때려 엎어 뒤집어 놓고.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저당쇠님. 좌우행렬을 뒤집어 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오늘 같이 좋은 날 언제 언제 또 있을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날이 또 있을 꺼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강원도라 인제군에 이다지도 깊은 산중에 오늘 같이 여러분이 고이고이 살고 있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오늘 행렬을 보고 갈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대한민국 강원도에 인제군이 뚝 떨어졌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요. 당쇠님네. 진행사가 어딜 갔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노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이번 마당은 키마당이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심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당쇠님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경당쇠님. 고이 이쁘게 까불어서.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고이 이쁘게 까불어주소. 절구질로 넘어간다.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박당쇠님. 수수 방아를 찧어볼까.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임당쇠님. 수수방아를 찧어 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님.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이당쇠야. 저당쇠야. 우리 실컨 놀고 갑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세요. 김당쇠님. 떡을 쳐서 인절미를.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떡을 쳐요.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인절미를 떡을 쳐요.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에허야 당쇠야. 때리고 부수고 놀아보세.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여보시오. 김당쇠님. 여보시오. 박당쇠님. 소리로 놀아 봅시다.
에루화라 당쇠. 에루화라 당쇠.

※ 후렴의 당쇠: 마당쇠의 준말로 사용한다. 원래는 회다지소리에서 불러지던 '에허어라 달호'에서 도리깨질소리로 바뀌면서 '에루화라 당쇠'로 후렴이 변했다. 첫 소리에서 나오는 후렴과 뒤의 후렴이 다른 원인이다. (김군호(남, 59) 소리. 2016년. 인제읍 하추리 싸리목길 42)

◇ **참가자 명단**

참가자 모두 하추리사람들로 구성 됨. 시나리오 구성, 연출, 조직 등이 모두 하추리사람들에 의해 이뤄짐(참가 인원 : 57명)

이상은 하추리 사람들에 의해서 매년 하추리에서 행해지는 '하추리 도리깨 축제' 때와 자매결연을 한 서울 '상암동 축제' 때 행해지는 마당극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시나리오이다. 전통성과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원소스에 따라 시나리오가 시공세계를 드러내며 향유성으로 이어져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놀이가 가져야 할 원형보전과 공동체의식 반영과 예술성이 잘 드러난다. 민속예술축제에서 요구하는 마당극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하추리 도리깨질 소

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향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마당극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의 지역적 향유성에 대해서 고찰해 봤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서론부분에서 민속놀이의 정의와 용어와 심사기준의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提起)를 했다. 민속놀이의 용어를 다시 정립해야 하며, 심사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원형과 전형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이를 명확히 할 때 마당극 민속놀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향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제인의 민속놀이와 그 특성에서는 그동안 인제에서 발굴하여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을 일괄해 봤다. 그러면서 민속놀이가 가진 '놀이적 특성과 발굴기준'을 찾아 부합여부를 알아보았다. 인제의 민속놀이는 놀이적 특성이 지역성을 잘 띠고 있었다. 곧 살기가 어려워 산과 화전에 의지해서 삶을 이어간 인제인의 모습이 민속놀이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을 ㉠ 전통성 ㉡ 지역성 ㉢ 향유성 ㉣ 시공세계를 들어 근거를 대어 서술했다. 민속예술축제에서 행해지는 마당극은 제와 같이 종합적인 예술을 할 수 없기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그 중의 일부를 떼어서 판놀이의 형태로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굿놀이판이 형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신바람 나는 춤사위를 놀이판으로 만들어서 행한 의식이 민속놀이라 했다. 다음으로 민속놀이의 발굴기준으로 ㉠ 원형보전 ㉡ 공동체의식 반영 ㉢ 예술성을 들었다. 아무리 전형이 이뤄지더라도 원형을 살려야 하며, 그 원형에는 그 지역사람들의 공동체의식이 반영되어야 하며, 마당극이기 때문에 예술성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예술성은 되도록 세

련되지 않고 투박한 토속성을 띠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제민속놀이의 경우 이런 면이 비교적 잘 되었지만 인제 고유의 것이라 생각했던 지역성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문제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향유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하는 것으로 일회성에 그쳤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인제의 민속놀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의해 지역성을 인정받고 향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추리 도리깨질소리의 지역적 향유성에서는 놀이의 원소스부터 마당극으로 만들어 쓴 시나리오와 향유성까지 살폈다. 〈하추리도리깨질 소리〉는 하추리 사람들 스스로 누리던 전통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이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마당극의 내용부터 소리까지 모두 그런 특성을 띠고 있었다. 특히 소리의 사설을 보면 원소스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음은 물론, 소리의 가락은 하추리 특유의 모습으로 향유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민속놀이의 놀이적 특성과 발굴기준이 모두 부합하며, 무엇보다 마을사람 스스로 지속적으로 마을축제 공연과 서울 출장공연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참고문헌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강원도, 1994.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국사편찬위원회, 1986.

김선풍, 「민속놀이와 축제의 의의」, 『중앙민속학』 1, 중앙대학교한국문화유산연구소, 1989.

김선풍·장정룡·김경남, 『평창군의 민속놀이』, 평창군, 2005.

김진순, 『인제 풀써는 소리』, 인제문화원, 2015.

성현, 「허백당집」, 『한국문집총간』 14, 민족문화추진회, 1988.

이만철, 『인제민속사』, 인제문화원, 2004.

이만철 편, 『인제 뗏목』, 인제문화원, 2002.

이학주, 「머슴날의 의미와 철원군의 〈머슴날놀이〉」, 『강원문화연구』 32,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13.8, 45~64쪽.

이학주, 「인제 마의태자설화의 문화적 의미와 관광문화콘텐츠 방안: 시공세계(時空世界) 글쓰기와 고전의 현대적 활용」, 『동방학』 3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207~237쪽.

이학주, 『인제 민속놀이』, 인제문화원, 2018.

장정룡·이한길, 『인제뗏목과 뗏꾼들』, 인제군, 2005.

제18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방동마을망대세우기〉, 인제군, 2000.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숯가마 등치기 소리: 갯골막 및 금바리 숯가마〉, 인제군, 2007.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하추리 도리깨질 소리〉, 인제군·인제문화원, 2017.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인제 원대리 큰풀썰기 놀이〉, 인제군·인제문화원, 2019.

최승순·박민일·최복규, 『인제 뗏목』, 강원대학교박물관, 1986.

洪錫謨 著, 李錫浩 譯, 『東國歲時記』, 良友堂, 1988.

Abstract

Traditional Folk Games of Inje and Enjoyment of "Song of Flailing at Hachuri"

Lee Hak-ju

This paper searches the traditional folk games of Inje and the enjoyment of "Song of Flailing at Hachuri." It looks into the definition of folk game, the terminology and the rule of evaluation. Clear definition will give publicity to traditional folk games and make them enjoyable continuously.

It referred to the works entered in the Gangwon Traditional Folk Games Contests for the study of traditional folk games of Inje and the features of them. It tried to verify whether they applies with the criteria of development and the game features. Some features of traditional folk game shall be traditionality, localism, enjoyment, and time-space. Criteria of developing the traditional folk game shall be conservation of prototype, reflection of communal consciousness, and artistic value. The traditional folk games in Inje have been developed well with local quality but should be enjoyed continuously.

It looked into from source of games to poems or scenarios of Madang folk plays for the local enjoyment of "Song of Flailing at Hachuri." This song has its origin in the tradition of Hachuri people. They have developed and continued their traditional folk plays by themselves. Also their games apply with the features and criteria. Their games have its locality and the local people even traveling show.

Key words : Traditional Folk Game, Inje, Locality, Enjoyment, Continuity, Hachuri, Song of Flailing

記錄되지 못한 歷史, 麟蹄의 獨立運動

한승윤 • 인제문화원

〈목 차〉

1 서론
2 새로 발간된 자료
3 새로 밝혀진 인물들
4 결론

1 서론

1) 독립운동의 개괄

지난해 2019년은 1919년 3 · 1독립만세운동 혹은 기미독립만세운동이 거행(擧行)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혹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서였는지 전국적으로 독립운동 사료(史料) 찾기와 이를 통한 출간(出刊)작업이 들불처럼 크게 일어났다.[1]

인제군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2018년 초부터 시작된 '지역과 관련 깊은 독립운동 사료 찾기 사업[2]'과, 인제의 의병

1 3 · 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1919년을 기점으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사업추진에는 정부 또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編著者註

2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집필위원을 맡고 있는 한승윤이 인제문화원의 주관으로 관련 조사사업을 1년여에 걸쳐 진행하였다.

운동(義兵運動)과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제독립운동가 찾기 사업[3]'이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 각각 출판물로 완성되어 배포되었다.

이 가운데 인제문화원이 주도한 '지역과 관련 깊은 독립운동 사료 찾기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인제의 의병운동(義兵運動)과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제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의 결과물을 받아들고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발간물의 제목이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인 이 책은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가 주관하여, 전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최병헌 선생이 편자로 강원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유재춘 교수가 감수하였으며 부록(附錄)을 포함하여 모두 24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발간이 기대를 모으고 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책자의 발간에 앞서 이루어진 인제문화원의 '지역과 관련 깊은 독립운동 사료 찾기 사업'에서, 연구조사가 미흡하여 수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자료 찾기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책을 전달받은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전반적인 내용과 연구조사 결과를 면밀(綿密)하게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 본고(本稿)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미로 부족한 글이나마 향토사연구발표대회에서 공론화 해보고자 내용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2) 독립운동 정의와 해석

먼저 독립운동(獨立運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대한 부분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자료를 통하여 기술해보았다. 먼저

3 전 인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한바 있는 표계 최병헌 선생과 뜻있는 인제군민들이 모인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의 주관,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의 지원으로 진행하였다. 본고(本稿) 집필의 바탕이자 근거가 되는 책자를 편찬한 장본인이며, 전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소장으로 많은 저서를 발간하였다.

우리가 요즘 흔히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인터넷포털에 있는 독립운동의 정의와 저명한 학술지 그리고 국사책에 기록된 부분을 포함하였다.

독립운동(獨立運動, 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은 어떤 국가 또는 세력의
직 ·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지역에서 자치권 등의 권한을 얻거나,
스스로의 국가 또는 세력을 세우기 위해 벌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독립은 기존 국가에 속한 일부 지역이나
타국의 지배 하에 있던 영역이, 그 지배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국가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영역, 국민 및
주권이 필요하다. 주권이란 그 영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른바 통치 능력이다.
다만,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이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 맡겨져 있어 각 국가는
그 지역을 새로운 국가로서 인정하는지 여부,
즉 국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비록 어떤 지역이 독립을 주장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4]
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독립운동의 정의(定義)를 내리며 발표한 연구 논문자료에 실려 있는 독립운동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였고 한국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대륙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달 해왔다는 우월 의식과, 고려 말 왜구들의 노략질과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과 같은 한반도 침략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적대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4 인터넷포털, 네이버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병합 과정에서 우리들은 동학농민군, 의병 등으로
결집하여 치열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병합 이후에는 독립만세운동, 무장투쟁, 외교운동,
의열투쟁,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넓게는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운동'이면서,
좁게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독립운동은
동시에 새로운 민주 국가를 수립하려는 '건국 운동"이기도
했다. 즉 이미 멸망해버린 대한제국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아닌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이었던 것이다.[5]

이상과 같이 독립운동의 범위를 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병합 이전과 이후의 모든 무장투쟁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일부는 동학농민군까지 독립운동의 범주(範疇)로 끌어들여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학계 전공자들로부터 분명하게 판단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으로 현행 국사교과서[6]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사책에 담겨 있는 독립운동 정의 관련 부분이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시기적 경계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1896년에 서재필 등이 자유민주주의적 개혁 사상을
민중에게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며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는
부분은 일부 수록이 되어 있었다.

5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해방과 건국을 향한 투쟁』, 역사비평사, 2014
6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2

독립협회는 근대 개혁 사상을 지닌 진보적 지식인들이
지도부를 이뤘고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에
불만을 품은 도시 시민층이 주요 구성원으로서,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 신문과 잡지의 발간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 · 민권 사상을
고취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둘째는, '인제의 독립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졸고(卒稿) '인제군의 3 · 1 독립운동사'에서도 거론하였고 최병헌 선생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제를 배경으로 활동한 의병들의 활약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보편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의암(義庵) 유인석 의병장이나 이강년 의병장 등은 인제군 지역뿐만 아니라 홍천, 횡성, 영월, 강릉, 양양 심지어는 충청도 지방에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저마다 이들에 대한 활동 기록을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한 의병운동 내지는 독립운동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셋째는, 출생지나 본적지 그리고 활동 근거지가 인제지역이었다는 기록만으로 인제의 항일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으로 보아도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다. 타 지역출신자를 포함하여 인제군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영역에 따른 독립운동으로 구분하는데 문제는 없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고자 하는 것이다.

졸저(拙著) '인제군의 3 · 1 독립운동사'연구조사의 근간이 되었던 강원도사와 인제군지의 독립운동 관련 부분에서, 집필진들은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최병헌 선생도 자신의 저서에서 인제군지의 일부분을 옮겨온 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독립운동과 의병 활동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에서 언급한 인제군지(麟蹄郡誌)에 수록된 표를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병헌 선생은 인제군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수록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해

석하면 독립운동과 의병 활동, 만세운동과 항일운동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관외
계	14(2)	4	3	3	1	4	–	2(2)
독립운동	1	–	1	1	–	–	–	
의병활동	6	1	2	2	–	2	–	노병원
만세운동	7	3	–	–	1	2	–	원익상
항일운동		–	–	–	–	–	–	

물론 이 표에 기록된 각 읍·면별 현황은 2020년 현재 인제군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른 것으로, 독립운동이나 의병 활동이 펼쳐졌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행정구역 단위는 지금과 다른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일례로 표에서 상남면의 사례는 상남면이 면으로 승격한 시기가 1983년도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상남면 지역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춘주군(春州郡)의 속현(屬縣)[7]으로서 인제군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 후 1906년에 인제군 기린면으로 최초 편입되어 인제군의 행정구역 단위가 되었다가, 1945년 9월 18일 38선이 그어지며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연고지별 현황[8]에서도 본적(本籍)과 주소(住所)를 인제군으로 하는 사람들 8명 중에서 최초 본적(本籍)은 인제군으로 되어 있으나 활동 당시 거주지를 관외(管外)로 하였거나 이주(移住)를 한 사람이 2명이고, 본적(本籍)은 다른 지역이나 인제군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활동을 한 사람을 2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 고려와 조선 초기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지방행정 구역으로 속부(屬府), 속군(屬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통상 속현으로 총칭되었다.

8 최병헌,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2019, 10p

[표 2] 연고지별 현황

구분	계	독립운동	의병활동	만세운동	항일운동
계	12	1	5	6	–
인제군	8	–	2	6	–
본적(인제)	2	–	2	–	–
주소(인제)	2	1	1	–	–

이와 같은 자료와 현황에 따르면 독립운동과 의병 활동에 어떠한 기준을 부여하여 분명한 구분을 하였던 것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학계의 경향을 따랐던 것이었거나 각 지역 별로 역사기록과 향토사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자기(自己) 지역 중심적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제에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시기적 구분과 지역적 구분, 그리고 역사 전문가적 시각으로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보다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체계화되어야 하며 정돈되어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본 고를 정리하며 제출하게 되었다.

2 새로 발간된 자료

1) 인제의 독립운동가 조사사업

최병헌 선생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割愛)한 조사사업을 통하여, 미진(未盡)하고 빈약(貧弱)한 각종 기록으로 인하여 그 공적(功績)이 누락(漏落)되고 포상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졸저(拙著) '인제군의 3·1 독립운동사'를 출간하며 빠트린 부분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에 실린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 고 부연하였다. '또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의 내용 중 널리 알 리고 선양(宣揚)할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하여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작성하였다.

먼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은 졸저(拙著) '인제군의 3·1 독립운동사'의 연구조사 근간이 되었던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9]과 ', 일제강점기하에 춘천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강원도(江原道) 상황경개(狀況梗槪)[10]'를 바탕으로 최병헌 선생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구(硏究)조사 출간한 책이다.

최병헌 선생은 인제의 독립운동 관련 연구조사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遂行)하며,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을 특정 시기로 나누어 구분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로 수록하였다. 특히 각각의 인물들은 인제에서 활동한 기록과 근거만으로 인제의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 관련 인물로 기록(記錄)하여 출간하였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인제에서 항일의병 활동을 하였던 인물이 47명이고 인제 출신 독립운동가는 6명, 인제군 출신으로 의병 활동을 하였던 인물로는 79명이 조사되어, 본인의 졸저(拙著) '인제군의 3·1 독립운동사'에 수록된 항일의병 활동 인물과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들의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던 인물로는 11명이 조사되었고 기타 항일운동을 하였던 인물로 분류한 2명이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항일의병 활

9 폭도에 관한 편책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정미의병들을 이른바 '폭도토벌'을 구실로 탄압했던 의병 관련 자료이다. 총 89권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는 1966년 총무처에서 정부기록문서인'警務關係書類'를 축소 촬영할 당시, MF로 촬영되어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본 이미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의병편)으로 번역 출간한 바 있어 한글판과 연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注

10 1913년 12월에 발간된『강원도 상황경개』는 일제 강점 초기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각 지역의 지역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당시 춘천헌병대장으로 강원도 경무부장을 지내고 있던 나스 타사부로(那須太三郎) 육군헌병 소좌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을 편찬한 원주문화원은 강원도 및 원주 관련 근현대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여러 차례 일본 주요 지역을 답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4년부터 1년 8개월 동안 전문번역과 역주작업을 통하여 출간한 소중한 자료이다.–편집자注

동을 하였던 인물을 비롯하여 독립운동, 의병 활동, 만세운동을 하였던 인물들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하여 수록된 내용을 확인하던 중 청송인(靑松人), 나주인(羅州人) 등의 지명이 눈에 띄었다.

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수 명의 평창인(平昌人), 경주인(慶州人), 이천인(利川人), 강릉인(江陵人)도 수 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 명의 연일인(延日인)과 함께 충북 단양군 영춘(永春) 남천(南川)에서 출생한 인물도 인제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새로 발간된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필자가 졸저(拙著) '인제군의 3·1 독립운동사'를 출간하기 위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며, 인제 출신이 아닌 인물들을 가능한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排除) 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일부 방향이 다른 시각(視覺)과 기준으로 항일의병 활동을 하였던 인물들과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들을 평가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2) 지역 관련 의병 활동

필자가 최병헌 선생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과 확연하게 거의 대립하듯 분명하고 단호한 이견(異見)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季) 의병장의 항일의병 활동을 포함한 인제군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그 이유는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 활동 범위(範圍)가 워낙 넓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강년 의병장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07년 7월 7일 제천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것을 비롯하여 9월 16일에는 충북 제천의 싸릿재(柮峙)에서, 9월 27일에는 충북과 경북의 경계인 죽령, 10월 5일에는 충북 단양의 고리평(故里平), 10월 23일에는 경북 풍기의 백자동(柏子洞) 등지에서 큰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이강년 의병장은 1907년 12월에 전국의 의병들이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각도 의병장을 따라 경기도 양주(楊州)로 모두 집결하여 13도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자, 호서창의대장(湖西倡義大將)으로 참석(參席)을 하

였으나 연합의병부대의 서울진격작전이 미수(未遂)에 그치고 말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에 다음 해인 1908년 봄부터는 휘하장병들을 독려하여 2월 17일의 용소동전투(龍沼洞戰鬪)를 비롯하여 2월 26일의 갈기동전투(葛其洞戰鬪), 3월 12일의 백담사전투(百潭寺戰鬪), 4월의 안동서벽전투(安東西壁戰鬪)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 활동 지역은 강원도 · 충청도 · 경상북도 일대에 걸쳐있었다.

이렇듯이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赫赫)한 공로를 세웠고 큰 전투에서 대승(大勝)을 거두어 공(功)을 세운 이강년 의병장의 전공(戰功)을 추앙(推仰)하는 각각 지역마다 선양(宣揚)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 확실하고, 특히 이강년 의병장의 경우에는 이미 그의 고향인 경북 문경시 가은에는 운강이강년기념관이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와 같을 진데 지난해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에서 발간(發刊)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강년 의병장의 공적과 전투 관련 기록(記錄)을 다루었던 것에 대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기(猜忌)와 시비(是非)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19년 3 · 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 조사사업과 책자발간 사업은, 각 지역 출신 인물들로 국한(局限)하여 이루어졌어야 하며 인제군도 인제의 의병 활동 관련 인물로 이강년 의병장을 다룰 것이 아니라 그의 '백담사전투'로 범위를 한정하였어야 했었다는 의견이다.

최초로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과 관련한 인제지역 인물들의 연구조사의 단초(端初)가 되었던 인물인 김종환(金鍾煥) 또는 김종철(金鍾鐵)[11] 의사(義士)의 일대기나, 관련 기록을 연구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이는 『폭도에 관한 편책』을 통하여 그의 존재가 알려진 시점부터 생각해왔던 의견이다.

11 일부 다른 기록에는 김종철(金鍾喆)로 달리 기록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4월 19일이 그의 순국일(殉國日)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며 민간단체와 그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게 되어, 인제의 독립운동 사료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모임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혹여라도 단순하게 타 지역 출신의 전공(戰功)으로 책자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새로 밝혀진 인물들

1) 인제의 독립운동가

최병헌 선생은 인제 출신 독립운동가로 새로이 다섯 명을 발굴했는데 남천우(南천祐[12]), 서동철(徐東轍), 이성근(李盛根), 이창림(李昌林), 장조민(張朝民) 등이다. 그중 남천우는 본적은 홍천군 화촌면 군 업리 7~8번지이고 주소는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170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남천우는 1935년 1월 십자가당(十字架黨) 사건에 연루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을 마치고 1936년 2월에 출소하였다. 다음으로 서동철은 본적이 홍천군 동면 노천리 1182번지이고 주소가 인제군 기린면 현리로 기록되어 있다.

서동철은 춘천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상록회(常綠會) 을조대원(乙組隊員)으로 활동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동년 12월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으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 이성근은 본적과 주소가 인제군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성근은 중국 안동현대안관구현(安東縣對安寬句縣)에 근거를 둔 조선OO단에 가입하여 자주 북청(北靑)에 잠입하여 군자금을 그의 일당이 신의주경찰서에 체포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창림은 본적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 907번지이며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망월사(望月寺)로 남아 있다.

12 南천祐의 '천'에 해당하는 한자(漢字)는 미상(未詳)이다.

이창림은 1891년 3월 30일 인제군 북면 용대2리 907번지에서 태어났으며 13세가 되던 1903년에,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백담사에 들어가 만해 한용운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한 만해 한용운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자 옥바라지에 힘썼다고 전한다.

장조민은 본적이 평안북도 선천(宣川)이고 주소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 유목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인제군에서 활동한 기록은 없으며 1922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독립투쟁을 시작한 이래 1945년 3월에 한국광복군 제3지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67년 3월 1일 자택에서 별세하였고 유족으로 장남 익진(翼軫,1953.2.5.~)이 인제군 남면 신남1리 유목동에 살고 있다.

2) 인제의 의병활동가

1. 권명선(權明善) 54세 본적:인제군 북면 하리(荷里) 주소:인제군 북면 하리(荷里)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다가 창암점 남방 약 20리 지점에 있는 오세암에 머물던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동료 의병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창암점 동북방 50리 지점에서 인제수비대와 또 접전이 있었는데 의병 4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수차에 걸친 일군과의 교전을 전개하다가 양양·인제수비대의 연합작전에서 크게 패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과 귀순하면 면죄 처분해주겠다는 강력한 회유에 못 이겨 귀순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였다.

2. 권병달(權炳達) 28세 본적: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활동 내역은 上同.

3. 권임명(權任明) 36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활동 내역은 上同.

4. 김경칠(金敬七) 17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가리산 주소:인제군 군내면 가리산
활동 내역은 총기를 소지한 포수로서 일찍이 의병대장 이강년의 휘하에서 활동함. 이하 上同.

5. 김계창(金桂昌) 28세 본적:인제군 북면 송학동(松鶴洞) 주소:인제군 북면 송학동(松鶴洞) 활동 내역은 이하 上同.

6. 김군섭(金君燮) 37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덕적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덕적리
활동 내역은 총기를 소지한 포수로서 이하 上同.

7. 김기옥(金奇玉) 1880년 출생 본적:인제군 북면 하동리 주소:인제군 북면 하동리
활동 내역은 의병으로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9일까지 노면성(盧冕星)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농업이다.

8. 김덕오(金德五) 35세 본적:인제군 남면 두무동 주소:인제군 남면 두무동
활동 내역은 정원팔 지휘하에 남면 유목정과 상수내리, 관대리, 마두리 일원에서 일군과 교전이 빈번하였는데 어느 전투에서 체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참지 못하고 귀순하면 면죄 처분하겠다는 회유에 못 이겨 리장 입회하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풀려남.

9. 김문여(金文汝) 1872년 출생 본적:인제군 내면 가아리 주소:인제군 내면 가아리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6일까지 노면성(盧冕星)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목수(木手) 였다.

10. 김병섭(金炳燮) 1854년 출생 본적:인제군 북면 상동리 주소:인제군 북면 상동리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5일까지 장현수(張鉉洙)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농업이다.

11. 김선인(金先仁) 1839년 출생 본적:인제군 동면 하동리 주소:인제군 북면 하동리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9일까지 노면성(盧冕星)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포수(砲手)였다.

12. 김성락(金聖洛) 40세 본적:인제군 인제면 서리 주소:인제군 인제면 서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의 휘하에서 활동함. 이하 上同.

13. 김성운(金成云) 1861년 출생 본적: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25일까지 노면성(盧冕星) 의진에서 활동함. 직업은 농업이다.

14. 김암오(金岩五) 출생년도 미상 본적:인제군 북면 원통리 주소:인제군 북면 원통리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5일까지 장현수(張鉉洙)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농업이다.

15. 김억천(金億千) 23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동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동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의 휘하에서 활동함. 이하 上同.

16. 김원거(金元巨) 1853년 출생 본적:인제군 군내면 가리산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가리산리이다. 활동 내역은 1907년 9월 의병장 주광식(朱光植) 휘하에서 인제 · 홍천 · 양양 · 고성 · 회양 등지를 오가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으며, 1908년 2월 말에는 인제군 북면 설악산 오세암을 거점으로 하여 리동민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다 인제수비대에 패한 이후, 이치화(李致化) 등과 함께 인제·홍천·양양 등지에서 활동하던 중에 일시 자택에 들렀다가 순사 전상청친(田上淸親)에게 탐지되어 본월 6일에 체포되었다.

17. 김원배(金元培) 1895년 출생 본적:인제군 내면 광원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활동 내역은 1895년 10월 25일에 평창군 연평 면온(綿溫)에서 출생한 김해인(金海人)으로 본명이 원배(元培)이고 일본식 이름은 해김원배(海金元培)이다. 1907년 남태영 휘하의 4초병으로 활동했다. 1942년 11월 6일에는 철원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경성형무소에서 형을 마친 후 1944년 5월 6일에 출소하였다.

18. 김원실(金元實) 출생 년도 미상이다. 본적:인제군 기린면 상남면 송봉(松峰) 18통 10호이고 주소: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이다. 활동 내역은 김해인(金海人)이며 전형적인 농업인으로 어떤 연유로 의병에 가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종철(金鍾鐵) 등과 박화암 의진에서 활동하다가 양양수비대의 공격으로 대다수가 체포되거나 뿔뿔이 흩어지자 1908년 8월까지 한상열(韓相說)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시 의병 활동을 접고 숨어 지냈다.

1910년에 흩어졌던 동료들은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을 목격하고는 울분을 참지 못해 암암리에 연락을 취하여 하나둘 모여들자 의기투합하여, 김종철(金鍾鐵)을 의병장으로 추대하면서 다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4년 11월에는 김종근(金鍾根)의 소집에 응하여 그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김종근을 비롯한 용해준(龍海俊), 정태용(鄭泰用), 이낙여(李洛汝) 등과 동월 22일 밤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에서 군자금 30여원을 모금하고, 같은 해 5월 8일에는 김종철, 김종근, 장명수(張命壽), 정대성(鄭大成) 등과 함께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에서 군자금 57원을 모금했다. 동년 6월 20일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5년 6월 6일 새벽에는 김종철, 김종근, 장명수, 정대성 등과 강릉군 연곡면(連谷面) 장천리(長川里)에서, 8월 10일에는 강릉 군 연곡면 송천리(松川里)에서 군자금 64원을 모금했다.

이외에도 김종철, 김종근, 장명수, 용해준, 최순실(崔順實), 정대성 등과 인제 · 강릉 · 홍천 등지에서 1915년 8월까지 친일 면장의 가옥을 방화 소각하고 밀정자(密偵者)와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하는 동시에, 군자금을 확보하는 등 활동하다가, 강도 · 방화 ·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장명수, 정대성과 더불어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당시 나이는 43세였다고 전한다.

19. 김윤기(金允基) 1877년 출생 본적: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25일까지 노면성(盧冕星) 의진에서 활동함. 직업은 농업이다.

20. 김윤배(金允倍) 19세로 본적:인제군 서화면 장승동 주소:인제군 서화면 장승동이다. 활동 내역은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나 승려(僧侶)의 몸으로 최천년(崔千年) 의진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1908년 10월 24일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심한 고문과 회유에 못 이겨 의병 활동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엄한 경고만 받고 면죄처분(免罪處分)되었다. 당시 나이가 19세였다.

21. 김응열(金應烈) 24세 본적:인제군 남면 두무동 주소:인제군 남면 두무동이다.
활동 내역은 상세한 내역은 기록이 전무 함으로 알 수 없으나 1908년 3월에 이준명, 정원팔 지휘하에, 남면 유목정과 상수내리, 관대리, 마두리 일원에서 일군과 교전이 빈번하였는데 어느 전투에서 체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참지 못하고 귀순하면 면죄 처분하겠다는 회유에 못 이겨, 리장 입회하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풀려났다.

22. 김인화(金仁化) 48세 본적:인제군 남면 음양리 주소:인제군 남면 음양리. 활동 내역은 上同.

23. 김자삼(金自三) 1863년 출생 본적:인제군 군내면 가아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가아리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9일까지 장현수(張鉉洙) 의진에서 활동하였다. 직업은 포수이다.

24. 김종근(金宗根) 45세이다. 본적:인제군 서화면 천도촌 주소:인제군 서화면 천도촌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의 휘하에서 활동함. 이하 上同.

25. 김진옥(金振玉) 23세 본적:인제군 동면 원대리 주소:인제군 동면 원대리이다.
활동 내역은 강릉인(江陵人)으로 1876년 영월에서 부친 대경(大卿)과 원주 원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언제 어떤 연유로 인제군 동면 원대리로 오게 되고, 의병에 가입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말년에는 평창군으로 이주하였는데 시기는 알 수 없다.

26. 김진현(金晋鉉(炫))은 1873년 출생으로 본적: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이다. 활동 내역은 경주인(慶州人)으로 1873년에 부친 정호(正鎬(자 河正:1843))와 모친 강릉 함씨(1848)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연봉(淵鳳)이고 진현(晋鉉)은 자다. 1907년 1월에 노면성 휘하에 들어가 대원 800여 명(총기휴대자 100명)들과 함께 인제 · 양양 · 강릉 일대를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강릉 교전에서 패배한 후 은신하였다.

    1908년 2월부터 횡성군 청일면 사재곡 김성칠(金聖七) 집에서 25일간 머무르다 잠시 귀가하였다가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1910년 4월 2일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언도되었으나, 동년 4월 26일 경성공소원에서 재개된 2심에서는 폭도죄(暴徒罪)를 적용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했으나 직계 후손이 없어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다.

27. 김춘선(金春先) 23세 본적:인제군 남면 가로리 주소:인제군 남면 가로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28. 김춘택(金春澤) 29세 본적:인제군 인제면 동리 문연 주소:인제군 인제면 동리 문연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29. 김치오(金致五) 36세 본적:인제군 남면 갑둔리 주소:인제군 남면 갑둔리
    활동 내역은 상세한 내역은 기록이 전무하여 알 수 없으나, 1908년 3월에 이준명 정원팔 지휘하에 남면 유목정과 상수내리, 관대리, 마두리 등에서 활동하였다.

30. 김화경(金化京) 29세 본적:인제군 남면 유목정 주소:인제군 남면 유목정
활동 내역은 상세한 내역은 기록이 전무하여 알 수 없으나, 1908년 3월에 이준명, 정원팔 지휘하에 남면 유목정과 상수내리, 관대리, 마두리 등에서 활동하였다.

31. 민선모(閔善模) 1871년 출생 본적:인제군 남면 정자막리 주소:인제군 남면 정자막리이다. 활동 내역은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8년 모월 14일까지 박화남(朴化南) 의진에서 활동했다. 직업은 농업이다.

32. 박경호(朴景浩) 41세로 본적:인제군 동면 하추동 주소:인제군 동면 하추동이며, 활동 내역은 총을 소지한 산포수(山砲手)로서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3. 박백교(朴伯敎) 60세 본적:인제군 인제면 동리 주소:인제군 인제면 동리이며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4. 박순모(朴順模) 1878년생 본적:인제군 동면 귀둔리 8통 1호 주소:인제군 동면 귀둔리 8통 1호이다. 활동 내역은 1907년 9월 박화남(朴華南)[13]의 부하인 이춘배(李春培)의 권유로 의진에 입대하여 송인홍(宋仁弘)과 더불어 약 50여명의 대원들과 횡성군 복천리(復川里)에서 일본헌병대와 교전을 하는 등, 양양군 · 인제군 · 양구군 · 회양군 · 홍천군을 오가며 군자금 72원을 모금하다가 1910년 2월에 송인홍의 진술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13 前項 朴化南의 誤字로 보임.

35. 박여천(朴汝千) 1879년 출생 본적:인제군 북면 어두운리(魚頭云里) 주소:인제군 북면 어두운리이다. 활동 내역은 알 수 없으나 1908년 8월 16일까지 노면성 의진에서 활동하였고 직업은 농업이다.

36. 박원서(朴元瑞) 1880년 1월 28일 출생 본적:인제군 군내면 주소:인제군 내면 창촌리이고 일본식 이름은 고본원서(高本元瑞)이다. 활동 내역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 남천에서 출생하였다. 1909년 3월 양윤숙(楊允淑) 의진에 가담하여 전라북도 일원에서 활동하다 일본 수비대에 체포되어 호송 중, 가까스로 탈출하여 인제군 내면 창촌리에 은신했다. 소화(昭和) 17년(1942) 11월 6일 철원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고, 경성형무소에서 형을 마치고 이듬해 11월 6일에 출소하였다.

37. 박월칠(朴月七) 20세 본적:인제군 남면 화탄리 주소:인제군 남면 화탄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8. 박태경(朴泰景) 34세 본적:인제군 동면 귀둔리 주소:인제군 동면 귀둔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9. 손성수(孫聖守) 47세 본적: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활동 내역은 의병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40. 송인홍(宋仁弘) 1878년 출생하였고 본적:인제군 동면 귀둔(혼)리 주소:인제군 동면 귀둔(혼)리이다. 활동 내역은 1907년 5월 박화남(朴華南(본명 長浩))의 휘하에 들어가 박순모(朴順模)와 더불어 대원 500명(총기 휴대자 300명)과 함께 도내 일원을 오가며 일본군과 교전하는 중, 평창군에서 일본병 5명과 충돌 시 피해를 입고 전전하다

가 1910년 2월경에 체포되었는데 심한 고문에 못 이겨서 동지이자 동향인(同鄕人) 박순모(朴順模)를 진술하였다. 같은 달 27일 오후 7시 30분경 진술에 의하여 체포된 박순모 취조 과정에서 간수자(看守者)의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

41. 심득보(沈得甫) 37세 본적: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이며 청송인이다. 호적명은 득보(得輔)이고 자는 익경(翼卿)이다. 신미(辛未(1871))년에 출생하였다. 전형적인 농업인으로 어떤 연유로 의병에 가입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폭도에 관한 편책』에 의하면 '1908년 7월 10일 귀순 의사를 밝혀 면제 처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순전히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한 고문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

42. 심주섭(沈周燮) 1869년 출생 본적:인제군 서화면 (이포리 화학동) 주소:인제군 서화면 (이포리 화학동)이며 청송인이다. 활동 내역은 1897년에 상근(相根) 1869~))과 선산(善山) 김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장(部將)으로 지목되는 의병 심주섭을 쫓고 있다는 강원도 경찰부장의 보고가 기록으로 전해 오고, 『폭도에 관한 편책』 '평강군 고십면에서 폭도침입의 건'에도 심주섭을 비장(匪將)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3. 심하군(沈河君) 1879년생 본적:함경남도 단천군 복귀면 기암리 주소:인제군 북면 원통리

44. 안순보(安順甫) 1865년생 본적: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주소: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45. 양경순(楊敬淳) 1873년생 본적:인제군 군내면 가아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가아리

46. 양재문(梁在文) 30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합강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합강리

47. 엄도복(嚴道福) 26세 본적:인제군 인제면 동리 문연 주소:인제군 인제면 동리 문연

48. 오금능(吳金能) 32세 본적:인제면 군내면 상동리 주소:인제면 군내면 상동리

49. 용문원(龍文元) 32세 본적:인제면 남면 음양리 주소:인제면 남면 음양리

50. 유몽룡(柳夢龍) 36세 본적:인제군 북면 한계동 주소:인제군 북면 한계동

51. 이건규(李建奎) 33세 본적:인제군 동면 하추동 주소:인제군 동면 하추동

52. 이규호(李圭鎬) 29세 본적:인제군 북면 서호리 주소:인제군 북면 서호리

53. 이성모(李聖模) 28세 본적:인제군 남면 두무동 주소:인제군 남면 두무동

54. 이춘화(李春化) 31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남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남리

55. 이현노(李鉉魯) ?~1907 본적:인제군 기린면 현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현리

56. 이형재(李衡哉) 1875 출생 본적:인제군 북면 원통리 주소:인제군 북면 원통리

57. 임성현(林聖玄) 1865 출생 본적:인제군 군내면 고사동 피야시 주소: 左同.

58. 정경집(鄭敬集) 1873 출생 본적:인제군 동면 하추동 주소: 左同

59. 정복동(鄭福東) 38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주소: 左同

60. 정원팔(鄭元八) 1874~1974 본적: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주소:인제군 북면 원통리

61. 진공삼(陳孔三) 40세 본적: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62. 진봉락(陳奉洛) 38세 본적:인제군 북면 한계동 주소:인제군 북면 한계동

63. 진준구(陳俊九) 1880~ 본적: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4. 차덕초(車德初) 1877~ 본적:인제군 동면 귀둔리 주소:인제군 동면 귀둔리

65. 최사성(崔士成) 47세 본적:인제군 동면 장수대 주소:인제군 동면 장수대

66. 최성일(崔聖一) 30세 본적: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주소:인제군 군내면 상동리

67. 최순칠(崔順七) 1872~ 본적:인제군 북면 한계리 주소:인제군 북면 한계리

68. 최원경(崔元敬) 1844~ 본적:인제군 기린면 현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현리

69. 최이달(崔而達) 37세 본적:인제군 기린면 서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서리

70. 최취효(崔取孝) 37세 본적: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하남리

71. 최태준(崔泰俊) 51세 본적:인제군 북면 원통리 주소:인제군 북면 원통리

72. 함덕칠(咸德七) 47세 본적:인제군 서화면 화탄리 주소:인제군 서화면 화탄리

73. 함인선(咸仁善) 1881~ 본적:인제군 기린면 동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동리

74. 현경언(玄景彦) 21세 본적:인제군 기린면 동리 주소:인제군 기린면 동리
활동 내역은 의병 대장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3) 독립만세운동 참여자

고봉윤(高鳳允)은 본적과 주소는 인제군 인제면이다. 활동 내역은 1919년 3월경 서병선(徐秉善)과 이웃하고 지내는 교우로서, 서병선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뜻을 은근히 표하자 이에 의기투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월 29일 장날을 기하여 전개하려던 만세시위 운동은 이틀 전에 탄로가 나서 서병선, 심한구, 이성종, 이종근 등 주동자가 체포되자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3월 28일 새벽 인제읍내의 여러 곳에는 '이번 거사에 대해서는 군수와 학교장들이 말하는 것에 따를 바가 아니고 각자 뜻한 바를 향하여 매진할 것이다.'라는 선전문(宣傳文)이 붙어 있었고,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제보통학교에서 만세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기록들을 감안 할 때 3월 27일에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동지들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명석(金明錫)은 본적 주소는 인제군 인제면이고 활동 내역은 上同이다.

김성서(金聖西)는 1851년 출생하였고 본적은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이고 주소는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덕방동(德房洞)이다. 직업이 없이 날품팔이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착실한 천도교도로서 일찍부터 한일병합을 심각하게 개탄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주창하게 되자 크게 이를 찬동하고 배일(排日)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1919년 4월 1일 횡성읍내로 행상을 갔다가 마침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정해경(鄭海璟), 조상열(趙常烈), 김윤신(金允信), 김성수(金聖洙) 등과 함께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1919년 9월 18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2002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건국훈장(建國勳章) 애족장(愛族章)을 수여했다.

김창수(金昌洙)는 출생년도가 미상이며 본적 주소는 인제군 인제면이고 활동 내역은 1919년 3월경 서병선(徐秉善)과 이웃하고 지내는 교우로서, 서병선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뜻을 은근히 표하자 이에 의기투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성종을 비롯한 동료들과 입수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한편, 일본 관원의 심한 감시를 피해 인제면 남북리 포곡동에 거주하는 조경운(趙慶雲)의 소실 댁에서 군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촉구하는 선전문(宣傳文)을 작성하여 각지의 요소에 부착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중 3월 27일 체포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심한구(沈漢龜) 1899년~1953년 본적과 주소는 인제군 인제면 차평리이며 청송인(靑松人)이다. 활동 내역은 1899년에 부친 상흠(尙欽(敬元:1857~1917))과 모친 장수(長水) 황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919년 3월에 서병선, 이성종, 이종근 등과 인제면 남북리 포곡동 조경운의 집에서 3월 29일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인제면 합강리 일원에 독립선언서와 궐기문을 배포하는 한편 시위 참여를 책임지고 활동하다가 3월 27일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춘천형무소에서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묘소는 홍천군 내면 창촌리(倉村里)에 있다.

이성종(李聲鍾)의 본적과 주소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이며 평창인이다. 본명은 원호(元浩)이고 성종(聲鍾)은 자다. 1898년 5월 23일 부친 평창인 종우(鍾宇) 씨와 연안(延安) 차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인제보통학교 4학년 재학생으로 1919년 3월에 서병선, 이종근, 심한구 등 인제면 남북리 포곡동 조경운의 집에서 3월 29일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인제보통학교 동문 16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선언서와 궐기문을 배포하는 한편 시위 참여를 책임지고 활동하다가 3월 27일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춘천형무소에서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지사상을 수여하였다.

이종근(李鍾根) 1898~1958 본적은 인제군 인제면 상동리 주소:인제군 인제면 상동리이나 평창인(平昌人)이다. 활동 내역은 인제보통학교 4년 재학생으로 1919년 3월에 서병선, 이종근, 심한구 등 인제면 남북리 포곡동 조경운의 집에서 3월 29일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인제면 합강리 일원에 독립선언서와 궐기문을 배포하는 한편 시위 참여를 책임지고 활동하다가 3월 27일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춘천형무소에서 6개월의 옥살이를 하였다.

조경운(趙慶雲) 본적 주소는 인제군 인제면 남북리 포곡동이다. 1919년 3월경 서병선(徐秉善)과 이웃하고 지내는 교우로서 서병선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뜻을 은근히 표하자, 이에 의기투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심한 감시가 있었음에도 3월 29일 장날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결의(決議)할 장소로 자택을 제공하고 동참하였다.

4 결론

상기 연구조사를 진행 중 최병헌 선생의 책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에서 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어느 해외 거주 신문 독자가 자신의 조부를 찾는지 문의하여 조사에 집중하였는데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오래기억하겠습니다 인제의 독립운동'책자에 실려 있는 내용대로, 중국 요녕성 관구현(지금의 요녕성 단동시)과 관전현에 대한 현지 연구조사 사업도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는데 반드시 힘을 보탤 생각이다. 그리고 모든 조사사업을 마친 후에는 인제군독립운동사 자료집 I로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울러 강원도사와 인제군지에 기록된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구조사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구 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1910년 이전의 활동은 항일의병 활동으로 1910년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활동은 독립운동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인물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인제에서 태어나 활동하였던 인제의 인물만을 따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인제에 본적(本籍)이나 주소(住所)를 두고 활약을 하였거나 그 활동 내용이 인제와 관련 있는 인물들은 인제군 관련 활동으로 소제목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항일의병 활동 또는 독립운동에 대한 조사사업은 인제문화원이나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가 서로 의견을 모아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로 관련 연구조사의 주체(主體)를 단일화하여야 하며, 또한 연구조사의 결과를 출간(出刊)하는 일체(一體)의 행위도 그 창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사업 추진체나 결성된 단체(團體) 또는 조직(組織)을 통하여 김종철 의사 선양사업 내지는 인제군의 항일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데,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며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제안한다면 인제문화원에서 수행한 연구조사사업과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에서 조사한 부분에서 공히 의견이 일치한 부분인 김종철 의사에 대한 연구조사에 주목하여, 김종철 의사의 일대기를 재조명하거나 연구가 미진한 그의 서대문형무소 순국 이후의 기록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제군 또는 인제문화원, 그리고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에 제안을 한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시행하거나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가 주관을 하던 그 사업 주체는 누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가칭 '김종철의사기념사업회'나 선양사업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해본다.

이는 항일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이라는 광의(廣義)의 의미보다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인제 출신으로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의병운동에서 혁혁(赫赫)한 공로를 세운 김종철 의사를 추모 선양하는 사업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인제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먼저 이들 단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며, 행정이나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수렴하여 매우 적절하고 보편타당한 추진체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몇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난 두 건의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 조사사업이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자료를 찾고 관련 인물들의 후손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난관을 제거하는 방안을 반드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방안으로 인제의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 연구조사사업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연구조사에 참여시켜, 순수 민간인들인 사료조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난관에 막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자세히 검토하여 민간기구로서 연구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민간기구의 연구조사는 그 조사기법이나 방법이, 대학의 그것과 확연한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대안이라면 인제군지를 집필한 외부 조사 인력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연구조사 방법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한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첨언하자면 지금의 행정구역과는 사뭇 다른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기(初期)의 인제군의 행정구역을 참고하여, 그 당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인제군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연구(硏究)의 범위(範圍)와 외연(外延)을 확대하는 방안(方案)도 함께 제안(提案)해 본다.

이에 최병헌 선생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인제의 독립운동'책자를 발간하며 내용에서 다루었던 독립운동가와 항일의병 활동 후손들과 직접 만나 구술(口述)로 기록하고, 공훈 또는 서훈이 수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을 찾지 못하여 전수되지 못하는 다수의 애국지사 후손 찾기 사업

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찾는 작업과 함께 항일의병활동가와 독립운동가들의 일화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활동 내용을 연구조사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880년 6월 15일에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최초로 인제군에서 목판본으로 인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학은 전국적으로 포교가 가능해지고 교세가 확장되었다.

그 결과로 동학은 600만이 넘는 종교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었다. 이후 동학이 종교로서 선포되어서 그 중 천도교가 동학의 후신으로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도, 그 뿌리가 인제군에 있었음을 연구를 통한 결과물에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 보은이나 전북 전주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강원도 홍천군과 비교하여, 동학교단과 천도교에 영향을 미친 인제군의 공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은 표지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북 보은군은 무려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였고, 인제군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홍천군도 서석면 풍암리에서 있었던 관군과 일본군을 포함한 토벌군과의 대대적인 전투에서 800여 명이 넘는 무고한 동학농민군이 희생한 것을 추모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16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 조성하였다.

이제 우리 인제군은 뒤늦은 감이 있겠지만 이제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학농민운동 관련 선양사업 추진을 거울삼아, 인제군에도 반드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조형물이나 동학을 보급하는데 그 뿌리가 되었던 인제군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동학과 관련된 사업이 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통하여 인제군이 우리나라 근대민중운동의 출발점이자 효시가 되었던 동경대전 간행을 가능하게 했었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수차례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인제군이 근대 민중운동의 산실(産室) 역할을 하였던 점을 중요한 기치(旗幟)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인제군에서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공원 내지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상식과 축전을 병행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에 대한 선양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해 한용운은 백담사에서 출가하여 수많은 문학 작품을 발표했고, 특히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서명과 발표에 불교계를 대표하는 2인 중 1명으로 참여한 것은 높이 선양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인제 출신이 아니고 충남 홍성사람이다.

이미 그의 고향인 충남 홍성군에서는 해마다 지역 출신 인물들을 모두 모아서 '역사인물축제'라는 이름으로 그의 선양사업을 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의 위인을 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양사업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다.

만해 한용운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투옥되었던 서대문형무소가 있는 서대문구청과, 그가 말년(末年)을 보낸 심우장이 있는 성북구청 그리고 출생지인 홍성군과 그가 출가(出家)한 백담사가 소재한 인제군까지 모두 네 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를 선양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는 일견 좋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만해 한용운은 말년에 환속하여 불교계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인 다비(茶毘)를 하지 않고 시신(尸身)을 서울의 망우리추모공원으로 모셨는데, 그의 묘지가 있는 곳은 중랑구청의 관할이므로 만해 한용운의 추모 선양사업에 중랑구청까지 참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만해 한용운을 추모 선양하는 사업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중복되고 과잉 투자되는 그런 결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참담한 사태의 배경에 필자의 책임도 일부분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은 이제 행정에 맡겨두고자 한다.

끝으로 사족을 달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새로운 문화원장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작은 기대를 하며 의견을 제시해본다. 인제문화원은 지난 수년간 수십억의 예산을 소요하여 건축을 끝내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많은 공간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어 개관한 지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설 향토사연구소에는 특정의 공간 배려가 매우 아쉬운 형편이다. 늦었지만 명색이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인데 모일 공간 하나 없는 향토사연구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나마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감히 지역 향토사를 연구한다기는 보다는 누구보다 지역향토사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 십여 년간 지역문화원에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듯하다. 결과론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위원들의 면면(面面)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이라고 억지로 꿰어맞춰 놓고 있으니, 문화원 측에서 보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였을 것이다. 지역의 향토사 연구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이면이나 배경에는, 문화원 운영이 타성에 젖었거나 일방통행식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옛 고사성어도 있듯이 새로운 문화원장이 취임하는 마당에 크고 작은 변화를 기대해본다. 지역문화원의 내부적인 일을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제문화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공단신생인쇄조합, 1992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국사』, 교육인적자원부, ㈜두산, 200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강원도, 영동인쇄공사, 2014
원주문화원, 『강원도 상황경개』, 원주문화원, 강원도민일보, 2015
강원도 고성문화원, 『고성의 독립운동사』, 고성문화원, 강원도민일보사, 2017
김동정, 『횡성 3·1운동 주도인물 재조명』, 횡성문화원, 강원도민일보출판국, 2017
인제군지편찬위원회, 『인제군지』, 인제군, 도서출판 산책, 2017
한승윤, 『인제군의 3·1 독립운동사』, 인제문화원, 나라 인쇄출판, 2018
최병헌,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麟蹄의 獨立運動』, 인제독립운동가찾기본부, 2019

편집실

臨機應變

임 기 응 변

뜻풀이 /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따라 그에 알맞게 그 자리에서 처리함을 일컫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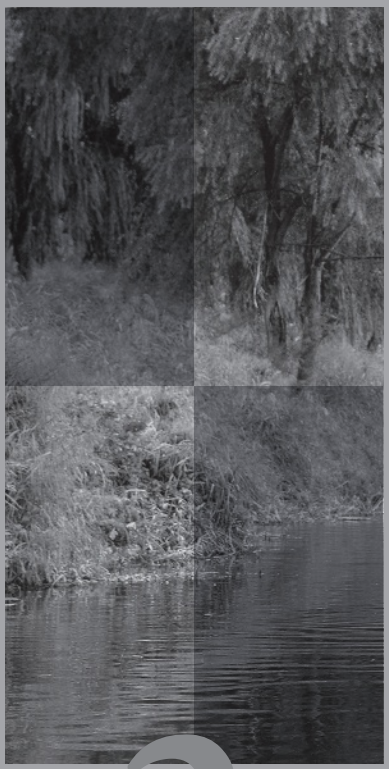
해 설 /

손초는 진나라의 태원군 중도 출신으로 문학이 매우 뛰어나서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성격도 시원하여 남들과 다른 데가 있었다. 그러나 남을 우습게 여기고 건방지게 굴었으므로 고향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그는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진동 장군의 참모가 되었고 나중에 풍익 태수까지 지냈다.

손초가 아직 젊었을 때 그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숨어서 살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리하여 벗인 왕제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다. 나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울리며 돌을 베게삼아 잠자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며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네!

그런데 그의 말이 헛 나와 돌로 양치질하며 흐르는 물을 베게로 삼겠다고 하였다. 왕제는 그의 말을 듣고 돌로 양치질 할 수 없고 흐르는 물을 베게로 삼을 수도 없지 않은가? 하고 묻자 손초는 억지를 부리며 대답했다. 돌로 양치질 하는 것은 내 치아를 갈고 닦기 위함이고, 흐르는 물을 베게로 삼는다는 것은 더러워진 귀를 씻기 위함일세!

이러한 손초를 가리켜 사람들은 조정에서는 꾀한 계획을 잘 세웠고 임기응변에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제 3 장

내설악 향토문예

시

· 김규중 _ 바지랑대
· 김미숙 _ 변 사또의 말 1
· 문부자 _ 모래기 물결
모순의 시대 –코로나 19–
· 박돈녀 _ 끈 / 동문서답
들을 귀가 있나보다 / 무국
인제 뗏목아리랑
· 원영애 _ 달뜬 밤 / 중독 / 제주바다
9월이 오면 / 죄 값
· 정순덕 _ 매미 / 리모델링
밥상 / 세신을 받고
· 최은희 _ 국화(菊花)여행 / 김장 / 오일장
· 한용운 _ 內麟川 / 운두령 –가을 산 정취–
산마을 / 꽃바람 / 눈
· 권순덕 _ 구부러진 길 / 그때 우리는
까닭 / 너를 보내고 / 상강
· 김경애 _ 늦가을 / 코로나 19 / 나
· 김미숙 _ 고백 / 달맞이 / 배꼽시계
소나기 / 자화상
· 김봉희 _ 오월의 시 /들국화
황혼의 친구1 / 황혼의 친구2
· 허계홍 _ 내린천 연가 / 삶의 통 / 선홍빛 손톱
· 장혜경, 이기덕 _ 인제사랑

산문

· 문부자 _ 가을에 즈음하여
· 박돈녀 _ 자연과의 약속
· 최광윤 _ 그땐 어디로 소풍을 갔나?
· 최은희 _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불광불급(不狂不及)

바지랑대

김규중(인제군문화예술인협회장)

허무, 하나
아득한 저 끝
위만 보고 오르던 개미
바지랑대 끝에는
반기는 이도 꿈도 없음을 확인한다

허무, 둘
파란 하늘 찌르는 신기루
친구도 동료도 뿌리치며
앉은 고추잠자리
날개도 접기 전에 때까치가 채간다

허무, 셋
십 년 넘게 마당을 지키며
거드름 피우던 터줏대감
주인아저씨 경운기 뒷바퀴에
부러지고 부서진다

허무, 끝
나뒹굴던 만신창이 몸뚱이
남편 위해 끓이는
닭백숙 화덕으로 들어간다

변 사또의 말1

김미숙

초록 이파리들 사이로 하이얀 꽃잎 하나
그러모은 두 손에 떨어지던 날
수없이 흩어지는 꽃 이파리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구나
내 이 꽃잎을 어찌할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두 손 꼭 쥐면 물러질까
예쁜 상자에 넣으면 시들해 지려나
책갈피 속에 꼭꼭 갇어 둘 까나

두 손 그러모은 체
날아가는 네 향과 함께
나도 같이 시들해 진다

모래기 물결

문부자

수색 근처에서 어린날 친구를 만났다
그날
그는 유난히 속초 모래기를
모래내라며 주름 깊이 웃었다
그는 모래내에서도 모래기에서도
아웃사이더로 살았다고 했다

그의 편모는 가끔 바람에 흔들렸고
많은날 뿌리가 없는 고향을 떠올렸다고
그의 웃음 속에선 젖은 울음소리가 났다
양귀비 꽃잎 같던 젊은날부터
택시 운전을 했다고 했고
헤어진 인연의 짝은 먼저 갔다고 했다

깊은 곳에서 꺼낸 주름같은 웃음을
길거리에 쟁쟁 흘려놓고
모래내시장 육교위로 총총이 사라진다

그가 남긴 모래기 파도소리 같은 축축한 목소리
그 뒤를 오랫동안 따라 간다.

모순의 시대

- 코로나19 -

문부자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독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세상을 잠식 한다
간절한 마음 검을 뽑듯 나를 가두고
티브이를 끄면 시간이 만든
고요가 요동을 친다

귀에선 매미가 울고
가슴에선 굴곡진 요철이 뛰고
침묵은 투명한 소리를 매일 건져 올린다
말이 고프고
눈이 고프다

나는 냄새가 고여 있는
소파에 벌레처럼 누워
언어의 연금술로 차가운 단어들이
반복해 나오는 미로 속을
헤매이다 나오곤 한다

너무나 긴 벼랑 같은 날들이
쓰디 쓴 한약보다 아픈 저녁이다

끈

金園 박돈녀

햇살 찾아든 툇마루 휠체어에 앉아
하얗게 삭아가는 주름뿐인 얼굴
헤어진 형제들 그리워
늘 북쪽만 바라보는 어머니

떨쳐야할 그리움 끝내 붙잡고
이루는 눈물바다
지저귀던 새들도 숨죽인다

분주하던 일상을 접고
형제들 만나면 주시려
싸 두었던 금반지 허망하게
빛을 잃어간다

재촉하는 세월에 떠밀려
한발씩 내딛는 무거운 발걸음

먼 길 떠나신 뒤 딸 슬피 울까
정 떼고 가시려
숯덩이 하나씩 꺼내놓는다.

그곳엔 누가 있기에
허구헌날

꽃잎 벙 그는 이 4월
산수유 꽃그늘에

동문서답

金園 박돈녀

나의 잘못도
그이의 잘못도 아니다
지은 죄가 만아서는 더더욱 아닌
인간이라는 서글픈 이름
논둑길처럼 구부러진 인생길
거쳐가는 황량한 환승역
널브러진 낙엽을 밟으며
자꾸 뒤돌아 보게하는
황혼의 골목길
“여보 고구마를 캐야 겠어요”
“난 아직 밥먹을 때가 아니야”

들을 귀가 있나보다

金園 박돈녀

무성한 고구마 싹을 들추며 한마디 했다.
작년에도 싹만 승하고 고구마는 안 달렸는데
올해도 그러면 다시는 안 심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물주고 갖은 고생하며
길렀는데 하나도 안 달렸으니 올해도 뻔 할 것 같다
호미로 유물을 캐듯 조심조심 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씨름선수 주먹 같은 붉은 고구마가
멋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놈들도 양심은 있나보다 옆에 숨어있던
놈들도 나 여기 있다고 나타났다
말은 해야 맛이라더니
그놈들도 들을 귀는 있는가보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 났다.

무국

金園 박돈녀

시장 통 들어서면 왕 순대집 앞
산더미처럼 쌓인 무
무장사 구멍 난 밀짚모자 겉으로
삐죽이 삐져나온 반백의 세월
막내 동생 들어설 때
시원하게 쇠고기 무국
한 사발 먹었으면 좋겠다던
어머니 원 못 들어드려
눈 작은 동생을 낳았다고
막내 동생 볼 때마다
웃음이 나다가도
팔순의 어머니 볼라치면
가슴이 짠하다.

인제 뗏목아리랑

金園 박돈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아버지
합강에 앉아 낚시하신다
풀어놓은 보따리 속엔
빛바랜 뗏꾼 시절의 한때가 노을에 젖는다

폭풍처럼 치솟는 물길 헤치고
포아리신연강을 지날 때면
저승길이 보인다 했다

목숨 걸고 떠나는 길
주막거리 주모의 아양에 시원한 막걸리한잔
세상근심이 다 풀어진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 더니 소양강이 변할 줄 뉘 알았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고개로 넘어가네"

혼자남아 부르는 뗏목아리랑
내린천을 휘돌아 허공에 부서진다

드리워진 낚싯대 위로 외로운 세월이 흐르고
먼저 간 떼꾼들 목도소리
합강에 윤슬로 떠있다 .

달뜬 밤

杜宇 원영애

달은 영창에 멀리 있는 듯 뜨고
풀밭 기웃거리며 울어대는 뀌또리야
쓸쓸함은 삼경의 뜨락에서 서성 이는데

가고 아니 오는 것이 정 이거늘
기다림은 문고리에 매달려
휑한 가지 달빛 어루만지는이 누구인가.

중독

杜宇 원영애

눈가가 까매 지도록
얼굴이 파래 지도록
끊지 못하는

속 마음은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 할수록
발길이 스스로 움직여

나도 모르게
한 모금 연기로 쏠려가는
가면 아니되는 길.

제주바다

杜宇 원영애

깊은 잠 뿌리째 흔드는
저 마귀 같은 할 방

꽃잎에 웃던
불꽃같이 솟아난
지나가 버린 정
그립다 차마 못하고

울멍 피멍 든 가슴도
꽃이라고
곱다 곱다 어루만지며

바람이 불어와 그렇다
파도가 밀려서 그렇다
핑계 댄다.

9월이 오면

杜宇 원영애

9월이 오면
용광로 더위 속에서 이글 거리던
속앓이 하던 번민이
한가롭게 꽃으로 피어날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상의 끝을 보았던 사이
언제 우리가 그랬냐며
보라 입술로 미소 짓겠지

무심했던 옛날이
불쑥 곁을 치고
속을 뒤집고 간다 해도

죽었다 다시 태어난 힘으로
다시 꿈꾸는 내일을 찾아
죽을힘 다해 호흡을 가다듬는다

길가의 꽃들이 피어나면
9월의 노래를 부르는
쑥부쟁이도 주저 없이
웃음 띠고 다가 올 것 같다.

죄 값

杜宇 원영애

전생 같은 기억들이
콩나물 머리 쳐들듯
솟아오른다

내가 버린 추억이
유턴되어 돌아와
머리채를 휘감고

비명으로 가버린
봄밤의 넋되어
어지럽증 앓는다.

매미

華曇 정순덕

어둠을 벗어나리라
파아란 저 하늘 날아 보리라
솟대같은 나무 아래 사랑의 둥지를 틀리라
나를 벗고, 나로 태어나
벅찬 사랑 노래 부르리라

리모델링

華曇 정순덕

봄에는
20년 갈비집을 리모델링 하고

여름에는
아들 방과 살림 집을 리모델링 하고

가을 들어
늘어진 쌍거플을 리모델링 했다

겨울엔
60년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

밥상

華曇 정순덕

새벽 잠 설쳐가며 명절 날 아침 밥상을 차린다
'명절 날 밥 한 번 같이 먹자' 남편 말 한 마디

잘 차린다고 차렸지만 뭔가 부족하다
새벽같이 눈 비비고 따라나선 조카 손주들

친정 갈 준비를 마친 조카며느리들은 바쁘다바빠,
종종 거리지만 표정은 밝다

동서도 친정 다녀 올 양 바리바리 꾸러미
눈치껏 편안한 척
음식들을 나눠주고 보내고 나면

물빠진 섬처럼 혼자 빈 식탁에 앉아있다
헛헛한 마음, 공치사 소리 귓전에 날리고

먹다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설거지 끝난 그릇들 반듯하게 정리하는 동안
마음 설거지도 보송보송 끝난다

세신을 받고

華曇 정순덕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호사 했다

느실느실 해진 몸
말간 비애의 때도 벗겨 내고
천 가지 희망을 안고 피어 나는 장미처럼
활짝
피어 나다

국화(菊花) 여행

최은희

여림으로 다가온 날
눈맞춤으로 시작되어
쓰다듬고 물주며
가꾸기를 합니다.

긴 장마도 견디고
뜨거움도 이겨내어
단단한 모습으로
제 모양을 갖추고 자라난다.

목부작
석부작
일간국, 다간국 …
다륜작을 만들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꽃망울을 보는 순간
가슴은 벅차오르고
그윽한 국화 향기
가을 들녘에 날리며

이제야 국화에 반하여
찬 이슬 맞으며 피는
국화를 보면서
걸어가는 꽃길은
향기를 토해내고

국화와의 인연은
내 안에 빛과 같아
마음 머무는 곳의 행복도
행운으로 다가와서
즐기는 인생길에서
코로나19로 닫힌 세상
시름 달래주는
국화이고 싶어라.

국화여행— ·
발길 머무는 곳, 인제

인제에 설국(雪菊)이
피었다.

* 여림 : 가냘프고 애처로움
* 즐기 : 즐겁게 누리거나 맛보다

김장

최은희

한 바가지 소금을 물에 녹여내
푸르게 잘 자란 포기배추
짠맛에 샤워를 하고
서슬퍼런 젊은 날이 숨죽여 쌓였다.

발효에 도움주는
마늘, 생강, 젓갈류
칼날에 사정없이 다듬어진 무와 파, 갓
서로 어울어져 빨갛게 옷을 입었다.

우리내 이웃들의 정도 듬뿍 넣어
덤으로 편육보쌈에 볼이 터진다.
집집마다 손맛 달라 겉절이 맛도 으뜸
잘 익혀 밥상에 올리니 그 맛 또한 일품이네

오래 묵을수록 사람도 좋다지
곰삭아도 버릴 것 없는 그 맛
김치가 최고지.

오일장

「제18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상작」

최은희

이른 새벽
비릿한 내음이
령(嶺)을 넘어
골목에 머물렀다

오랜만에 만난
덕산댁(宅), 하추리댁(宅)
시끌시끌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등푸른 고등어 한 손 사들고
우리식구
굽기도 전에
맛을 먹고 입맛다신다

밀물 가득 왔다가
맛과 미소 머금고
썰물처럼 밀려간 거리엔

담장 넘어
코끝을 자극하는
달래된장찌개 맛은
덤이다

內麟川

한용운*

내린천(內麟川) 바람물길 따라
덕적리로 넘어 갔었던
산 고개, 피나무 천지였다

그 날도 마냥
바람 뜸한 산허리 너머로
굽이굽이 에워 흐르는 강물

풋풋하게 스멀스멀 돋는 연두 빛
그 너머 적막강산
고요 속으로 붙잡힌 푸른 하늘

산록에 깊이 잠긴 눈물 같은
속설을 다 끌어안고도
지나간 날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을까

옛 인적 간 곳 없는 그 세월
하루해 어제처럼 서산을 넘고
달빛은 밤새워 별 밭이랑을 간다

* 내린천 - 우리나라 백두대간 중심인 홍천 내면에서 발원하여 유일하게 북쪽으로 전국 청정제일 지역인 인제 내륙 70 Km를 흐르다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강, 전국 백경 중의 하나이며, 래프팅 코스의 최고 지역이기도 하다.

* 내린 문학회 회장
  한국문협 강원지회 이사 및 인제 지부장
  만해 (축전) 시인학교 고문
  만해축전 부 대회장
  만해축전 백일장(일반부) 심사위원
  세계 모던포엠 작가회 고문
  월간 모던포엠 강원 지회장 및 신인추천작품 심사위원
  전국 사투리 발굴 보존회 상임 부회장
  홍성사 작품공모 우수상
  한맥문학 신인상 수상 (1991년도 등단)
  인제 군민 (문학) 대상 수상
  초허 (김동명) 문학상 대상 수상
  세종문화 아동 문학상 수상
  새 밝 문학상 (본상)수상
  삼포문학 아동문학상 대상 수상
  새마을 美談像 (미담상) 수상
  대통령 표창 , 대한민국 근정포장 수상
  삼성 문화재단 효행상 수상
  고황재단 밝은 사회 선행 모범가족 금상 수상
  인제군사(郡史) 집필
  초록우산(한국 어린이 재단) "명예 전당" 후원자

* 저서 : 깊은 마을의 메아리, 한 사공 그 세월
* E – mail : han-sagong@hanmail.net
* 주소 : 강원 인제 인제읍 인제로 228번길 6102동 403호 (내력악 A)
* 연락처 010-5705-2623

운두령

- 가을산 정취 -

한용운

천(千)의 아름다운 얼굴 살아 숨쉬는
울울창창한 저 원시림
꿈꾸는 자연의 일계(日計)는

애달픈 기억으로
속앓이 깊었던 푸념들을 얽어매고
재 넘어간 바람뿐인가

물결치는 산과 능선
왜 저리도 고요적적 한가한지
먼 시공 눈빛에 갇혀 마냥 아득하다

산은 물길 막고
물은 산줄기 막은 궁벽(窮僻)의 산간오지
전설 같은 속설도 잊은 듯

사색의 꿈 빛 그 빈 한 공간
끝자락 홀로 붙들고
가슴 조인 던 그 날

깊은 산 계곡 얼비친
눈부신 하늘 빛 펴 담다
갈 길 잃어버린 그 날의 낮달 어디로 간 것일까

* 운두령 - 강원의 영(嶺)으로 차령산맥의 첫 고개, 해발 1,089 m 로 31번국도 총연장 750km 가운데 국내 제일 높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위치로는 평창군 용평면임.

동시

산마을

한용운

푸른 가슴 풀어 헤치고
먼 낮달 쉬어가는
산마을

층층나무 층층마다
새하얀 꽃등
달아 놓아요

향기 그윽한 느릅나무 벚나무
으름나무 넝쿨 속에서는
뻐꾹새 뻐꾹 뻐꾹
둘러앉은 산과 산들은
언제나 귀먹은 듯
아무런 말도 없지만

산새 지저귀는
산마을
하루 종일 웅얼웅얼

외로운 이웃들만
끼리끼리 함께 모여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동시

꽃바람

한용운

댕기머리 바람
가냘프게 흔들리는
놀이터

양지쪽 아지랑이 꼬마들
신나게 노니는 모습
참 예쁘다고 벌 나비를 불렀어요

제자리
홀짝홀짝 뛰노는
아지랑이네 가족들

하루 종일 놀다 돌아간
그 자리에는
파란 자국만 남았다고

꽃바람은 저 혼자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어요.

동시

눈

한용운

누구의 눈물이
하얗게 얼어
흰 눈송이가 되었을까

하늘에서 자꾸 내려오는
하얀 눈물의
그 눈송이들

온 세상을 덮으며
나뭇가지들 마다
송이송이 달아주는 눈꽃

엊그제께 그 누군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은 자꾸 흰 눈이 내립니다.

구부러진 길

권순덕

오래 전 버스가 다니던
이제는 잊혀진 길
구불구불 돌아 간
후미진 모퉁이 하얀 구절초
이제나 저제나 긴 목을 빼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어느 새 남루를 벗고
고속승진의 대로를 달리는데
산비알 묵정밭 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들 마중하던 낡은 푯말의 정류장을 지나
정들었던 한 때를 남기도 떠난
구부러진 길을
뒤돌아 보며 뒤돌아 보며
그 오랜 기다림을
다만 순하게 걷고 있다

그때 우리는

권순덕

길을 걷는데
느닷없이 비가 내린다
우산 쓴 사람이 지나지만
어느 한사람 권하는 이도
청하는 이도 없다
무심히 스쳐 지난다

가난했던 시절
그때는 우산이 귀해
비를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라도 내리는 아침이면
우산 전쟁이 벌어졌다
살이 부러졌거난 찢어진 비닐우산
그나마 차지하면 다행이다

그때 우리는
비내리는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다가가
우산 한쪽을 내주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기꺼이
비에 젖는 어깨 반쪽을 내줄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줄 때
찢어진 우산으로도 정말 고맙게
세상의 추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까닭

권순덕

깊은 밤
깨어있는 것들은 안다
잠들지 못하는 까닭은

봄이면
풀꽃들 다시 살아 와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까닭을

가을이면
대지에 가득 찬
풀벌레 소리
아득히 먼
넋을 부르는 까닭을

마음이 마음을 찾아
떠나는 밤
부르다 지친 이름은
별이 된다
외로운 사람들이
별을 바라 보는 건
보고싶은 얼굴 하나
남아있는 까닭임을

너를 보내고

권순덕

동생 묻고 돌아오던 날
해 설핏한 저녁
한강 어구 옛날처럼 노을 지는데
저기 어디쯤 더듬고 있을까
차마 못가고 뒤돌아 보는 내게
영정속의 너는
어찌 슬픔도 이리 환한지
어서가라 손짓하네

먼 길 돌아
다시 찾은 고향땅
아직 이승 떠나지 못한 마음
꺼져가는 잿더미 속에 사위어 가는데
어머니 자궁 속 긴 잠에 들어
회한뿐인 이승의 인연과
육십 평생 고독이
황혼속으로 점점 지워져 가고 있네

상강

권순덕

또륵 또륵
이제 그치려나 하면 다시 울고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숨어우는 풀벌레
목이 쉬어
하얗게 사위어 가는데
눈을 감으면 더 크게 열리는
온 몸의 촉수 세우고
잠들지 못하는 밤
어둠 속 신비한 교신에 접선한다
나뭇잎 떨어지는 계곡에
날로 차가워지는 물소리
이 가을
목숨가진 것들은 모두 옷깃을 여미며
이별을 예감한다

선뜻한 한기에
이불을 당기는 새벽
나른한 꿈결 속
들려오는 빗소리

늦가을

김경애(시집박물관 문학회)

춥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입에선 하얀 입김 솔 솔
얼은손 녹여본다.

온수메트 이불속
따스한 온기에 온몸이 녹아든다.
좋다. 편안하다

문득 이 밤도 찬이슬 맞으며
오시시 떨었을 꽃 화분 생각난다.
튕기듯 이러나 예쁜 꽃 화분 몇 개
현관으로 옮겼다.

지난날 예뻐서 일찍 시집간
옛 친구 생각이 난다
그 친구 지금도 저 꽃처럼
예쁨받고 있을까.

이 늦가을에
나는 꽃 화분을 들여 놓으며
옛 친구 생각을 해 본다.

코로나 19

김경애(시집박물관 문학회)

이름도 국산이 아니다
어디서 왔을까?
국적도 없고 고향도 없다.
눈에 보이지도 형체도 없는 것이
그 위력이 대단하다.
세계는 하나라고 외쳐대던 소리
다 어디로 가고
서로서로 문 닫고 빗장치고 하늘 길도 닫았다.

가까은친구 좋아하는 사람 만날수도 없다
마스크로 입 막고 한 해다 다 가도록
반벙어리 흉내내며 집안에서만 살았다.
아픈 친지 병문안 한번 못가고
죽었다는 소식듣고 부랴부랴 찾아가니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만 뚝뚝.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
나도몰래 손잡으려다
얼른 주먹쥐고 서로 부딪치며
어설픈 웃음 웃어본다.
아. 변함없는 일상이 이렇게도 그리울까
삼라만상 꽁꽁 얼음얼면
너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썩 물러 가거라.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기를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나

김경애(시집박물관 문학회)

푸르고 청청한 시설 앞만 보고 달려왔다
힘들고 고달파도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줄 알았다.
나이제 초로에 서서 지난세월 되돌아본다.
미움이 눈물 되어 흐를 때 마음껏 울지도 못했고
남다가는 여행한번 못갔지만
그것이 큰힘되어 오늘의 내가 여기 서있다.

이제는 노인의 반열에 서서
품위를 지키는 어르신이 되고싶다.
올망졸망 내손잡던 어린것들
제짝찾아 다 떠나가고
홀가분한 내 한 몸 큰 집속에 덩그러니 앉아
나를위한 시 한수 읊어본다.

옛날은 지나갔으니 미련이 없다
오늘은 살아있음에 행복하다
내일은 더 좋은일이 있을것같아 기대된다.
나이제 바랄 것은 없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물가에선 단풍나무처럼
더 아름답고 빛나게 물들어
모든이의 찬사를 받으며
예쁘고 우아하게 익어가고 싶다.

고백

꼼지락쟁이 김미숙*

태양을 닮아 푸르더냐.
하늘같아 붉더냐.
달콤한 입술에
심장이 쿵!

한 걸음 다가선 그대여
짱한 시월이여

* 한양사이버대학교(미술치료학과)졸업
2018년 한서남궁억 무궁화미술대전 시서화 우수상
2019년 제 28회 신사임당 얼 문예경연대회 운문 장원
2020년 제 14회 대한민국 마한 서예문인화대전 장려상
2020년 제 2회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창작대전 특별상
현 원통도서관 근무

달맞이

꼼지락쟁이 김미숙

언제 왔을까
은은한 향기의 설렘
그 덕에 햇살로 허기를 채우고
바람 불어 홍시처럼 붉어진 시간들이
땅거미를 물들이느라 바스락거린다.

붉은 열정을 토해내는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수화기를 들었다.

들국화가 무르익을 때
달맞이 갈까요.
아니면 지금

배꼽시계

꼼지락쟁이 김미숙

꼬르륵 꼬르륵 요란하다.
빌딩 숲은 토스트와 아메리카노
나는요 장터에서 김말이랑 어묵 한 사발
포장마차 사이로 바람이 익어간다.
포만감이 요동친다.
눈꺼풀이 자장가를 부른다.
무릎담요도 꽃잠으로 고요하다.

소나기

꼼지락쟁이 김미숙

설익은 밥처럼 서걱거리는 날
영정사진도 흐느끼는 통곡의 숲
억척같던 삶의 무게는 한 줌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 못 전한 인연의 끈들이 아우성.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던 꽃상여는 천국에 다다랐을까.
그 곳은 꽃길이겠지요.

혼절한 망부석의 상주(喪主)
피붙이를 잃은 백발노인
몇 천 번의 땅거미가 내려앉아야 상처가 아물까?
두 분의 건강만을 바라는 기도가 사치스럽다.

바람이 불붙듯 불어
장대비가 퍼부었으면 좋겠다.

자화상

꼼지락쟁이 김미숙

채우기만을 반복하던
무심한 거울을 보니
어깨 받히던 턱 관절은 늘어지고
붉은 열정도 헤어 컬처럼 변색된 지 오래
황망한 마음에 달음박질치지만
이미 늦어 버린
거울 속에 또 다른 얼굴.

그
아득한 골짜기 너머로
빛바랜 사진 속에 계신
그리운
나의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오월의 시

일송 김봉희

오월이면 벌과 나비
꽃찾아 분주하고
구름은 바람 따라
우리네 인생 세월 따라 흐른다.

눈으로 보는 꽃보다
내 가슴에 향기 나는
꽃한그루 심어
나눌 수 있는 기쁨이면 좋겠다.

계절 따라 꽃향기 짙어지고
짝을찾는 새소리 가슴 흔드는데
덧없이 늙어가는
내모습은 속절없다.

만물이 사랑으로 가득찬
좋은 계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

들국화

일송 김봉희

산기슭 오솔길
혼자 거닐다 보면
노란 들국화
은은하고 향기롭다.

늦가을 햇살에
저만큼 홀로피어
하늘을 우러르는 너의 모습
누구를 기다리나
애처로운 모습.

내게도 남아있는
그리운 얼굴
들국화 피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오래된 나의 인연이여!

황혼의 친구1

일송 김봉희

덧없이 가는 세월
지우면 지울수록
겹겹이 겹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얼굴

흘러만 가는 세월속
무언가 내 마음 한곳에
외로움이 솟구쳐
비워있듯 허전했는데
어느 날 살포시 찾아온 인연

우리의 만남이 영원을
약속할 수 없지만
먼 훗날 기억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한 떨기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황혼의 친구2

일송 김봉희

덧없이 하루가 간다
추억 속에 산다더니
쌓이는 건 그리움뿐

흘러가는 세월속
바람만 차가운데
텅빈 마음에 찾아온
따사로운 인연.

이제 너무 늦어
해는 저무는데
황혼녘 뒤안길
서로를 바라보는
그대는 나의
나는 그대의
마음이 되었구려.

내린천 연가

허계홍

외로움이 깊다 했더니
가을이더라
물안개 덮힌 내린천
나무와 돌과 흙과 가을의 기억이
내 가슴에 남아
설악의 날숨이 나의 들 숨소리로
빨갛게 빨갛게 익어 간다

세월은 가고 오는것
백두대간 열어준 길을따라
구비도는 물줄기는 맑고 달구나
강가에 서면 그 의미의
모든 우주와 삶의 점막에서
우리는 깨어나고 있다
하늘 시리도록 새벽을
휘감는
내린천의 혼을 기억해야 한다

물소리 산새소리
계곡의 현에 걸려 있고
역동하는 환희가
너의 품속에 있었구나
삶을 보듬어 주는 산아여
합강을 품어주는 물빛이여
아 -- 떨림이다
오늘밤도 너를 베고
푸른 꿈을 노래 하리라

삶의 통증

허계홍

불빛 그늘진 골목에서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서성인다

돗 수 안경을 써도 눈은 아프듯
삶의 내리막
올가 매는 허무한 통증이
그저
가을의 들녘에서
울고 있다

선홍빛 손톱

허계홍

햇살에 달구어진
화기 잠재우며
지난 세월 채로 썰어
뒷뜰로 나서니 붉은 봉선화
탐스럽게 피었다
고운 꽃잎 한옹큼 따서
열손가락 손톱에 물들인다
손톱에 선홍빛
옷으로 갈아 입히고
넓은 뒷뜰을 휘 돌아 하늘을 보니
어린시절 뛰어 놀던 친구들 그립다
가슴은 콩당콩당
속살 파랗게 드러난
허무한 세월의 얼룩진 무늬일 뿐이라고
손톱끝에 봉선화물 빠질때면
창밖엔 싸락싸락 흰 눈 내리겠지

제1회 호남향토창작가요제 〈대상〉

인제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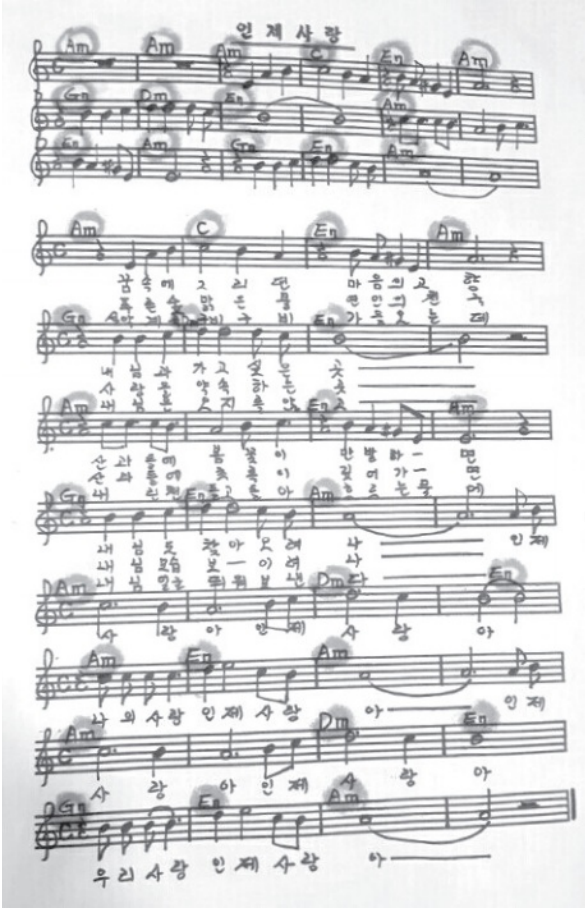
장혜경/이기덕

1. 꿈속에 그리던 마음의 고향
내님과 가고 싶은 곳
산과들에 봄꽃이 만발하면
내님은 찾아오려나

2. 푸른 숲 맑은 물 연인의 천국
사랑을 약속하는 곳
산과 들에 초록이 깊어 가면
내님 모습 보이려나

3. 설악계곡 굽이굽이 가을 오는데
내님은 오지를 않고
내린천 돌고 돌아 흐르는 물에
내님 얼굴 띄워보낸다

후렴) 인제 사랑아 인제 사랑아
나의 사랑 인제 사랑아
인제 사랑아 인제 사랑아
우리 사랑 인제 사랑아



가을에 즈음하여

문부자

천지를 녹일 듯 들끓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청량감을 주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도래된다. 가까운 논에서 저녁으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 소리가 자연 운행의 신비감을 주더니 어느덧 그 소리조차 간곳 없고 벼이삭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며, 누렇게 고개 숙여 마음은 어느새 시절에 동화되어 풍요롭다. 소슬한 구름 한 자락 높고 맑은 하늘에 모시치마 자락 한 폭 풀어 놓은 듯 허공이 한가롭다.

계절의 순환이 펼쳐 놓은 앞산의 부풀음이 살찐 진경산수화의 넉넉함이 배어 있는 듯 성큼 다가선 가을색은 건너다보는 마음 또한 풍요롭다.

여름 꽃은 떨어지고 하늘은 푸르디푸르다.

그 하늘마음 한 풍경 받아 든다. 그 마음은 넓고 깊은 호수의 수면처럼 맑고 명징하게 다가온다. 내딛는 발걸음도 가볍다.

오늘은 만해마을 숲 깊은 은둔처에 자리한 한국시집박물관에 공부하러 가는 날이다. 목요일엔 시낭송을 배우고 토요일엔 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대학 강의 버금가는 강의를 듣는다. 연령 제한 없이 중년 장년 불혹의 나이 직장인 남 녀 계층에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그 열기가 대단해 늘 자리를 채우고 있다

내설악 초입에 자리한 시집박물관, 서예박물관 뜰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사계절 울울창창하다. 그곳으로 들어서면 우리들을 반기고 있는 서

늘하고 씩씩한 산색의 의젓함이 그 정경을 바라보고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는 일로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이 박물관이 자리한 곳의 풍광이 사려 깊고 멋스러우며 그 깊고 청려한 모습이 그윽하고 섬려하여 그곳을 다녀가는 타지의 문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설악의 변모하는 사계절을 통유리창 밖으로 느끼며, 봄이면 수줍게 흐드러지는 산벚꽃과 파릇이 돋아나는 생명의 환희에 정신적 허기를 메우고 가을이면 꽃물결보다 아름다운 마가목 가로수에 달린 불타는 붉은 열매의 정열을 만끽하며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운 정취에 균형을 느낀다.

눈으로 배우는 것만도 큰 소득이다.

살을 에이는 추위와 더위를 무위로 느끼는 걸찬 소나무들의 포진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옛 선비의 엄격한 가르침인 듯 엄숙하다. 배움이란 말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서 이상을 볼 수 있고 정신을 충족하는 삶이 내포되어 깊은 생각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이상적 느낌에 윤택을 주자는 것이 아닐까,

그 뜻을 상호 교류하고 공유하자는 그 마음들이 모이는 만남 또한 큰 기쁨이기도 하다. 요즘 사회 곳곳에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다. 이곳은 넓은 지형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자리한 작은 郡단위의 지역이지만 문화예술 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지방의 특성상 공부할 곳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노인대학으로 부터 주부대학, 군.면 몇 곳의 도서관에서 일반인 '독서지도반' 도 운영하고 있고 박물관(시집박물관, 서예박물관, 박인환문학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배움터와 그 외에 한글, 한문서예, 수묵화, 유화, 수채화, 케리그라피, 또한 여러 분야의 악기와 음악과 무용 그 외에 모든 장르의 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일이다.

요즈음 대도시를 뒤로하고 귀농, 귀촌 하는 가구가 부쩍 늘어 가고 있다. 시집박물관 회원들도 건강상에 이유나 안락한 자연에 기대고 싶어 귀촌한 회원이 많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격높은 정신건강에 양식이 되는 취미생활을 곁들일 수 있으니 도시 못지않은 삶의 질에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쯤되면 우리의 삶 또한 누구라도, 사철 푸르디 푸른 청솔과 같이 충일한 생명력의 법열法悅을 느끼지 않을런지!....

이제 이 좋은 계절도 세계를 강타하는 몹쓸 병의 계절이 도래되어 이 조용한 산녘에도 가을이 깊게 내려선 마을이 각자 문을 닫고 발길을 닫았다.

일상이 낯설어진 위기의 날은 모호한 고요로 세월의 한 획을 긋고 있다.

자연과의 약속

金園 박돈녀

우리가족의 숙원이었던 새 집을 남북리 379-4번지에 짓고 이사를 했다 뒷산이 담처럼 처져있고 오월이면 아카시아 꽃이 주저리주저리 함박으로 피어 향기와 함께 온통 벌 · 나비가 꽃 잔치를 벌인다.

날이 새면 자욱한 안개. 집집마다 굴뚝에선 밥 짓는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안개 헤치고 뻐꾸기와 휘파람새 가 번갈아 가며 울어 대는 것 또한 낙원이다 집은 농가주택으로 자그마하게 지었지만 집 없던 우리 가족에게는 어느 빌딩도 부럽지 않았다.

집 옆에는 작은 봇도랑이 있어 밤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재잘대는 아이들 웃음소리처럼 들리고 담 없는 앞 논에 개구리들의 합창은 고운선율에 하모니다.

어느 날 뒷산에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려 몰래 숨어보았더니 작은 토끼 길에 꿩 새끼 여덟 마리가 어미를 따라 소풍가는 유치원생 들 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다.

너무 귀여워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고 싶어 살금살금 가다 들켜 꿩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정말 자연그대로 산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도 많다.

뒷산 비탈을 조금 돌아가면 길게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미루나무가 회색 옷을 입은 채 몇 그루가 서있다. 높은 가지엔 까치집도 몇 개 있었고 밤이면 어김없이 부엉이가 울곤 했다 가족을 잃었는지 매일 그렇게 울고 있었다. 얼마쯤일까 바쁜 생활 속에 내가 부엉이를 잊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엉이 생각이 떠올라 밤이면 부엉이 소리를 귀 기울여 애써 들어보려고 하여도 통 들리지 않았다 왜일까?

궁금하여 가보았더니 미루나무는 잘려져 있었다.

이유인즉 봄이면 미루나무 꽃가루가 날려 인체에 해롭다고 베어버린 것이다 부엉이가 없어진 이유는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아미산 끝자락에 있는 외할머니 산소에는 산토끼가 내려와 꿩과 노루가 함께 할머니 산소에서 놀곤 하였다 요즘 산토끼를 볼 수가 없다 이것 또한 먹이사슬 때문일까.

매주 수요일이면 TV에서 어김없이 환경스페셜이 방영된다.

정말 볼만한 것들이 많다 들고양이가 번성하여 산토끼를 잡아먹어 토끼가 사라지듯 먹이사슬이 균형을 잃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대도 원인이 있고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사라져 가는 우리 의 동 · 식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래 외국에서 묻어 들어오는 동 · 식물들이 생태계의 불청객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교란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선박을 따라 들어오는 희귀어종들이 우리어장을 마구 파괴시켜 어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내 손자들에게 할머니의 아름답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해 주려면 변해버린 자연환경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맑은 앞강에 죽은 깨 다문다문한 철죽꽃 의 아름다움과 검정고무신 으로 송사리 달팽이 방개 잡던 일 뒷산 꿩 여덟 마리의 이야기 며 산토끼이야기 모두가 믿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한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전에살던 정겹던 집과 뒷산 부엉이울음 소리를 잊을 수 가 없다.

무절제하게 써온 세제며 샴푸 등으로 맑은 물을 지키지 못했으며 산 능선마다 파 헤쳐진 초췌한 산을 바라보며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파괴로 지구의 온난화를 불러온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뚜렷한 사계절이 흔들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설, 태풍,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와 인간의 식량문제 까지도 절실해지고 있다. 지구의 멸망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나고 자랄 우리 귀여운 자손들에게 너무 죄스럽다.

어느 과학자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환경 살리기 운동에 전력을 다할 때 지구환경은 조금씩 회복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 비만 오면 흙탕물로 변하는 앞강은 황소울음을 우는 것 같다.

원인도 모르는 물고기가 떼죽음으로 강물위에 떠있고 오늘도 굉음을 내며 포크레인은 강을 파헤치고 있다. 평온 속에 살고 있는 온갖 물고기 달팽이 어디에서 살라고 저리 파헤치는 걸까.

내 유년에 아버지 쭉쭉 뻗은 소나무 떼 매어 소양강을 거쳐 서울광나루까지 물길을 이용해 뗏목아리랑을 부르며 나무를 팔러갔던 그 물길 한 서린 추억의 합강은 옛날의 한 장면으로 묻혀가고 있다 물, 숲, 공기 모두가 생명의 원천인 것을 위대한 자연 소중하게 지켜야할 우리의 의무가 분명하다.

세월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간 청자 빛 맑은 물에 송사리 떼 한가로이 노닐고 푸른 하늘에 온갖 새떼들 힘차게 날아오르던 옛날이 그립다.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자연을 살리는데 마음을 써 야 할 때다 그래서 자연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하리.

그땐 어디로 소풍을 갔나?

최광윤(향토소설가)*

필자는 초등학교는 1951년~1957년, 중학교는 1958년~1961년, 고등학교는 1962년~1965년에 걸쳐 학교를 다녔으니 어느덧 세월은 대략 반세기가 흘렀나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번듯한 관광지는 고사하고 가까운 속초바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처지가 하도 답답하여 필자는 햇빛 밝은 올해 9월 어느 날에 나들이 겸 모교인 인제초, 인제중, 인제고 교정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지나 인제초등학교에 다다랐을 때 운동장 가에 늙은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노쇠한 몸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옛날이 생각났다.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소풍날이었지. 높은 공직에 계신 아버지를 둔 친구가, 필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는 남몰래 이 나무 뒤로 불러내서 건빵 한 봉을 건네주던 그 가을 소풍날 아침, 필자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침 인제문화원으로 부터 "인제문화" 지에 실을 원고를 청탁받아 고민하던 중이라 필자의 초중고 시절의 이런 소풍 얘기를 그때의 소풍장소를 중심으로 몇 편의 자작시를 곁들여 펼쳐보기로 마음먹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우리고장의 역사요, 또한 소풍문화가 아닐까 해서.

---

* 김유정 추모 문예작품 공모대회 장려상(산문)
전국 부여 관광 수기 공모 우수상(부여군청)
수필 문학상 동상 수상 (공무원 연금지)
소설 등단(한국문인)
단편 소설집 '갈대 둥지위의 사람들' 출간(2008)
장편소설 '금빛넋새' 출간(2009)
전자 단편 소설집 '그 아이의 휘파람 노래' 출간(2016)

1. 초등학교 적 소풍 장소

노루목 고개 바로 아래 내린천의 모래펄이 요즘말로 소풍장소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소풍하면 으레 거기로 갔다.

아침 9시, 학교 종이 힘차게 울리면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이고 연단에 오른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그저 한결같이 안전사고예방으로 끝을 맺으셨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길 기다려 담임선생님이 인원점검을 마치면 저학년부터 출발하여 마치 뱀길처럼 꾸불꾸불한 비포장 신작로를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행렬은 합강리 양소 바로 위, 북천(진부령과 한계령에서 발원하여 원통을 거쳐 인제로 흐르는 강) 홍진포 나루터에서 멈춘다. 나룻배로 도강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허연 수염을 물바람에 휘날리면서 뱃사공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배에 한가득 앉히고 뱃줄을 풀고 노를 저으며 도강을 하신다.

나룻배의 추억

합강리 양소 위 홍진포 나루터는
지금은 2차선 콘크리트 다리발에 밟혀
몰골은 참혹하게 이지러졌지만
그 시절 옛 추억은 고스란히 품고 있으니…

도시락 둘러멘 소풍길 아이들이
나루터로 재잘재잘 삼삼오오 모여들면
할아버지 사공은 나룻배 목줄을 풀고는
헛기침 한 번 하고 하시는 말씀
"모두 탔지, 이제 가 보자"
삐걱삐걱 통나무 노가 물살을 가르고
나룻배는 들먹들먹 강을 건너는데…
배에서 내리는 아이들마다 하는 말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 2017년 2월 합강리와 덕산리를 잇는 옛 홍진포 나루터를 찾아 -

나룻배에서 내리면 내린천을 끼고 도는 외줄기 길이 나서고 우리는 학급반장을 앞세워 그길을 따라 걷는데 지루함을 메우려 때론 합창을 하기도 했다. 해가 중천에 가까워져야 목적지인 노루목고개 아래 내린천 강변에 이르렀다. 동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검은 석벽이 치솟고 거기서 부터 명사백석에 소나무가 강변을 따라 군락을 이룬 곳. 여기서도 또다시 담임선생님은 안전한 소풍을 당부하곤 하셨는데.

도시락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소풍 때 먹는 그 맛이 일품이다. 큰누나가 싸주는 필자의 도시락은 마른 오징어 한 마리에 삶은 계란 두 개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이 고정 메뉴였다. 이런 메뉴는 소풍 아니면 운동회에서나 먹어보는 별식이었으니.

보물찾기에선 양보란 없다. 그때만큼은 우린 안면 몰수, 서로 앞 다투어 돌 더미나 죽은 나무뿌리 주위를 살핀다. 어떤 데선 쪽지를 숨긴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다. 필자의 경우엔 별로 신통한 보물을 찾은 기억은 없지만 그 추억만큼은 필자가 찾아낸 가장 아름다운 보물 아닌가! 그때 보물이 아직도 필자의 가슴에서 반짝이니까.

소풍의 클라이맥스는 장기자랑이었다. 이때는 같은 학년, 때론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앉는다. 음악시간에 배운 동요 부르기가 전부이건만. 대개 출연자는 친구들이나 담임선생님의 반강제적 추천에 의해 앞으로 나서게 되는데 평상시 활발하던 학생도 그때는 꽤나 움츠려 보였다. 남학생들은 멋쩍어서 땅을 내려다보고 여학생들은 부끄럼에 빨개진 얼굴로 반쯤 몸을 틀어 먼 산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런데 그저 관람만 하면 되는 필자가 괜히 마음이 두근거린 건 웬일?

강물에 그늘이 드리우면 우린 귀가를 서둘러야 했다. 귀가 길은 당연히 지치게 마련. 그래서 아무리 줄을 맞추라고 반장이 채근을 해도 허사였고 합창은 언제나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였다. 다음날 아침엔 다리에 알이 뱄

지만 모두들 학교를 나와 재깔거리는 걸로 미루어보아 역시 소풍은 "으메, 좋은 거".

2. 중학교 적 소풍장소

경로정 아래 삼태기 같은 지형의 동네를 조림리라 했지. 옛날 일제강점기에 집집마다의 부역으로 나무를 심었다하여 그리 부른단다. 중학교에서 이곳까진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다. 검은 교복에 까까중머리인 필자의 친구들은 마치 훈련받는 군인처럼 줄을 맞춰 2열종대로 경로정을 향해 언덕을 오르곤 했다. 경로정에서 소나무 어우러진 산비탈을 타고 내려가면 넓은 강변 모래펄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가로로 늘어선 푸른 소나무 숲이 일품이었다.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중학생쯤이면 대부분이 이성에 관심을 갖는 소위 사춘기에 접어든다. 작은 실수를 보고도 웃음이 나오고 하찮은 말에도 노여움을 품는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른들은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혹은 성난 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뭐든지 남달라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나는 데가 옷차림이다. 평소 학교생활에선 교복을 입어야 하지만 소풍날만큼은 전교학생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선생님들은 사복을 허용하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이들의 옷이 종류별로 용도별로 넘쳐나는 시절이 아닌 만큼 우린 무슨 옷을 입어야 할 지 퍽 고민스러웠다. 하여튼 소풍날엔 좀 색다른 옷을 입었다가 선생님께 지적을 받아 의기 소침하는 학생이 꽤 있었다.

이 시절 소풍에서 점심 얘기를 하자면 필자는 한 번도 지정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은 적이 없었다. 아이들 몰래 일찌감치 해치운다. 왜냐하면 신통치 못한 도시락을 친구들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 민망해서였다. 지나고 나니 아마 필자도 그때 사춘기를 앓았었나 보다.

학생들의 성격이나 개성을 잘 파악하려면 장기자랑을 보면 된다.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 끼가 있는지, 심지어 가정교육까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갈 것이다. 모자를 비뚜로 쓰고 다리를 흔들면서 노래 부르던 소위 노는 학생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조숙한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공책 한 권이나 연필 한 자루씩을 받았는데 일등은 대개 크레용 한 갑이었다. 소풍을 다녀오고 좀 있으면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나돌곤 했다.

지금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그 시절 그 푸른 소나무 숲과 학생들이 그리운 건 아마 인지상정이겠지.

조 림 리

해 저문
강바람에
머리 푸는
갈대들

긴
기러기 울음에
떡갈잎
지는 소리

산 밑
가시덤불엔
첫잠 든
참새들

이대로
이밤 새면
그 시절
꿈에 볼까.
-1992.11. 조림리 소풍장소에 서서-

3. 고등학교 적 소풍 장소

조림리에서 강변을 타고 내려가다 물줄기가 꺾이는 곳에 바위산을 업고 용소라는 큰 소가 있다. 거기가 바로 고등학교 소풍장소였다. 그곳 역시 기러기 떼 내리는 모래펄과 짙푸른 소나무 군락지를 품은 명당이었다.

머리가 굵어진 고등학생이 돼서 그런지 별로 선생님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오락도 잘하고 노래도 척척해댔다. 용기 있는 어떤 친구는 수건돌리기에서 짝사랑 여학생 뒤에 수건을 떨어뜨려 마음을 전했지만 결국 공주님의 마음은 냉담했던지 그 후로 교제한다는 애긴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친구의 그 용기만큼은 내내 부러웠다.

은밀한 얘기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떠랴 솔직히 말하는 것이. 당시에는 우리들은 거의 만학도 이었기에. 만에 하나 어느 학생이 몰래 흡연하다 산불이라도 낼까봐 담임선생님은 노심초사, 수시로 소지품검사를 하셨거든. 헌데, 친구 하나가 그날 아침 새로 산 담배 한 갑을 통째로 압수당하고 다음날 교무실로 출두 명령까지 받았으니. 그 친구는 그 소풍날을 오래도록 못 잊을 거야.

<u>용 소</u>

햇살 가득한
때 이른 입동날
발걸음도 가벼이
조림리 돌아나가
소양강둘레길 걷다보니
우뚝한 바위벼랑 아래
푸른 물결 돌아드는
용소(龍沼)에 내려섰네
그 옛날 하얀 모래펄과
가지런한 소나무 숲은 간곳없고

회색 자갈밭에 엉클어진 억새뿐
까까중 학창의 소풍과
그날의 노래자랑과 수건돌리기는
기억 속에 생생한데
애절한 세월은
무심한 이 강물에 실려
흘러 흘러갔어라
아주 멀리 멀리….
- 2016년 늦가을 -

이건 여분의 얘기지만 2학년이 되어서는 백담사를 거쳐 대청봉을 넘으면서 가을소풍과 수학여행을 겸하였다. 군용차를 얻어 타고 용대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백담사까지는 꼬박 걸어야만 했다. 계곡을 끼고 오르는 오솔길이 갑자기 등성이로 잡아들어 이리저리 오르내리다 내려서는 거기에 절 백담이 버티고 서있었다. 대웅전 한 채와 요사채 두 채가 전부였다.

백담사 뒤로는 아름드리 잣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앞으로는 백담천 개울, 그리고 개울엔 진검다리, 그 다리 끝자락에 초가집 몇 채가 고즈넉이 웅크리고 있었다. 우린 요사채에서 일박하고 대청봉을 넘을 예정이었다. 요사채 방안에선 여학생들, 마루에선 남학생들이 취침하였다. 말이 취침이지 밤새도록 들락거리는 아이들로 잠을 설쳤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필자가 소풍을 갔던 곳은 하나같이 원시적 신비함을 고스란히 머금은 천혜의 쉼터였다. 허나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모래펄도, 시원한 솔숲도 모두 사라지고 맑은 물도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북천을 건너던 나룻배마저 덩달아 없어졌다.

만약 이 풍광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홍진포 나룻배가 오늘도 강폭을 오간다면 우리 자손들도 거기로 소풍을 가지 않겠는가. 굳이 돈 들여 버스타

고 도시의 인공놀이터나 찾아갈 필요가 있겠는지? 코로나19가 국민을 위협하는 가운데 연중행사처럼 된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엄청난 재해는 모두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자충수임을 깊이 뉘우치고 이제라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찾아보자고.

아! 명사 백석이여! 푸른 소나무여! 맑은 강물이여! 홍진포 나룻배여! 그리운 친구들이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강원도 환경백일장 장원 작」

최 은 희

촉촉 비가 내린다.
내리는 빗줄기의 촉은 대지에 꽂히면 생명을 주고
마음에 꽂히면 그리움 남기는 참 곱게 촉촉 내린다.

오래 함께하기를 바라는 자식의 마음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 전하기가 왜 이리 힘들었는지 아니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지, 내리사랑으로 하기 쉬운 일들이 치사랑으로 못해드린 것은 환갑이 지난 지금에서야 팔순 후반에 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문명이 많이 좋아진 지금, 한 통화의 전화도 못해드리며 바쁘다는 일상으로 소홀해지는 이때 '사랑' 만큼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서로의 눈빛, 맘으로 통하는 것이 서로의 말을 전하기를 여러 번…
처음 듣고는 어색해하시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에서 얼굴 가득 기쁨과 슬픔을 순간 느끼며 콧망울은 더 커지고 입꼬리는 올라가며 양팔을 벌려 껴안으면서 '나도 사랑해!' 하는 모습에서 지금도 가슴 가득 뜨거운 용암으로 넘쳐흐르는데 왜 이리 속내는 촉촉 내리는 비마저 뜨겁게 느껴지는 걸까. 늘 자식 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래서일까.

대농(농사)과 농장일로 한 평생을 바친 세월 늘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 땅을 지켜온 세월만큼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지켜가며 가축과 교감하며 서로 나누는 지혜는 많은 교훈을 남기고 닮고자 합니다.

되새김질하는 소의 위에서 나오는 가스가 대기환경 오염에 요인이 된다

고 소 먹이에 마늘을 조금씩 넣어서 함께 먹이면 유해물질이 제거된다는 작은 실천!

새내기 농부는 대농을 하신 농부를 닮고자 손바닥만한 땅뙈기를 일궈내는 것도 서툴러 자주 손전화로 여쭤보지만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신다.

모든 것들이 기계화된 지금 땅을 가꾸고 곡식을 거두는 행위는 자식 돌보기와 같음을, 부지런함은 곡식의 풍성함으로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과해서 잘못되는 것도 있으리라.

뜨거운 여름이 일찍 찾아와 단비를 내리는 비는 장맛비처럼 밤새내려 다락방 지붕 위 빗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일어나 창을 열고 한참을 멍하니 어둠을 응시하다가 시간이 지나 날은 비를 멈추었나 싶었는데, 촉촉 비가 내려 텃밭으로 나가 뜨거움에 지친 생명들이 되살아남에 감사한다.

언젠가 콩을 심어놓고 잘 자랐겠지 하고 산 가까이 있는 밭에 가보니 심어놓은 콩은 보이지 않고 이쑤시개처럼 가는 가지만 가득, '이게 왠 일이람' 고라니가 맛나게 먹고 간 흔적이란다. 내가 욕심이 과했을까. 농사는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새도 나누어주고 들짐승도 나누어 주고 이웃도 나누어 주는 것을…

오랜 세월 땅을 지켜온 대 농부의 큰 웃음 속의 지혜를 왜 이제사 그 의미를 알아봅니다. 긴 세월 땅의 소중함 속에 대 농부의 어깨는 등짐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은 주루룩 비가 내립니다.

햇볕이 따가움을 느낄 때면
대 농부가 좋아하는 꽃 뜨거운 뙤약볕에 칸나가 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며
대 농부가 좋아하시는 칸나꽃 한아름을 올리렵니다.

不狂不及 (불광불급)

최은희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호기심은 쭉~

이것이 나에게 장점이 되었는지, 살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배우는 것으로 풀어냈던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아냈습니다. 이다음 나만의 책(서예 또는 시집)도 내고 싶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봄이 되면 초록 한 가지 색의 변화에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할 수 있음으로 성장해 가는 자신이 좋았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도 해보고,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창작으로 조형작품도 해보니 스스로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이 많은 장점을 부모님, 형제들에게 배워옴을 모든 덕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하는 아이들이 저를 지지해 힘나게 해줍니다. 오늘도 그 힘을 얻어 '천자문'을 국전지에 서예를 써봅니다.

"不狂不及(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면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하하하.

편집실

一諾千金

일 락 천 금

뜻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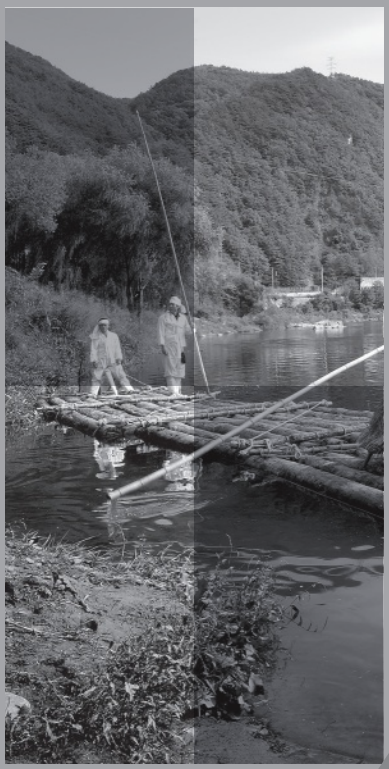
한번 승낙한 말은 천금과 같다는 뜻으로 약속을 중하게 여기라는 말.

해 설 /

초나라의 계포는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항우의 군사가 되어 유방의 군사를 여러 번 물리쳤다. 그리하여 유방은 한나라를 세웠을 때 그를 잡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주겠노라고 선포하는 한편 감추어주는 자는 삼족을 멸망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돈이 탐나 계포를 고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유방의 옛 벗인 하후영의 충고로 유방은 계포의 체포를 취소하고 그에게 벼슬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자 벼슬아치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 조구생이 계포가 벼슬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포는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만나 주지도 않고 냉정하게 대했으나 그의 말솜씨에 속아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조구생은 가는 곳마다 계포의 자랑을 하는 바람에 계포의 위신은 더욱 더 올라가게 되었다.

이처럼 뒷전에서 남을 자랑하는 것을 조구지덕이라고 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포처럼 한 번 승낙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일락천금이라고 하게 되었다.



· 정재환 _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 심종기 _ 長毋相忘
· 황범식 _ 제12대 인제문화원장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제 4 장

기고문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인제문화원 이사 정재환

10월로 접어드니 녹색으로 울창하던 內麟川변 산과 들이 울긋불긋 곱게 물들기 시작한다.

머지않아 추위가 올 것을 아는 걸까? 가을볕은 더욱 따사롭다.

가을 햇살을 받아 천지만물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고,

청명한 하늘, 황금빛 들판, 그리고 빛바랜 낙엽까지, 제각기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다투어 아름답게 여물어간다.

자연이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 역시 생로병사의 순환을 피할 수 없다.

흔히 청춘은 봄에, 노년은 가을에 비유한다.

봄꽃처럼 화사한 청년기를 거쳐 푸른 숲처럼 울울창창한 장년기를 지나면

인생의 가을 노년기로 접어드는 게 순리이다.

자연이든 인생이든 절정의 순간을 넘으면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다.

노화로 가는 고갯마루에서 세월의 네비게이터는 오직 한 길, 내리막길만 안내한다.

무쇠같이 튼튼하던 사람도 결국은 퇴행의 순간을 맞게 되니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늙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장년에서 노년으로 들어서는 분기점이 은퇴가 아닐까 싶다.

은퇴는 생황 일선에서 퇴각하는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自己)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는 자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퇴와 함께 부여받은 넉넉한 시간 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은 불행한 것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없이 祝福받은

나날로 채울 수도 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며, 벗들과 호젓한 산길을 걸으면 들꽃도 보고

두런두런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을 노년이 아닌 그 언제 누릴 수 있으랴,

이왕 드는 나이, 자연 속에서 늙어 가면 더욱 행복하다.

도시에 살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전전긍긍하는 지인(知人)들을 볼 때 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축복 받은 기분이다.

주말이면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손주를 앞세워 찾아온다.

손자들이 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누구나 갈망(渴望)하는 것이 노년의 幸福이다.

그러나 행복을 오롯이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은 빈곤해지고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하다.

과거 배고프던 시절 이웃 간에 느꼈던 훈훈한 정과 감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게 풍요 속 빈곤이 아닐까.

이 각박한 시대에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누리려면 나름대로의 수양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중요하다.

인생의 성공이란 높이가 아니라 깊이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높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얕은 뿌리에 키만 큰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理致)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직 사회에서 승진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의 노후를 보라.

화려했던 어깨 위의 견장이 떨어진 후 그가 만날 세상의 인심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직과 현직을 칼 같이 구별해 내는 우리 사회의 영악한 분별력을 당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우리에게 관동별곡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문인 송강(松江)정철(鄭澈)은 노년의 외로움을 이렇게 노래했다,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亭子)라도 쉴 이 없다
호화로이 섰을 때는 오는 이 가는 이 다 쉬어가드니
잎 지고 가지 꺾인 뒤에는 새도 아니 앉더라.

송강은 말년에 무척 쓸쓸하고 고독(孤獨)하였던가 보다,

서인(西人)의 영수였던 정철은 뛰어난 글재주에도 불구하고 정쟁(政爭) 때 마다

거친 말(言)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모질다는 평을 들었다.

모질고 각박한 늙은이 주변에 사람이 모일 리가 있으랴.

산(山)이 만물을 품기 위해서는 풀 한포기 자라지 않는 단단한 바위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모진 풍상을 겪은 바위가 갈라지고 바스러져 부드러운 흙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수많은 생명체를 품을 수 있다.

노년의 외로움이 어디 송강만 느낀 감회일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들은 삶의 전부였던 잎들을 떨구고 몸속 수분을 빼기 시작한다.

애써 모은 물방울이 아깝다고 미련을 두면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 하다 보니 이웃과 드잡이를 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힘들어 한다.

비우고 버린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

자연이 곧 법문이다!

法頂스님 이 말씀이 오늘따라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長毋相忘

인제문화원 이사 심종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잊지 말자"

이 말은 추사 김정희선생의 마지막 문인도인 세한도(국보 제 180호)에 인장으로 찍혀 있는 말입니다.

추사가 제주도 유배 중 가장 어려울 때 도리를 다한 제자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내어주며

우선(藕船:이상적의 호) 고맙네!

"내 결코 잊지 않음세 우리 서로 오래도록 잊지마세" 라고 했습니다.

이 가을!

바람결에 흔들리며 팔랑거림으로 떨어지는 낙엽은 마치 한해와 헤어짐을 아쉬워 하듯 떨리는 몸짓으로 하늘거립니다.

꽤나 쌓인 세월을 곱씹어보며 삶의 곳곳에 녹아 있는 희노애락의 오묘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 왔지만 분명하게 느낀 것은 바로 모든 사물과의 관계 그 중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학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계절의 옷 갈아입음에 하얗게 서리 내린 머리카락보다 수많은 사연이 있고 주름이 깊은 이마에는 고뇌하며 견딘 세월이 있기에 사람과의 상관관계는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세상 살다보면 상대방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싸가지(사가지)있는 사람 혹은 "싸가지 없는 놈"이라 말들 하지요.

그 사가지(싸가지)는 바로 인, 의, 예, 지를 지칭함인데

인(仁)은 惻隱之心(측은지심) 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요.

의(義)는 羞惡之心(수오지심) 으로
불의를 부끄러워 하고 악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며
예(禮)는 辭讓之心(사양지심) 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 할 줄 아는 마음이며
지(智)는 是非之心(시비지심) 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상(五常:인, 의, 예, 지, 신) 중
신(信)은 光名之心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가운데 바르게 위치 해 밝은 빛을 냄으로서 믿음을 주는 마음입니다.

보신각이 사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홍지문(숙정문)) 중앙에서 울리는 것은 인의예지를 갖추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유교적인 철학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즉 인의예지를 (사가지=네가지)가 없는 사람은 소위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것 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딱 들어 맞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 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다양하고

수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기에 서로서로 조금씩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남을 탓하고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배타적이고 이기심 가득한 싸가지 없는 사람됨을 지양해야겠지요.

손자병법 중 한 구절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말은 병법(전쟁)에 대입된다면 타당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나를 가장 잘 알므로서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며 어머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사물과 만날 때 특히 인간과의 첫 대면을 할 때 제일 먼저 소통의 장르는 언어 즉 말입니다.

눈빛, 낯빛, 몸짓 등도 중요 하겠지만 우선 건네어지는 말은 가히 그 사람의 사가지를 가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무드에서 "말은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당신의 상전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와 버리면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나의 상전이 되고 나는 말의 종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즈음 나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서리 맞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말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돌이켜 보는 이즈음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따스한 마음을 건냈을 때

누군가 나를 인간적인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람결에 고운미소를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람결에 꽃향기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람결에 늘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람결에 걱정하여주고 힘내라고 응원하여주는 사람이 내가 따스한 마음을 건냈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을까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9월9일 광화문을 출발하여 (광화문-철원-화천-양구-인제-속초-강릉-울진-포항-부산-창원-진주-하동-광양-순청-보성-장흥-목포-함평-광주-장성-고창-부안-김제-군산-보령-아산-천안-화성-광명-광화문) 9월29일 오후1시에 광화문으로 골인 (달린시간 302시간4분, 1514km)하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매일 컴컴한 새벽 4시30분에 출발할 때면

지난 날 잘했던 일도 있었을 터인데 남에게 잘 못했던 수 만 가지 말과 행동이 떠올라 아무도 없는 컴컴한 도로위에서 엉엉 울며 미안하다고 잘 못했다고 소리쳤던 기억이 늘 함께합니다.

그때 그렇게 뱉어냈던 절규가 이 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기회를 주어진 것 같아 그 고난의 달림 속에서 얻었던 가장 값진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 가을!

무척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마음을 다잡아보는 계절입니다.

살아오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세상으로 옮길 때 까지라도 모든 사물과 특히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남은 삶이 비록 얼마가 되더라도 지나온 세월 속에 함축되고 심오한 삶의 무게를 어찌 가볍다 하겠습니까?

내가 남긴 수많은 발자국이 비록 오류의 따른 비난도 있겠지만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가오는 값진 인생을 위해 박수를 받으며 의연히 떠나는 그 날 -

"장무상망"

오랫동안 잊지 말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파이팅!

제 12대 인제문화원장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황범식

2020년 5월 19일 11시 인제문화원 제12대 문화원장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초청장 문안을 읽어보니 이만철씨가 12대 문화원장으로 취임식을 개최하니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이만철씨가 전화를 해서 받으니 간단한 인사 후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12대 문화원장으로 취임식을 갖게 되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전화였다. 그러지 않아도 초청장을 받고 인제문화원이 이제야 임자를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터라고 했더니 고맙다는 인사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40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1984년 인제문화원 발족당시 문화원장에 고 김진용님, 부원장에 고 박해순님이 임명된 상태였다.

한번은 박해순 부원장님이 저를 만나 김진용 원장님께서 좀 만나자고 하시니 어느 날, 몇 시에 문화원 사무실로 들려달라고 하시기에 그러기로 약속하였다. 당일 사무실에 들렀더니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를 받은 후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여 앉으니까 김진용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둘이 원장과 부원장으로 임명은 받았는데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이 있어야 하는데 자네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니 우리를 도와서 일을 해준다면 잘 될 것 같아 둘이 의논 끝에 자네를 불렀는데 보수도 별로고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렵겠지만 우리 셋이서 의견을 모아 연구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자네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이라 능력은 없지만 고장의 문화발전을 위한 일이니 함께 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몇 분이 모인자리에서 인제문화원 사무국장 위촉장을 받아 인제문화원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1985년 제3회 강원도 문화예술민속경연대회를 속초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니 인제문화원에서도 준비를 해서 참여하라는 강원도문화원연합회로 부터 공문을 받았다. 공문을 받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난감하기 그지 없었으며 원장님, 부원장님 모두 근심과 걱정뿐인 상태였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그래도 자네가 머리를 짜서 우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을 하나 생각해서 골라보자고 지시를 하였다. 생각 끝에 옛날에 인제에서 원목생산이 많이 돼서 합강정 양소 주변에 원목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장소가 모자라 덕산리, 차평리까지 쌓아 놓았다가 장마가 져 물이 늘어나면 뗏목을 만들어 서울로 운송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 원장님과 부원장님 두 분께 옛날에 했던 뗏목 운송방법을 연구해서 시연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시며 군청과 연락해서 추진하자고 말씀을 하셨다. 당시 문화원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인제군청 공보계(당시 담당계장 박동화)에서 행정 및 예산지원을 해주는 시대여서 원장님, 부원장님, 사무국장 그리고 박동화 계장 넷이서 의논 끝에 학술적인 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박민일 교수님과 역사학 권위자인 최승순 교수님을 초빙하고 지역원로이신 고 손용인님, 고 최양준님, 고 심한호님, 고 김영규님, 고 이영규님, 고 송태익님, 고 김계근님 등 여러분과 모 여관에서 2박3일간 교수님들은 학술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은 경험담을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민속경연 연습을 하려고 하니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제군청 공보계에서 행정예산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지만 박동화 공보계장과 박희운 직원 두 사람의 지원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는데 생각 끝에 모 택시회사 총책을 맡고 일을 하는 이만철씨를 찾아가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자주 대화를 하는 사이었는데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소양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던 터라 만나서 전후사정 이야기를 하고 인제문화원의 명예가 걸린 사업이니 함께 고생 좀 하자고 부탁을 하였더니 어쩐 일인지 서슴지 않고 도와서 일을 같이 해보겠다고 승낙을 받아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감출수가 없어 감사 인사를 몇 번이고 하였다.

우선 뗏목을 만들려고 하니 원목이 필요했다. 인제군청에서는 군유림 벌채 허가를 해줘서 인부를 들여 벌목잡업을 하고 군부대에서 차량지원을 받아 원목을 실어오고 어르신들은 옛날 뗏목 작업하던 솜씨를 되살려 뗏목을 만들어 합강리 양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마포 광나루까지 운송하는 시연을 여러 날을 연습하였다. 그때는 무지해서 원목으로 하는 생각만 했는데 후에 보니 스티로폼 같은 가벼운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 것을 몰라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 당시 이만철 간사님이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료에 보면 벌목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돼지머리 놓고 치성을 드리고 첫 도끼질 할 때는 제주가 어명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벌목을 시작하는 절차를 걸쳐 원목을 마련하여 뗏목을 만드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었다.

드디어 1985년 속초공설운동장에서 민속경연대회를 한 결과 인제문화원 뗏목놀이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시연하는 동안 중간 중간 사무국장인 제가 시연 해설을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상을 받고 인제로 돌아오니 인제군청에서는 환영잔치를 마련하여 그동안 수고한 어르신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때 박해순 부원장님의 육성으로 뗏목 아리랑을 불렀는데 지금도 산촌민속박물관에 들르면 그 당시 녹음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한참을 듣고 돌아오기도 한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는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일만하고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이만철씨가 정식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21년간이나 인제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제문화원을 크게 발전 육성하였는데 12대 문화

원장으로 취임식을 갖는다는데 제가 어찌 참석을 마다하겠습니까. 참석을 해보니 문화원회원 여러분과 기관 단체장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개회식을 알리는 사회자의 안내로 모두 자리에 앉아 식이 진행되어 12대 문화원장님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취임사 서두에서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고 황범식씨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달라고 하기에 얼떨결에 일어났다. 그 자리에서 옛날이야기로 황범식씨가 초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본인을 문화원 간사로 일을 시작하게 해서 21년간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오늘 문화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박수로 환영해 달라고 해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니 새삼 40여 년 전 생각도 나고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고마운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니 울컥하는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였다.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선임한 분이 책임자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 생각은 신임 이만철 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21년간 묵묵히 인제문화원을 지금까지 성장시키며 지켜온 산증인으로 지역주민의 인정을 받아 무투표로 당선되었음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본다.

끝으로 인제문화원 초대 사무국장으로 잠깐 일을 했지만 그 잠깐이란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에 취임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었다.

12대 이만철 문화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제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문화원장님과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편집실

一擧兩得

일 거 양 득

뜻풀이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일컫는 말.

해 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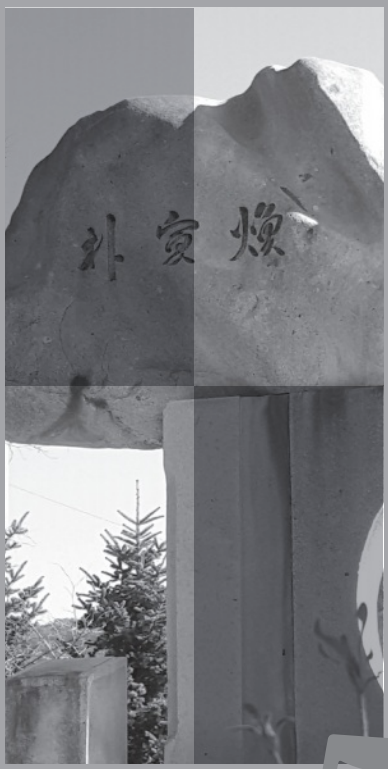
초노나라에 용감하고 담력이 큰 변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호랑이 두 마리가 산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은 변장자는 큰 칼을 뽑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에 이르러보니 과연 호랑이 두 마리가 소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이때 그의 뒤를 따르던 아이가 말했다.

지금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데 힘이 약한 호랑이는 물려 죽을 것이고 힘이 센 호랑이도 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 상처를 입은 놈을 잡으면 호랑이 두 마리를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호랑이 한 마리를 잡고도 두 마리를 잡았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에 변장자는 그 아이의 말대로 조금 기다렸다가 상처를 입은 호랑이를 잡아 결국 두 마리의 호랑이를 얻었다고 한다.



제19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제28회 박인환백일장 청소년 문예작품

제 5 장

백일장 입상작품

「제19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대상

오일장

류 운 정

그때부터 기다림을 배웠다

저수지 위로 금빛 물결이 미끄러질 때부터
팽나무 열매는 툭툭 마당을 건드려보고
해바라기는 제 목을 길게 올려 굽이진 산길을
살펴보곤 하였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이십리 길

광주리에 정갈하게 다듬어진 부추와
열무 애호박은
희붐한 물빛과 함께 길을 나서
손가락 꼽으며 기다린 약속이 되어
돌아왔다

팥죽집을 기웃대다 돌아선 발길이
포복점에 들어서면
먼 동네로 이사 간 영순이 엄마도
텃밭을 들고 나온 안골댁도
보따리를 풀어헤쳐 그간의 소식들을 나눠 담는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약속 없이도 이웃이 되는 날
장터의 희망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물가물 산길에 어머니 모습 비치면
팔 벌리고 뛰어가던
논둑길에 야생초들

지금도 그 길에선 풀빛 바람
기다리고 있겠다.

장원

유년의 뜰

김난계

하얀 이슬이 내려 덥고
쏟아지는 별
소낙비처럼 맞고파

곰배령 앞마당에 나가
녹색담요 둘둘 말고 뒹군다

하늘에는 푸른 물결이
바다같이 퍼져있다

터덜터덜 내려오는 산길
배낭에 반짝이는
별 하나 넣었다.

장원

내 유년의 뜰엔 내린천이 흐른다

강희기

어린 시절 나는 늘 내린천과 함께였다. 내린천은 끝없이 흘러가면서도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강변 사장(沙場)에서 모래로 집을 짓고 풀로 요리를 만들었다. 소꿉놀이에 빠져 그렇게 하루를 보내곤 하였다. 덩치 큰 오빠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작살에 꿰어 나오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우리는 박수를 쳐주곤 하였다.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은빛 비늘 같은 반짝이는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어린 우리를 키우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친구네가 읍내로 이사를 갔다. 강을 건넌 친구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강물이 내 눈물을 쓰다듬으며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강을 건너고 싶었다. 강은 새로운 곳을 향해 건너야 하는 경계로 남았다. 그날 나는 떠난 친구를 잡을 수 없었던 아쉬움으로 강물을 수없이 움켜쥐었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물은 손을 물속에서 꺼내기도 전에 모두 빠져나갔다. 수없이 반복하다 일어선 나는 모래를 가득 움켜쥐었다. 놓치지 않으려고 손을 꼭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려 내렸다. 손에는 물기에 젖은 모래 몇 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물도 모래도 손 흔들며 떠난 친구처럼 잡을 수가 없었다.

장맛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강가로 물 구경을 나갔다. 목재들이 강을 메우고 떠내려가고 있었다. 떠내려 오는 집채의 지붕 위에서 소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였다. 황토 빛 넘실대는 물결은 무서웠다. 한없이 부드럽게만 느껴지던 강물이 화를 내는 모습은 공포였다. 그 후로 친구와 다투거나 하였을 땐 넘실대며 흐르는 무서웠던 내린천의 꿈을 꾸곤 하였다.

내린천은 내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주었다.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도 가르쳐주었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선한 것들

도 거스르면 공포가 될 수 있음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내린천을 가슴에 품고 그 흐름의 소리를 들으며 유년을 보냈다.

유년기를 벗어나면서 도시생활을 하게 된 나는 내린천과 이별하였다. 높아지는 빌딩 사이를 물고기가 헤엄치듯 오가고 있었다. 세파의 작살을 맞지 않으려 웅크림으로 견디기도 하였다. 먹이를 낚아채는 쏘가리처럼 내 울타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먹이를 붙잡아야 했다. 지경(地境)을 넓히기 위해 흐름을 바꿔야 할 때도 있었다. 쉬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만들어야 했다. 내 손은 쉴 새 없이 바빴다. 물 위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처럼 싱싱함과 충만함으로 보였을 젊음은 그렇게 흘렀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삶의 흐름은 바뀌었다. 내가 일구지 못한 일들을 아이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과정 속에 나를 묻었다.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 수없이 확인하는 내 손길이 아이들에겐 큰 멍에였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은 가지 않았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을 때의 실망감은 차마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젠 제 몫의 삶을 즐겁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스럽다.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어 떠난 아이들의 방이 빈 둥지처럼 허전하다.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 햇빛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창가에서 찻잔을 든다. 혼자다. 어머니마저 세상의 강을 건너고 나니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도 없다. 한 모금씩 비워지는 찻잔 속에서 문득 내린천이 비친다.

내 삶은 강물이었다. 치열하게 달려 온 삶이었다. 삶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물을 손 안에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야 그 때의 교훈을 깨닫는다. 물과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교복 속의 청순함을 들끓게 하던 첫사랑도 잡을 수 없었다.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들도 결코 내 손 안에 둘 수 없었다. 쥐고 있는 것이 없는 노년이 되었다.

서녘으로 노을이 물든다. 빈 찻잔을 앞에 두고 손을 부빈다. 손바닥으로

깊이 패인 손금이 보인다. 삶을 부지런히 흠집 내며 건너온 세상과 찬찬히 손질하며 건너가야 할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강물이 손금 속에서 뒤척인다. 그래, 내 삶에는 내린천이 흐르고 있었구나. 삶이 어려울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맑은 물소리가 들렸다. 편안하고 힘이 되었다. 힘든 일도 신나게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내린천의 물살이 내 속을 흘렀기 때문이다. 숱하게 겪은 이별을 견뎌낸 것도 어릴 적 내린천을 건너며 손 흔들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유년의 뜰을 흐르던 내린천은 내 삶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

삶은 흐름이다. 흐름의 후반부에 와있는 지금 내린천이 고맙고, 그립다. 이제는 내린천을 자주 찾아야겠다. 천천히 차를 몰며 친구인 듯 대화를 나눌 것이다. 어린 시절의 그 강변에서 유년의 추억을 어루만질 것이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천천히 내린천 강변을 걸을 것이다. 내 유년의 뜰에 흐르던 내린천을 내 노년의 뜰에도 흐르게 할 것이다.

차상

느티나무 당신

허은숙

까마득한 내 유년의 뜰
아득한 그 끝으로 달음박질쳐 가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키 큰 나무 한그루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앵두나무도 아니면서
언제나 동네 꼬맹이들 열매처럼 주렁주렁
밑둥에 매달고서 가만가만 굽어보던,

어린 나도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가만히 다가가 기대어 있으면
토닥토닥
바람의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주곤 했지

세월 지나 내 나이
겹겹 느티나무 띠를 두르고도 남지만
아직도 종종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렁그렁 젖은 눈매로 두리번거리면
어느새 내 앞에 우뚝, 유년의 뜰을 거슬러 온 당신

평생지기, 당신이라는 느티나무

차상

내가 된 계절들

임윤지

할머니 댁에서 눈을 뜰 때면
쏟아지던 물소리와 밤나무 잎을 흔들던 바람소리
부모님의 품에 안겨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던 내가 있었다

윤슬이 알알이 빛나는
투명하고 맑은 강물 속에는
항상 계절이 몸을 담그고 있었다

봄에는 개구리 알이 돌 틈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여름에는 덜 익은 돌배가 태풍에 떨어져 굴러다니고 있었다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그며 따뜻한 볕에 눈을 찡긋거리기도 했다

아빠는 종종 내게 계절을 선물하곤 했다
가을이 지난 무렵에 물살에 떠밀려온 가래나무 열매에게는
풍랑을 만나도 변치 않는 단단한 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겨울이 되면 얼굴이 발갛게 얼어붙도록
눈밭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얼어붙은 강물 아래를 살피곤 했다
눈 오는 밤은 고요해서 사근사근 눈 내리는 소리,
추위를 견디는 생명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눈이 녹으면 언니와 나는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달렸고

뒤집어 신은 신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종종 넘어지곤 했다

터져 나오는 울음에도 웃음이 나와
끅끅거리던 우스꽝스러운 얼굴 맞은편에는
나를 달래던 앳된 언니와 어린 마음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자라나고 있었다
가래나무 열매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길가의 들풀처럼 제멋대로 강인하고 애틋하게

들꽃, 여름의 낙조, 서리, 차가운 흙냄새 · · ·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작고 수수한 것을 꾸밈없이 예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서
아빠가 내게 쥐어 준 계절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계절이 지나도 변치 않을 단단한 내가 되어 숨 쉬고 있었다.

차상

유년의 뜰

김경애

어린 시절 철없이 뛰어놀고 자란 고향은 언제나 그리운 곳이다. 나의 작은 꿈을 키우며 근심 걱정 없었던 그곳. 나는 꿈을 꾸어도 늘 고향의 꿈을 꾼다. 은빛 물결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에 빨래를 하고 방천뚝에서 봄 햇살을 받고 뾰족이 얼굴 내민 나물을 캔다. 고만고만한 어린 동생들이 많아 하루만 지나도 빨래는 산더미 같이 쌓이고 많은 식구들의 끼니를 때우려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맏딸인 나에게 늘 벅찬 일을 시켰던 것 같다.

나의 등에는 언제나 동생 하나가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다. 허술한 기저귀에서 스며 나온 오줌이 내 등을 적시고 옷은 오줌에 절었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엄마가 동생에게 젖을 물리면 나는 붙잡혔던 잠자리 날아가듯 잽싸게 빠져나가 온 동네를 한 바퀴 휘돌아 온갖 소식을 물어오고 짬짬이 잔심부름을 하는 통에 엄마와 나는 매일을 콩 볶듯 살아왔다.

칠 남매를 둔 가난한 아버지와 엄마의 그 고달픔이 오죽했을까.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해도 늘 먹을 땟거리가 부족했고 옷은 남루했다. 거기에다 우리들 공부까지 시켰으니 두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때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내 젊음을 되돌려 준다 해도 싫다고 하고 싶다.

오랜 세월이 지나 내가 그때의 부모님 나이가 되고 보니 부쩍 부모님 생각과 고향이 그리워진다. 옛날의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딸이 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은근슬쩍 내 마음을 비쳤더니 금방 알아차리고 "엄마 또 고향이 가고 싶구나." 말 떨어진지 일주일도 안되어 싹싹한 사위를 부추겨 하루 날 잡아 고향길에 올랐다. 길도 좋고 늦가을의 정취도 좋아 마냥 즐거웠다. 옛날에 아이 셋을 데리고 첫 새벽에 친정길에 나서면 차편도, 길도 좋지 않아 아이는 지쳐서 울고, 멀리 시집가면 친정 오기 힘들다던 엄마 생각에 나도 울었다. 그토록 멀기만 했던 그 길이 오늘은 한 나절 만에 도착했다.

고향은 이제 옛날의 고향이 아니다. 길이 달라졌고 집들도 변했다. 산천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낯선 이방인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내가 태어나서 다녔던 교회에도 가보고 어린 걸음으로 타박타박 걸어서 다녔던 멀기만 했던 학교에도 가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던 옛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이 깔끔하게 변했다. 옛날 우리들이 국화꽃과 나팔꽃을 심었던 화단에는 잘 손질된 정원수가 가지런히 심겨져 보기에 좋았다. 나는 사위에게 부탁해 기념사진을 한 방 찍고 다시 옛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옛날 오일장이 섯던 곳에 아담한 노인정이 세워졌다. 잠시 올라가 휴식을 취하며 친정 동생이 사업 실패로 날려버린 옛 친정집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새로 지은 양옥집이 낯설게 서 있었다.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뀌며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집이였는데, 지금은 남의 집이 되었구나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집 뒤쪽에 커다란 감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다. 높은 가지 끝에 몇 알 대롱대롱 매달린 감이 나의 옛 추억을 일깨워 준다.

첫 아이를 낳고 젖앓이를 한 친정 엄마는 한 쪽 젖이 말라붙고 한 쪽 젖으로만 아이 일곱을 키우느라 숱한 고생을 하셨다. 생쌀을 불려 절구에 이겨 미음을 쑤고 고무 젖줄로 동생들에게 먹이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 씩이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

늦가을 감나무에 감이 익으면 엄마는 반가워서 보물처럼 하나하나 빈 독에다 넣고 갈무리 했다가 홍시가 되면 동생들에게 하나씩 젖 보충으로 먹이고 똥도 예쁘게 싼다며 흐뭇해하시던 모습이 새삼 기억에 새롭다. 마땅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우리는 엄마 몰래 그 귀한 홍시 한 개를 훔쳐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저 감나무는 대체 몇 년을 사는 걸까? 지금도 열매를 달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다.

나의 추억 이야기를 들으며 사위와 딸은 나중에 엄마에게 상품 감 한 상자를 사드릴테니 홍시가 되면 두고두고 꺼내 드시라고 농담을 한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내 유년의 뜰에 서서 깊은 추억에 잠겨 본다. 행복이란 이런 걸까...

차상

가을 소묘

최옥경

달빛이 잔치를 벌여 환하다 못해 눈이 부신 가을밤, 잠들지 못하고 졸고 있던 단풍나무, 은행나무가 눈을 비비며 다시 기지개를 켠다. 은빛 휘장을 두른 무대에서 화려하게 돌아가는 춤의 향연은 아침이면 햇살아래서 부끄러움에 더 붉게, 더 노랗게 물이 들것이다. 그들의 잔치를 몰래 엿보며 나도 한패거리가 되어 흠뻑 취해 본다.

우리는 벗들이 가버렸어도 여전히 들뜨고 풍요로운 밤을 보냈다. 새벽녘 붉은 미명에 저마다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며 말간 눈을 끔벅거린다. 황무지 같은 마당에 매발톱 꽃씨를 잔뜩 뿌렸다. 올 봄에 이파리가 무성하게 올라와서 예쁘기로 소문난 그 자태를 맘껏 즐기리라,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좀처럼 꽃은 피지 않고 굵고 커다란 잎들로 풀처럼 무성하게 공간을 채우기만 했다.

어느 날, 엉뚱한 가느다란 줄기에서 보라색 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여리고 고운 모습에 금방 정분이 나버렸다. 곁을 오래 지킬 수 없는 짧은 인연임을 알기에 사진에만 소중히 담아 두었다. 아이들이 기숙사로 떠난 후 마음 둘 곳을 찾다가 꽃들을 벗 삼았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 온 지난날이 꽃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한 평생 예쁘기 만한 고것들에게 시기 어린 눈빛도 던져 보곤 했다.

그네들은 님 인양 지치지도 않고 받아 준다. 길고 지루한 나의 얘기를 털어 놓을 때마다 분홍 손으로, 노란 손으로 어깨를 토닥거린다.

양귀비의 고개 숙인 봉우리에서 강렬하고 화려한 색이 솟아올랐던 날들이 저만치 물러가고 마당구석을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들로 제법 요란한 날들이 왔다. 일거리로 넘쳐나던 정원은 선물로 휴식을 한보따리 내어 놓는다. 몸 안에서 똬리를 틀고 괴롭혔던 부질없던 과거들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 버린 것은 익어 가는 가을의 힘이리라.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서른의 새댁은 돈을 벌어야 했다.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녀시절 높았던 콧대는 결혼하자마자 주저앉히고, 큰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에 긍정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 했다. 도전 정신까지 갖추어 가진 것에 비해 용감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기는 했지만 취업과 창업을 오가며 삶의 전쟁터에서 선봉장이 되어 갔다. 그만두고 망하기도 하면서 '생활력 강한 여자'로 칭찬 아닌 칭찬을 들을 때마다 왠지 씁쓸했다. 속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소릴 듣고 싶었지만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아직까지도 '생활력 강한 여자'로 통한다.

하던 일이 아이들 학원비 정도 벌기 시작 했을 때 또 다른 사업이 눈에 띄었다. 긍정적 사고와 대출의 힘, 아버님의 땅을 빌어 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강릉에 펜션이 몇 개 없던 시절이라 거의 매일 예약 완료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독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호황을 누리는 것도 잠시, 세상은 돈 냄새를 어찌나 잘 맡는지 건물이 올라가면 대부분 펜션이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조식으로 만둣국, 야식으로 부침개, 철철이 양미리. 고구마를 손님들 밥상에 올려 주면서 에너지를 불태웠다. 사업을 조금 확장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펜션에 사람을 고용하면서부터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다. 급하게 사람을 찾던 어느 날 눈이 큰 시골 아저씨가 사람 좋은 웃음을 하고 일을 해보시겠다 한다. 그 웃음이 사천왕의 미소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 많은 어머니들 말씀처럼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는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서야 떠나갔다.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 정 많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 가셨다. 아버님의 병환조차도 거짓말이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는 끝내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다. 그는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어릴 적 놀이 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라고 한쪽 편이 부르면

‘ㅇㅇ잡으러(찾으러) 왔단다 왔단다.’라고 대답하는 놀이가 있었다. 필시 그 사람은 나를 잡으러 우리 집에 온 것이었다. 몸과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일을 내려놓고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들춰내지 않고 묻어 두었던 민낯들을 꺼내 보기 시작했다. 마음 속 깊숙이 역한 냄새가 올라 왔다. 몸과 마음이 썩어가고 있었나 보다. 썩은 낙엽은 비질이 어려워 쉽게 쓸어버리지도 못하지만 버리지 않고 잘 썩히면 예쁜 꽃과 열매를 맺어 준다. 나의 썩은 부분도 모른 척 쓸어버리기 보다는 자양분이 되어 좋은 향기가 나게 하고 싶었다.

돈을 벌고자 달리던 길에서 넘어졌을 때, 나 혼자 다쳤을까! 옆에 함께 가던 사람들도 같이 다쳤을 텐데, 보듬어주고 치료해주지 못하면서 혼자 일어나 달리기만 했었던 것이었다. 몸에 병이 생겨 장기 하나 떼어 낼 동안 가족과 동료들은 무엇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자존감은 바닥에서 뒹굴고 주고받은 상처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덧나기를 반복했다.

그 무렵 남편까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회사와 집안 일로 지친 데다가 상사에게 시달림까지 받아 스트레스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내겐 믿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남편은 ‘처음처럼(소주)’만 계셨다. ‘처음처럼’은 남편을 처음처럼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래된 시골집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남편이 태어난 그곳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늙어 가고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에는 살다간 이들의 고락과 번뇌만큼이나 먼지와 풀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수양하는 마음으로 목수 한 분과 함께 천정을 뜯고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면서 집을 고쳤다. 유난히도 비가 자주 내렸던 그 여름에 풀이 산이 되도록 뽑다 보면 땀이랑 빗물이랑 사이좋게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먼지가 날아가고 풀밭이 사라졌다. 잡히지 않는 것을 움켜쥐고자 했던 날들도 먼지 속에 날려 보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어수선하게 굴러다니던 돌무더기와 잡초들이 넘쳐나던 앞마당에 태양이 아침을 열어주면 꽃들이 수다를 떨고 모든 것들

이 잠든 밤이면 수양버드나무 가지에 걸린 별들이 꼬리를 흔들며 살랑거린다. 이기심으로 고달팠던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분에 넘치는 공간이었다. 숨을 쉴 수 있으면서 숨을 쉬지 않았던 시간에서 조금씩 깨어났다.

어느 날 아침에 찬 기운이 분주했던 봄, 여름을 밀어내고 차분해진 공기들이 마당을 채워 놓았다. 서서히 변해가는 오색 빛 앞산을 바라보며 가을걷이도 미루고 한참을 가을 햇빛 아래 서성거렸다. 누구나 이야기 한 소절 품지 않은 이가 없다.

봄, 여름을 살아낸 꽃들과 무기력한 나의 심신은 피가 마르는 순간들 속에서 후회와 반성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걸었지만 우리는 함께 움이 나고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늦가을 서리가 내린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산기슭의 연보라 들국화는 물 한번 주지 않는데도 긴 가을을 목마르다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예쁘게 재잘거린다. 어지럽게 올라오던 잡초들에 짓밟혀 피지 못한 꽃들 몫까지 살아내며 새벽 찬바람과 깊은 어둠속에서도 꿋꿋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다. 나도 들국화가 되어 찬 서리와 모진 바람에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을 햇살이 놀다간 툇마루에 앉아 비어 가는 꽃밭을 바라본다. 수다 떨어줄 꽃들도 떠나버린 뒤라 발만 동동거린다. 멀리서 친구하러 와준 흰 구름을 보고서야 서운한 마음 산 너머로 흘려보낸다. 퇴근길에 남편이 건네주는 미소가 잡초들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피져나가는 메리골드마냥 마당 가득 환하다.

차하

유년의 뜰

임창선

마을 어귀 느티나무는
어제처럼 기다리는 것이다
학교 수업 끝나고
지나는 길에 땀을 식히러
들리는 그 아이들을

흘러버린 세월 속 느티나무는
오늘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다
옆집 앞집 모두 불러 들여
살아가는 이야기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소소한 재미들을

늙은 느티나무는
내일을 기다리듯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요양원에 간 키다리 할머니
영영 못 올 곳으로 떠난 할머니 친구
행여 오려나? 밤잠 뒤척이며 꾸는 꿈들을

차하

장날

배관순

엄마의 따스한 손 꼬옥 잡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멋지다
고개를 내밀며 뽐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며
이리보고 저리보고
나의 눈동자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시끌벅적 두 귀가 쫑긋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
가족 같은 정겨움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엄마는 이것저것 양손 가득히 들고
따스한 국수를 먹자고 합니다.
후루룩 후루룩
엄마와 함께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란히 앉아 얼굴 마주보며 웃어주는
그 눈이 온기로 가득 전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굴뚝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강아지는 꼬리치며 멍 멍 멍
반갑다고 달려옵니다.
장날은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차하

유년의 뜰

박청미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늘 별 아래
우주를 그린다

분홍 꽃밭
가로질러

이상한 나라
토끼따라

온화한 날개 품속
오수를 꿈꾸며

무지개 빛
현음 귓가에

향기로운 장미향
아련한 기억

시계를 휙 감는
생각의 바다.

차하

가을 소묘

박돈녀

햇살을 안고 멍석에 누운 붉은 고추가 마당 한 모퉁이를 환하게 밝힌다. 호박꼬지 무말랭이가 말갛게 말라간다. 텃밭 고구마가 붉게 익어가고 한껏 몸집을 키운 멍석호박이 담장에서 내려오려고 몸태질을 해 들여놓았다.

농사지은 들깨를 달아보니 두 말이 족히 되었다. 따져보면 두말이라야 아무것도 아니다 한 말은 품값으로 나가고 겨우 한말 수확이지만 기분은 좋다. 작년만 해도 다섯 말은 했는데 잦은 비에 그리되었으니...그래서 농사는 투기사업 이라고들 하지 않았나. 그러려니 하고 농사를 짓는다.

올해는 잦은 비로 모든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감당키 어렵도록 쏟아지는 비를 속수무책으로 바라 봐야만 했던 나날들. 비가 그치고 나더니 요즘에는 이제 비가오지 않아 배추, 무가 흉작이다. 배추, 무값이 폭등해 소비자들의 애를 태웠다. 요즘 날씨는 삼한사온 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해 밭에 심어 놓은 마늘 싹이 벌써 손가락 길이만큼 훌쩍 커 버렸다. 그 위에 비닐을 덮어야하는데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내년에는 기후 변화가 더 심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농사꾼이 그렇다고 농사 시작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쨌든 투기를 또 해볼 작정이다. 생각해보면 지난여름 장마에 얼마나 많은 농사꾼들이 피해를 보았는가. 과수농사, 논농사, 밭농사, 농사 뿐만도 아니라 가옥과 인명 피해 등 여름은 많은 상처를 남겼다

설상가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19'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혼돈에 빠트려 각 나라마다 숫자를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사망자가 늘어나 눈물로 출렁인다.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입막음으로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그라졌다가는 다시 치솟는 확진 자의 숫자를 알리는 뉴스에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세상이 왜 이러는지 앞날이 너무 무섭다.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삶이 버거워 절망과 좌절에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생계를 해결해야하는 국가의 경제문제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 많은 이슈들이 정치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온난화라는 엄청난 재난도 인간이라는 우리 스스로가 저질러 놓은 업보(業報)인 것을 수수방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파괴된 삶의 질서를 추스려 환경문제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한 계절이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 왔지만 허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아름답던 단풍, 우거진 숲들도 제 색을 못 내고 그냥 우수수 몸을 털었다. 설렘으로 다가와야 할 빛 고운 단풍의 계절 가을이면 감성에 젖은 소녀처럼 가을을 노래하는 이 촌로의 가슴 한 구석이 쓸쓸하다. 무성하던 풀벌레마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떨어져 누운 나뭇잎들은 모진 바람에 이곳저곳을 뒹굴며 흉물스럽게 부서진다.

여장군처럼 키를 한껏 키운 백일홍이 여러 새끼를 부둥켜안고 밤새 내린 찬 서리에 목을 놓는다. 올 때는 벅차게 왔다가 갈 때는 저리 쓸쓸히 가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러 하려니...

절뚝이며 떠나는 이 가을을 섭섭지 않게 배웅하고 굳은 바위처럼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나간 날의 눈부시도록 황홀했던 가을을 회상하며 창가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 한잔으로 마음을 데운다.

차하

어느 가을날에 일어난 마법

정애정

5시 50분.

10분 뒤면 퇴근인데 머리가 지끈거렸다.

'조금 더 걸을 생각으로 집과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할까? 아니야, 짐이 있는데……. '

매일 출근길과 퇴근길에 겪고 있는 이 고민 아닌 고민은 이제 나를 지치게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단독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바로 옆에 향교와 공원이 있어 옛 돌담과 기와풍의 집, 커다란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제법 운치있는 곳이다. 우리 가족은 강아지 두 마리와 달빛을 조명삼아 산책을 즐기는데 그 역시도 돌아 돌아서 가야할 상황에 놓였다.

그 시작은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입구에 작은 쓰레기더미가 생기고 난 후부터였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용기에, 소각과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각각의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음식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버리는 사람이 생겨났고 청소차가 수거해 가지 않으면서 그곳은 공원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용기와 도시락 등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곳이 됐다. 그러다 보니 향교 주변에서 가장 지저분한 골목이라는 불명예스런 이름도 얻게 되었다. 더구나 주택 골목의 특성상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집거나 헤쳐 놓는 경우가 있어 어떤 날은 향교 주차장까지 쓰레기가 침범을 하곤 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몇 번을 직접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치웠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다음날이면 버젓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 이상 치워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쓰레기더미를 외면했다. 그리고는 집과 먼 주차장을 이용해 다른 골목길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려는데 그 쓰레기더미에서 누군가 삽을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다가가 말을 걸었고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는 앞집에 사시는 분으로 나처럼 몇 번을 혼자서 청소를 해 오셨다고 했다. 우리는 약간의 투덜거림과 함께 의기투합이 되어 썩을대로 썩어 오물이 되어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그릇과 플라스틱, 먹다버린 치킨 용기 들을 배출 봉투에 담아 큰 도로변에 내다 놓았다. 수거해 가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뿔싸! 다음날 아침 도로변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우리가 갖다 놓은 쓰레기를 다시 골목으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이웃집 아주머니와 나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이장님과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다. 그 후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3개월 전,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으로 마음이 아픈 한 여자가 이사를 왔고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필요성을 못 느낀 그녀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장님과 주민센터 직원, 앞집 아주머니, 그리고 지나가다 합세하신 할머니 두 분까지... 뜻하지 않게 마을 회의급 만남을 갖게 된 우리는 이장님이 정기적으로 그 여자 집을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골목 사람들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람들은 낯선 그녀의 등장에 경계심을 품고 소곤거리거나 힐끗힐끗 보기만 할 뿐이었다. 나 역시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왠지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아는 척하기보다는 먼저 피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었다. 다행히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쓰레기는 말끔히 치워졌다. 그리고 퇴근이 늦은 어느 날,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늘 늦은 시간, 기댈 곳 없는 주차장에서 멍하니 서 있고는 했다. 마침 장바구니 안에는 감이 들어있었다.

"안녕하세요? 감 좀 드릴까요?"

"제가 감을 안 좋아해서..."

"아 홍시 말고 단감도 있어요. 단감도 안 드세요?"

"단감은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녀와의 짧은 만남이 있고 얼마 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

화를 받았다. 마음이 아픈 그녀가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아이와 홀로서기를 시작했다고, 그리고 골목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 둘 그녀와 인사를 하고 짧게나마 대화를 하면서 조금은 친해졌고, 그러자 덩달아 골목길도 깨끗해졌다.

나는 골목 사람들이 서로가 친해지고 약간의 이해가 있었을 뿐인데 골목이 깨끗해졌다는 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고민과 짜증도 사라지고 그 골목 앞을 지날 때마다 내 얼굴에도, 우리 골목 안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개의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치우려고 나가면 벌써 누군가가 말끔하게 치워놓는 마법도 일어났다.

나는 분식을 좋아한다. 김밥과 빨강 오뎅, 김말이 튀김도. 왠지 나를 비롯해 골목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에 단골손님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은 나 혼자만의 행복한 착각일까?

차하

유년의 뜰

이진여

천둥벌거숭이 시절, 산 깊은 골의 양철 지붕 뒤에서 저녁연기를 피워 올리던 굴뚝이 있었다. 삼시세끼 보리밥을 안치시던 어머니가 계신 곳.

> …저녁 답이면 어김없이 반질반질 윤기 나는 까만 무쇠 솥에 밥 지을 준비를 하신다. 우물 위에 매달아 놓은 성근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거무스름한 삶은 보리를 덜어내어 무쇠 솥 바닥에 다독다독 펴신다. 그 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잡수실 쌀 한 움큼 올려놓으시고 손등으로 물 맞추시던 어머니. 바짝 마른 잔솔가지에 불을 지피시는데 성냥을 그어 일어난 불씨가 화르륵 옮겨 붙는다. 여덟八자 모양 얼기설기 포개 얹은 장작으로 해오름 같은 불꽃이 번져가며 아궁이 속을 채운다. 그 사이에도 쉴새없이 국이며 무침이며 맛깔스런 반찬들을 마술처럼 뚝딱 만들어 내시던 어머니. 장작불이 타다닥타다닥 사위어 갈 때 쯤 끄트머리 맨 뒤쪽에 있는 부넘기에 군불로 밀어 넣는다.
>
> – 이진여 수필「유년의 뜰」중에서

남은 알불로 뜸을 들인 다음 묵직한 가마솥 뚜껑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밀어서 열면 한꺼번에 올라오는 구름 같은 김이 부엌을 메우고 온 집안으로 퍼져나간다. 고슬고슬한 쌀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상으로 오르고 할머니를 포함한 전 가족은 거의 꽁보리밥을 먹었는데 입맛이 까다로운 나를 위해 할아버지께서 쌀밥을 꼭 남겨서 주시곤 했다.

여름이면 마당에 호롱불을 밝히고 산더미같이 타작해 놓은 보리를 키에 담아 검불을 날리는 어머니의 고단함에 어둠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무를 나박나박 썰어서 넣고 끓인 맛깔스런 닭국을 먹으며 온몸에 땀과 함께 범벅이 된 보리 꺼시레기를 떼어내느라 덩달아 분주했던 우리들… 일꾼들을 위해 준비한 어머니의 특별 식에 호사를 누리는 날이었다.

보릿고개를 넘긴 어른들은 쌓이는 보릿자루에 흐뭇했을 것인데, 할아버지의 쌀밥을 흘깃거리다 보리밥이 싫다며 투정부리던 아이들은 이제 반백을 넘긴지 오래다.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각종 성인병이 침범한 몸으로 건강에 좋은 별미라며 그 시절 음식을 찾아다닌다.

그 따습고 뭉근한 밥 냄새의 충만함, 뚜껑과 몸통이 늘 반질거렸던 새까만 무쇠 솥도 모두 스러져간다. 부엌의 수호신처럼 의젓하게 앉아 있던 가마솥보다 내가 먼저 고향을 떠나왔다. 집을 지으면서 아궁이를 만들고 가마솥을 걸었지만 관리가 쉽지 않다. 군데군데 녹도 잘 슬고 그때처럼 윤기가 나지 않는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내가 부지런하지 않은 탓이다.

쌀은 넘쳐나서 소비를 권하는 광고가 등장하고 밥이 다 되었다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친절한 전기밥솥이 알아서 척척 대신해 준다. 버튼을 누르면 잘 차려진 밥상이 안방까지 들어오지만 길거리는 늘 허기진 사람들로 붐빈다. 그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한 끼 밥이 아니라 따스하고 둥근 고향의 채취와 아무 조건 없이 반겨줄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인지도 모르겠다.

장려

오미자 인생길

김은애

새하얀 옥수수 꽃이 나부끼고
푸르른 향기의 곰취는 나를 유혹하네.

구수한 보리차 집의 오징어 튀김은 바다를 그리워하고
한껏 광을 낸 호미는 옆집할머니가 손잡아 주기만을 기다린다.

단풍보다 곱게 물든 엄마의 몸빼 바지는
오미자 같은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추위로 얼어버린 아빠의 털고무신은
막걸리 한 잔으로 돌아온 냉기를 잊어보려 한다.

고달픈 인생바람을 따라 걷다보니
따스한 볕이 머무는 이곳이 좋구나.
인제, 이곳에서 우리 쉬어가자.

장려

가을 소묘

노혜숙

가을이 수상하다
구름은 수제비처럼 떠다니고
강물은 돌멩이에 맞은 것처럼 퍼렇다
산도 하늘도 모두 제 색깔이 아니다
국화는 세수도 안했고
칸나 깃은 풀이 죽었다
담쟁이는 머리빗이 들어가지도 않게 엉켜있고
면도 안 한 갈대는 고개만 갸우뚱거린다
단풍소녀의 치맛자락은
색이 다 바랬다

가을 이발소는
그냥 두는 것이 더 예쁘다한다
바닥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수근 거려도
가을만큼은 괜찮다 한다

바람과
햇볕에
목숨거는
그들만의
세상
가을, 현란한 춤이다

장려

장 날

함경선

옥양목 한복 바지 잡고
골목을 나선 날이다.

나뭇단, 강아지, 먹거리, 옷
북적이는 난전 속
눈에 들어온 원피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지를 당겼다.

"엄마랑 사라." 하신다.
다리를 굴리며 뒹굴었더니
내 손에 들려주셨다.

막걸리 안주로 뱀장어 꼬리 흔들어 댄다.
염소 숯불고기도 보인다.
반나절 약장수 춘향전에 눈물 훌쩍이고
해 저물 때 양손에 잡다한 것 들고
집을 찾는다.

엄마는 "이게 다 뭐꼬?" 한다.

둘은 말이 없다.

바지 잡은 손
지금도 온기가 있다.

장려

유년의 뜰

고은조

마음 한켠 담아 둔
펀린 조각들
열고서 닦아 채반 위 놓으니
반짝이는 은갈치 비늘 마냥
파다닥 살아나네

따스하게 스며드는 햇볕 아래
펼쳐 보이고
웃음 피우고
눈물 머금고
차마
안타까움 저미네

행성에 불시착하듯
메마르고 황량한 대지 위에
불 지펴
생명 넣는 몸짓
희망으로 새날 열건만

그리워라
고향집 토방 아래
꽁돌놀이* 어린 시절
그리움 회한 점점이
낙서장 채우네.

* 꽁돌: 전라남도 방언(작은돌)

장려

비 오는 날의 추억

홍희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인데요. 집에 계세요.?"
"그럼 갈데가 있나, 집에 있어야지. 언제왔니.?"
"어제 왔어요. 오랜만에 선생님 뵙고 가려구요."
"오전 중에 일찍 오너라. 얼굴보고 점심 먹자."
30년 전 중하학생이었던 제자가 오겠다고 한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빨간 마이도 차려 입었다. 유진이를 기다리는 사이, 유진이화 캠핑갔던 일이 눈앞에 떠오른다.

"애들아 내일은 우리학원 중고등부 솔밭으로 야영을 가기로 했으니 조별로 준비물을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나의 소리에 아이들은 모두 함성을 지른다.
"너랑 나랑 우리 조 모두 모여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삼삼오오 준비물을 정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아이들은 올해는 야영을 어디로 가요? 언제가요? 기다리고 기다려 왔다.
다음날 아침 학원차와 아빠차들을 이용하여 내린천 길을 거슬러 상류 서리 솔밭에 도착했다.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고 점심은 라면으로 한다며 모두들 강물에 뛰어 들었다. 한참 물놀이를 하고 각자의 텐트로 돌아오던 중
"선생님!"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아이가 모래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걷지를 못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원통에 있는 한림의원으로 향했다. 의사선생님이 다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아이가 안 아프다는 것이다. 대퇴골이 빠졌는데 지금 맞추었으니 당분간은 조심하라고 한다.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하고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선생님, 저 야영장을 갈꺼예요."

기필코 야영장으로 간다고 하여 데리고 갔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걱정스러워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는 봇물에서 낚시를 하거나 모래밭에서 배구놀이와 줄다리기를 하였다. 한창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수찬이 아빠가 오셨어요."

수찬이가 학원에 다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뵌적이 없는 아빠가 커다란 수박을 두 통이나 들고 오셨다. 아이들은 모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수찬이는 부끄러워 몸을 비비 꼬기만 한다.

"다섯 시부터 저녁 준비해서 먹고 어두워지면 담력 훈련과 불꽃놀이를 한다."

각자 텐트로 돌아간 아이들은 저녁준비에 한창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삼겹살과 송이구이, 돼지고기 김치볶음에 고비나물, 표고버섯에 무장아치 등등 학원일로 매일 바쁘기만 했던 나는 라면, 3분 짜장, 3분 미트볼, 삼겹살을 준비하였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인제의 맛난 음식을 골고루 준비해 왔다. 그날 나는 인제산 송이를 처음 맛 보았다.

"송이 향이 장난 아니네 ~~ 진짜 맛있다."

"누가 따왔어.?"

"우리 아빠가 많이 따요."

인제가 이렇게 좋은 지역인데 나는 아직 좋은걸 모르고 지내고 있었구나.

"모두 모여 보자. 지금부터 담력 훈련과 불꽃놀이를 한다."

고2 남자 아아들과 선생님들을 불러 왕복 3KM 숲길 곳곳에 숨어서 아이들이 가면 소리를 지르거나 랜턴으로 불빛을 비춰 놀라게 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남은 아이들이 모이고 담력훈련을 시작했다.

300M 정도에서 큰 소리에 놀라 모두 주춤하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가자고 하니 숲속에서 랜턴으로 얼굴을 비추고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나타나니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났다. 겨우겨우 추슬러 아이들과 불꽃을 피우고 짝짓기 게임, 조별 장기자랑을 하고 각자 촛불을 들고 어머님 은혜 영상을 틀어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

었다.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 수박을 한 쟁반씩 들고 각자의 텐트에 돌아가 취침을 하였다.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보니 밤새 내린 비로 물이 많이 불어나고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었다. 남편은 텐트마다 빗길을 내느라 밤을 새웠다고 한다. 부지런히 아침을 챙겨 먹고 텐트를 정리하였다. 비가 와서 철수하고 집으로 가야 하겠다고 하니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

"엄마, 선생님 바꿔 드릴께요."

"선생님 아이한테 들었는데 우리집으로 오셔도 되요."

고사리분교에 사는 친구가 학교를 이용해도 되니 이동해서 축구도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때까지 놀고 가자고 한다. 다행히 비는 멈추고 햇살이 있어 고사리 분교로 이동하였다. 조별로 큰 교실을 하나씩 배정해 놓으니 자기들 세상이다. 축구도 필요 없고 교실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점심도 역시 화려한 인제산 음식들로 차려졌고 하하호호, 교실이 떠나갈 듯 했다.

"선생님, 우리 딸 많이 컸지요?"

오랜만에 찾아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준 유진이가 더없이 반갑고 고마웠다.

장려

오일장 할머니와 나물

전선옥

영월은 오일장이 매월 4일, 9일 열린다. 가끔 오일장을 찾아 싱싱한 채소 등을 구입하곤 했는데 오늘은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 점심시간에 오일장을 가자고 하여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일장을 찾았다. 오일장에 가면 매번 먹는 어묵과 호떡! 금방 점심을 먹었지만 어묵, 호떡을 안 먹으면 오일장에 온 의미가 없지.

오일장 입구에서 호떡을 사서 한입 베어 물고 이 곳 저 곳을 둘러보면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찾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세 개 정도 되는 야채를 다듬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어! 아는 얼굴의 할머니였다. 너무 반가워 함께 간 여직원들을 먼저 가라고 보내고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한 눈에 알아보지 못 하시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아~ " 하시며 할머니도 아리송해 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알아보셨다

나는 "오늘 장에 오셨네요"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어 야채 조금 가지고 나왔어" 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가져온 야채를 보니, 초록색 상추, 알록달록한 상추(상추 종류를 몰라서)와 고추를 반으로서 잘라서 튀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한 개와, 참깨, 들깨 총 네 개가 내 눈에 띄었다. 나는 상추 두 종류와, 고추부각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것 두개를 골라서 "얼마예요?" 물었더니, 할머니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돈 안 받으면 안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 제서야 "팔천원 이야" 라고 하셨다. 나는 1만원을 주고 거스름돈 2천원을 돌려받고

"할머니 식사는 하신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왔어" 라고 하셨다. 나는 "많이 파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뒤를 돌아서 호떡을 파는 가게로 가서 호떡 두 개를 사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먼저 장

을 보던 사무실 여직원들을 만나 나머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내 눈에 눈시울이 붉어 졌다. 내가 할머니네 가족들을 안 것은 2~3년 전 내가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물어봐서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면소재지에서 생활하고 계셨고, 나이는 80세가 넘으셨으나, 늘 오일장을 빼놓지 않고 다니시는 할머니라는 소문을 들었다.

몇 년 전에는 인간극장에도 나오셨는데, 방송 후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할머니 가족들을 힘들게 하여 더 이상은 동네에서도 할머니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방송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내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할머니 내외분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남 본 결과 부지런함은 덤이요, 검소하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다.

작년 여름 폭염특보가 내려 경로당 냉방 등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도로변 밭 한가운데 두 분이 모자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려 알아보니 할머니 내외분이 야채밭에 풀을 뽑고 계시는 것 이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땀이 뻘뻘 나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인데도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 내외분에게 다가가 "할머니 이렇게 더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얼른 들어가셨다가 이따 저녁 때 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아니 괜찮아! 밭에 풀이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물이라도 자주 드시고 하세요 " 라고 하였더니, "고마워" 라고 하셨다. 나는 가까운 마트에서 시원한 물 2통을 사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서 저녁 때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 후 2개월 정도 지난 후,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웃 주민에게 듣게 되었다. 할머니 내외분처럼 열심히 사시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 종종 할머니 내외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할머

니 내외분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아들이 사망하면서 사업 부도로 할머니 내외분이 사는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면사무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기탁하신 분이 계셔서 마을 이장님께 어려운 분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 할머니 내외분을 마을 이장님께서 추천 해 주셨다. 늘 열심히 사시는 두 분이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않아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는데, 둘째 아들의 사망과 사업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다는 이장님의 추천 이유였다.

여러 가지 검토를 걸친 후, 할머니 내외분에게 적은 성금이 전달되었다. 할머니 내외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다. 그 날 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여의셔서 너무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다. 자식 죽음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새삼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찾아 왔고 긴 겨울 땅속에 있던 향긋한 냉이와 달래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면 늘 냉이와 달래를 캐서 오일장에 내다 팔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곤 했어요.

봄에는 특히 나물 종류가 많아 오일 동안 꾸준히 나물 등을 캐서 다듬고 씻어서 준비해 놨다가 오일장이 열리면 아침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셔서 오일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싱싱하고 맛있는 나물 등을 파시는 할머니!

그날 뵌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에 뵈었던 것 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고, 건강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삼겹살 구이와, 오일장에서 할머니가 가져온 싱싱한 상추로 쌈을 싸고 처음으로 튀겨본 고추튀각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였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오일장에서 만난 할머니 내외분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더니 가족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 내외분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일장에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마음으로 기원했다.

할머니 내외분이 늘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셔서 오일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싱싱하고 깔끔한 나물과 곡물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일장에서 오래오래 자주 만나요!.

장려

장 서는 날

박찬미

키가 작고 호기심이 많던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나의 생활반경은 이곳 신남이 전부였고, 또한 이곳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튀김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는 매일 3일과 8일만 되면 언니 손을 잡고 오일장으로 나갔다. 최근에는 핫도그, 야채 튀김, 번데기 같은 음식 장사를 각종 스포츠대회나 지역축제 때 가끔 볼 수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핫도그만 생각하면, 그리고 나의 3월 8일 생일을 생각하면, 날짜가 비슷한 신남의 오일장이 떠오른다.

신남의 작은 동네 중심가에는 3일과 8일마다 장이 섰다. 그럴 때면 나는 핫도그를 파는 그 주황색 천막이 장에 섰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이었다. "와, 오늘도 오셨네!" 가끔 안 보이실 때가 있는지라 그렇게 신남장에 장을 펴실 때면 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핫도그 하나 주세요." 무엇이 그리 신났는지 소세지가 들어간 700원짜리 핫도그를 손에 쥐면 내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고는 했다. 그리고는 "어떤 소스 뿌려줄까?"라며 여쭤보는 말씀에 설탕과 케찹을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늘 망설이던 기억이 있다. 또 처음엔 어린 눈에 흰색인 소금과 설탕이 비슷해 보여 아주머니께 핫도그 위에 소금을 뿌려달라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가끔은 적은 돈을 내고서 두 가지를 모두 뿌려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가끔은 케찹만 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더러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주머니께서 설탕도 같이 섞어야 더 맛있지 않겠냐며 투명한 통에 들어있는 설탕에 핫도그를 이리저리 돌려주시던 것이 또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모른다.

또 그렇게 내가 핫도그를 손에 쥐고 갈 때면 그 주변에 스티로폼 박스를 죽 나열해놓으시고는 얼음 한가득 담아 싱싱한 각종 어류를 판매하시던

아저씨가 기억이 난다. 검은 머리털에 흰 머리가 희끗희끗 보이시던, 늘 함박웃음을 지나가는 내게 인사를 건네주신 생선가게 아저씨. 생선을 손질하는 그 큰 칼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지만, 아저씨의 하회탈과 같은 인자한 미소는 나의 마음을 덩달아 춤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저씨께서는 동네 이모들이 생선을 사면은 엄청나게 나무 도마 위에서 생선을 툭툭 손질하고는 검은 봉지를 툭툭 떼어내 그 안에 담아주시고는 하셨다. 그 재빠른 손놀림이 어린 눈에 얼마나 신기해 보이던지.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던 나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취직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얼마 전 집에서 엄마의 요리를 도와주면서 동태의 가시를 손질하는데 문득 생선가게 아저씨 생각이 났다. 코끝에 찬바람이 닿는 초겨울, 생선 장수 아저씨와 주황색 부스 안에서 핫도그와 튀김을 판매하시던 아주머니를 떠올려 보았다. 지금 그 오일장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조그만 은색 동전 몇 개 가지고 나의 오물거리는 입에 만족을 주었던 때, 언니 손을 잡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같이 길을 걷던 때가 있기에 나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려

감자의 꿈

변경화

"엄마! 베란다에서 똥 냄새가 나"

딸아이가 부엌 옆에 딸린 베란다에서 소리를 쳤다. 그렇지 않아도 요사이 집안에서 쿰쿰한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애기 똥기저귀 같은 냄새가 나서, 락스로 변기랑 하수구 등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하고 방마다 있는 쓰레기통도 소독 물티슈로 뽀독뽀독 닦아가며 쓰레기통을 모두 비웠다. 그런데도 그 꾸리꾸리하고 쿰쿰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하수구 냄새가 역류하는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려는 참이었다.

딸아이의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가보니 정말 코끝을 강타하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냄새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란다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았다.

부엌 옆에 딸린 작고 기다란 베란다에는 쌀을 넣어 두는 파란색 통, 세제 등 잡동사니를 정리해 놓은 3단 칼라박스, 집안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 젖은 쓰레기나 기름기와 음식물 양념을 닦아낸 휴지나 키친 타올 등을 버리는 20리터짜리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통, 그리고 각종 종이류 · 깡통류 ·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쓰레기 더미와 이번 여름에 산 20kg짜리 감자 한 상자가 있었다.

부엌 옆 베란다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어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갈수록 약간의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기는 했다. 그렇지만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다든지, 다 찬 쓰레기통을 비우면 냄새는 사라져 버려서 지금처럼 이렇게 냄새가 심각하게 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청결을 목숨처럼 여기고 오와 열을 맞추어 각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내 성격상 청결이 생명인 부엌

옆에서 이런 똥냄새가 나다니…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베란다의 두 개의 쓰레기통은 소독 물티슈로 뽀독뽀독 닦아 비워두었기에 냄새의 범인은 아니었다. 파란색 쌀통도, 재활용 쓰레기 더미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맨 구석에 있던, 이번 여름에 산 감자 상자를 여는 순간, 삭은 똥냄새가 코끝에 확 와닿으면서 베란다에 쫙 퍼졌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먹다 남은 감자 열댓 개 중에 상자 밑에 깔린 감자 대여섯 개가 썩어서 짓물러가고 있었다. 온 집안을 쿰쿰한 냄새로 물들였던 범인은 바로 썩어가는 감자였다. 옆에서 보고 있던 딸아이가 코를 엄지와 검지로 틀어막으며

"아! 똥냄새, 더러워 웩."

하며 안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썩어가는 감자가 내심 아까워

"어휴, 아까워라. 진작 먹었어야 하는데…이를 어쩌나 어쩌나…"

비닐장갑을 끼고 썩은 감자를 골라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항상 마트에서 먹을 만큼만 네다섯 개 소량으로 구입해서 먹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지인 분이 감자 농사가 실하고 맛있게 잘 되었다고 하시기에 지인 분도 도울 겸, 겸사겸사 좀 과하다 싶게 20kg 한 상자를 떡하니 산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썩은 감자를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으면서 기억의 저 멀리에서 이 꾸리꾸리하고 쿰쿰한 냄새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뭐지, 이 익숙한 냄새는……?' 순간 내 입에서는 "할머니!" 하고 20여 년 전 돌아가신,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할머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여름, 감자꽃, 썩은 감자, 꾸리꾸리한 냄새, 항아리, 감자가루, 감자떡 등 아련한 추억 속의 단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니 방을 같이 썼다. 우리 집은 방 두 칸에 마루, 부엌이 있는 아주 조그만 산골집이었다. 방 두 칸 중 안방은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사랑방이라고 불리던 나머지 한 칸은 언니 두 명과 나, 할머니가 같이 방을 썼다.

여름이 되면 감자밭에는 감자꽃이 가득 피어났다. 하얀 감자꽃에는 하얀 감자가, 보라색 감자꽃에는 보라색 감자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시던 할머니. 감자밭에 감자꽃이 질 무렵이면 감자를 캐기 시작하였다. 여름 감자

는 쪄 먹으면 하얀 분이 뽀얗게 올려왔다. 특히 한여름 밤에 모깃불을 피워 놓고 마당에 둘러앉아 먹던 감자범벅은 지금 생각해도 입안에 침이 고인다. 감자의 고소함과 밀가루 반죽의 쫀독함이 어우러진 그 맛이란 정말 엄마의 손맛이고 고향의 맛이었다.

감자를 캐면 꼭 호미에 찍혀 상채기가 나는 감자들이 있었다. 실하고 둥글둥글한 감자에 상채기가 생기면 자식이 아픈 듯 안타까워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할머니는 이렇게 상채기가 생기고 쓸모없어진 감자들을 삼태기에 담아 자루에 따로 모아 두셨다. 그렇게 모은 감자가 커다란 배 불룩 항아리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모아지면 우물에서 감자를 빨간 고무다라에 넣고 '벅벅' 문질러 씻은 후 배 불룩 항아리에 채워 넣었다. 우물가에는 감자 항아리가 하나 둘 늘어 갔다. 그렇게 항아리가 늘어 가고 시간이 지나 갈수록 우물가에서는 꾸리꾸리한 냄새도 늘어갔다. 더불어 할머니의 몸에서도 쿰쿰하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날이 짙어져 갔다.

항아리에서 퍼지는 꾸리꾸리 쿰쿰한 감자 썩는 냄새는 집주변을 물들였다. 그러나 냄새가 독해질수록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짙게 번졌다. 항아리 속의 감자들이 썩어 삭으면 할머니는 그 썩은 감자를 커다란 체에 걸러 감자 껍질을 걸러내었다. 커다란 체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무틱틱한 물을 커다란 빨간 고무다라에 담아 놓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감자에서 나온 녹말이 물에 딱딱하게 가라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빨간 고무다라에 담긴 감자녹말의 물을 갈아 주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무틱틱하던 녹말이 하얗게 변하고 우물가에 진동하던 꾸리꾸리 쿰쿰한 냄새도 점점 옅어져 갔다. 그리고 할머니 몸에서 나던 꾸리꾸리 냄새도 기화하듯 서서히 사라져 갔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일 수차례…… 빨간 고무다라에는 하얗고 뽀얀 감자 녹말만 뽀도독 뽀도독 소리를 내며 가라 앉아 있는다. 그러면 할머니는 마당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누런 밀가루 포대를 깐 다음, 손으로 빨간 고무다라에 가라앉은 감자 녹말을 '뚝뚝' 건져내서 깔아놓은 밀가루 포대 위에 펴 말렸다. 뜨거운 여름 햇살은 물에 젖은 감자녹말을 보송보송한 감자

가루로 만들어 냈다.

그때 어린 나는 여름 내내 꾸리꾸리 쿰쿰한 냄새를 풍기는 할머니가 싫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는 할머니에게 투정도 부렸다. 똥냄새 난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유치 단순했던 것 같다. 그때의 어린 나에게 창피함과 반성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의 내 몫이며, 돌아가신 할머니께 미안함, 고마움, 그리운 마음이 애틋하게 생기는 건 세월의 몫이리라.

할머니가 고생고생 만드신 감자가루로 만들어 먹던 감자떡은 너무 맛있었다. '야들야들 말랑말랑 쫀독쫀독'.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그때 먹던 감자떡 맛을 40여 년이 지나고 사십 후반이 된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 기억 속의 맛은 추억의 맛이 되어 더욱 맛나게 뇌리에 아로새겨져, 이제껏 그때의 감자떡만큼 맛있는 감자떡을 먹어 보지 못했다. 더욱이 20여 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저 추억 속의 맛으로 아련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썩은 감자를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던 손을 멈추고, 나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안방으로 가 버린 딸아이를 불렀다.

"왜애!"

딸아이는 짜증 섞긴 목소리로 대답하며 부엌 옆 작은 베란다로 왔다. 나는 딸아이에게 썩은 감자를 보여주며, 엄마가 어릴 적, 그러니까 지금의 너처럼 엄마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엄마의 할머니께서는 이런 썩어가는 감자도 허투루 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정성과 노력으로 감자가루를 만들어 감자떡을 만들어 주셨노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딸아이는 감자가루가 이렇게 독한 냄새를 풍기는 썩은 감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과 간식거리로 맛나게 먹던 말랑말랑 쫀독쫀독한 감자떡이 그 감자가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그럼, 엄마도 이걸로 감자가루 만들거야."

하면서 딸아이가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긴 썩은 감자를 가리켰다.

"아…… 아니……."

나는 말끝을 흐렸다. '할머니처럼 그런 노력과 정성을 다할 끈기와 용기

도 없을뿐더러 다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감자를 썩히고 삭혀서 나는 꾸리꾸리 쿰쿰한 냄새를 어찌 감당하겠는가'라는 핑계와 변명을 생각하며 도리질했다.

썩은 감자가 든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모음통에 버리면서 마음이 체한 듯 무거워지는 건, 감자의 꿈을 내 손으로 좌절시켰다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리라. 음식물쓰레기 모음통에서 나는 시큼털털 쿰쿰한 냄새가 나의 온몸을 확 휘감았다. 내 온몸을 휘감은 그 냄새가 영영 나를 놓아 주지 않을 것만 같아 허공을 손으로 허이허이 휘저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또 쉽게 버리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했던 40여년전, 나의 유년시절을 생각해 보면 입던 옷과 신발을 물려 입는 것은 기본이요, 양말도 덧대어 꿰매 신고 또 신었고, 학교에서는 선배들 교과서를 물려받고, 먹거리 또한 썩어가는 감자조차도 허투루 그냥 버리지 않고 감자가루를 만들어 다시 식재료로 사용하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가 있었다. 지금도 그 삶의 지혜는 할머니의 할머니에서 엄마로 나에게로 다시 딸에게로 이어져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들은 그 지혜를 보지 못하고 지식만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여름 감자밭을 하얗게 수놓았던 감자꽃, 꾸리꾸리 쿰쿰한 냄새가 나던 할머니, 여름밤 모깃불 피워 놓고 마당에 둘러 앉아 먹던 감자범벅과 야들야들 말랑말랑 쫀독쫀독한 할머니표 감자떡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다.

「제28회 박인환백일장 청소년 문예작품」

대상

우리 집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현빈

"우리 집을 못 찾겠군요." 내가 우연히 들은 노래의 제목이다. 이 노래에서 집을 못 찾는 이유는 쉬우면서 어려웠는데, 맨날 있었던 네가 더 이상 그 집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집중에서 원룸이라고 정확히 표현했다. 원룸은 다른 집에 비해서 작고 좁으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아주 잠시 머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원룸밖에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이 노래에서는 집이란 자신이고 그런 집이 '너'하나 없다고 존재가치를 잃어버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나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번져갔다. 여자 친구의 집이 가수, 자신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집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다. 집의 사전적 정의는 '벽과 지붕이 있어 바깥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이리 딱딱한 것이 아니다. 벽과 지붕이 있어 바깥 환경으로부터 보호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집'은 우리의 피곤한 마음, 몸을 쉬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다. 실제로 우린 쉬고 싶을 때 "아,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단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그 집은 나에게는 아주 안락한 집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우리 집이 어떤지 묻는다면 피하고 싶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장소라고 얘기한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 간의 갈등이다. 솔직히 나는 강한 줄 알았다. 뉴스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 중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정불화는 정신력이

부족하여 이겨내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을 속이기 위한 패배자들의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잦은 부모님간의 갈등과 이혼까지 한다고 하는 부모님, 문제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만 나아지지 않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한 나는 엄살을 피우듯 아주 조금씩 사실은 점점 빠르게 나를 좀먹고 있었다. 상처를 가린다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처럼 아무리 웃어 봐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거워졌다. 그래서 그런지 도서관이라는 곳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일들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추악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가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 단위보다는 혼자가 더 좋아졌다. 귀찮은 관심보다는 무관심이 더 좋아졌다. 따뜻한 관심보다는 차가운 무관심이 달궈지다 못해 타들어 가는 내 마음을 식혀줬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에게 관심은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다. 매일 밤마다 부모님께서 술을 드시고 주시는 관심은 나에겐 쓸데없는 관심, 들을 필요 없는 말 이라는 생각밖에 새겨주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관심은 좀 다르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번 새겨진 인식은 바뀌기 어려운가보다. 어떤 말이든 다 좋지 않은 말로 들린다. 칭찬을 받더라도 가식적인 말로 바뀌어 들린다. 하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건강한 관심을 받고 싶다고 고자질 하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으로 인한 소음, 매일 나에게 주는 쓸데없는 관심, 시끄러운 동생 이라는 이유로 학업이며 책이며 글이며 모든 것의 할애 할 시간이 부족했다. 어떠한 것에 쏟을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다가 끊기는 기분은 진짜 끔찍하다. 더 이상 우리 집을 찾고 싶지도, 찾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집을 사전적 정의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를 보았다. 앞서 나는 상대적으로 추악한 우리 집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니체는 “이 세계를 벗어나 다른 세

계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지 추악한지 평가 할 수 없으며 삶에 대한 가치판단은 언제나 참일 수 없다. 아름답거나 추한 정도는 생리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다." 라고 말하며 나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내가 말하는 추악함은 현재 나의 생리적, 심리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누가 진실인 듯 말한 것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쎄게 맞은 기분이었다. 이제는 집을 새로 간단히 정의할 때이다. '집'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언제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이라 정의하고 싶다. "싶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매일 좋았던 집이 한 번 안 좋아진다고 집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더욱 꿰뚫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했다. '집'은 추악하며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곳이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좋고 싫음을 평가할 때 재미, 가성비 등 여러가지 기준들에 대조해 보며 정한다. 흔히들 "노래방은 시끌벅적 해서 좋은데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싫어" 라든지 니체의 말대로 현재 생리적, 심리적 요인이 적용 될 수밖에 없으니 언제나 좋지 않으면서 언제나 좋은 곳이라 정의 내렸다.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 집이 싫지만 가족의 시간이 늘어나 좋고도 싫은 곳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즘 내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부모님의 쓸데없는 관심보다는 건강한 관심이 나에게 오고 타들어가는 내 마음에 불을 꺼주었다. 지금의 생리적,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곳 그 곳이 '집'이다. 언제나 추악하며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곳이다.

장원

나의 소원

기린고등학교 1학년 이윤형

어두운 공기 속에 한 소년이 있었다.
달콤한 달빛아래 있어도 그 소년은 빛나지 않았다.
소년은 눈을 감고 어두운 공기를 마셨다.
소년이 눈을 뜨자마자 세상 온갖 밝은 것들이 그 소년을 비추었다.
달콤한 달빛 아래 있어도 그 소년은 빛나지 않는다.
이미 그 소년이 달콤한 달빛이 되었기 때문에.

장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인제중학교 3학년 이종혁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이 문장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눌 때 빠짐없이 언급이 되는 듯하다. 지금 내 심정이 딱 이렇다.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했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했었던 내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이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이 욕심쟁이일 것이다. 나만 하더라도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지 등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소원 중 지금 이 순간 제일 간절한 것은'코로나 이전의 일상'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나의 삶은 많은 부분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는 내 일상에서부터 느껴진다.

코로나 이후 제일 불편한 것을 말하라면 나는 제일 먼저 답답한 마스크를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이라 말하겠다. 이 답답한 걸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게 될 거란 걸 누가 알았을까? 심지어 안경을 쓴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안경에 김이 끼기도 한다.

마스크 다음으로 불편한 것을 고르라면 나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라 말하겠다.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새로 나온 영화에는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영화의 줄거리를 대략 알아본 다음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영화관에서 맡는 달콤한 팝콘 냄새도 좋았고, 많이 소란스럽지 않은 분위기, 내가 아직 안 본 영화들의 포스터를 살펴보는 것도 좋아

했다.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전의 두근거림도 좋아했고, 개봉일에 맞춰 바로 보는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퍼진 이후에 영화관은 옛날과는 매우 달라졌다. 지금은 영화관을 들어가는데 당연하게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한다. 마스크를 끼고 영화관에 들어가면 더 이상 예전의 그 북적대던 영화관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개봉한 영화도 별로 없고, 개봉 예정이었다가 개봉을 미룬 영화도 많다. 현장에서 자리를 예매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예매를 하고 시간이 되면 열을 재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고 상영관에 들어간다. 좌석은 한 줄씩 띄어 앉는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온전히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모든 신경을 영화에 쏟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영화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 영화를 보러 갈지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코로나는 내 머릿속을 파고들어 이런저런 신경을 쓰게 만든다. 코로나라는 생각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영화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했다. 도서관 특유의 책냄새와 여러 분야의 책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은 아예 문을 닫았다. 책은 빌리더라도 예약으로만 빌릴 수 있어서 도서관에서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목을 보고 책을 고르던 일은 이제 옛날 일이 되었다. 예약으로 빌리려니 당연히 빌리려는 책의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골라든 책을 빌리는 일은 당연하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또 학교가 바이러스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다는 사실도 상상 속에만 있을 법한 일이었을 것이다.

바뀐 것은 어떤 장소만이 아니다. 이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던 그 지나치게 당연했던 순간들도 바뀌어서 사람을 만나는데 다양한 제약이 생기고, 한 사람의 키 보다 좀 더 긴 만큼의 거리를 둬야하며, 악수를 대신 할 행동들이 많이 등장할 정도로 악수도 함부로 못 하게 되었다. 또 여행은 어떤가? 해외는 당연히 생각도 못 하고, 국내 여행도 쉽지만은 않다. 수도권과 부산 등 사람이 많고 확진자가 많은 곳은 피하고, 코로나로 인해 관람객을 받지 않는 박물관이나 장소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대

형마트 같은 곳도 들어가기가 꺼려진다. 우리 가족도 올해 여름방학에 여행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으로 숙소를 고르던 중 코로나로 인해 여행계획을 취소해야만 했다. 모두가 여행으로 들떠 있었던 중에 취소된 계획이라 아쉬움이 배가 되었다.

코로나는 나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불과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있는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 갔지만, 역설적이게도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이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모두 날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코로나는 물론 언젠가는 종식 될 것이지만,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의 소중함,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지 않는 삶을 다짐해본다.

차상

나의 소원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현지

누구나 원하거나 간절히 이루고픈 소원 하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소원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내가 이루고픈 소원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던, 세상이 즐겁기만 했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소원이란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야! 라며 순진무구하게 생각 했었던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아마 디즈니 애니메이션'알라딘'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한창 그런 것을 좋아할 나이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마법의 램프로 환상의 요정 '지니'를 소환해서 자신이 원하고픈 것 3가지를 말만 하면 뭐든지 가지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린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다. 그때는"소원이라는 게 뭐야?"라고 부모님께 후다닥 달려가서 물러보았었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소원이라는 건 말이야, 우리 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면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까?" 라며 나에게 말씀해주신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부모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주신 건 내가 웃길 바래서 아니었을까? 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보기도 한다.

현재 나는 소원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루고픈 것이나 간절히 원하는 소망, 혹은 욕망은 없지 않다면 거짓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소원을 빌지 않게 되었다. 내가 중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나 보름달이 떠올라 있을 때, 나는 소원을 빌었다. 주로 어떤 소원이었냐고 묻는다면'친한 친구들이 생기게 해주세요.'등등 시시하지만 이루고픈 소망이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런 소원을 자주 빌고는 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학업성취, 친구관계, 고등학

교 입시시험 등 여러 가지로 힘들었기도 했고 소원을 빌어봤자 조금의 위안은 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는 했다.

그래도 힘내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다독이고 응원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후반은 나의 인생 중에서 최악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기억이다. 지망 고등학교 입시시험 전날,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저주를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뚝 하고 떨어졌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인 나는 그들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시켜서 하는 성의 없는 사과를 받고는 오히려 그들이 나를 꺼려하고 불쾌해 했다. 솔직히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으니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소원은 빌지 않았느냐고? 당연히 빌었다.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 간절히 빌었었지만 다음 날 학교에 가니 그들은 아무 일도 없던 거 마냥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를 하고는 웃으면서 즐겁다는 듯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때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이루어주는 요정이나 신은 없고, 아무리 소원을 빌면서 이루어질거야 라며 현실을 도피해도 결국에는 시궁창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 후로 나는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를 빌고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는 않았다. 그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모르게...조용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싶다고 간절히 빌었었다.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소망이나 이루고픈 욕망은 나의 안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그득하지만, 소원을 빌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안의 나에게 원하는 소원을 딱 하나 빌어 보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불면증이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자보고 싶다고, 그렇게 답할 것이다.

차상

검은색

인제중학교 2학년 김록원

나의 소원은 검정의 색이 되는 것이오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어둡고 무서운 밤과 같지만 사실 그것은 무지개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내면은 칠색의 그런 검은색무엇이든 포용하고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속은 빛나는그런 검은색이,나는 되고파.

차상

부모님께 편지쓰기

인제중학교 2학년 안수연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의 둘째 딸 수연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편지 쓸 일도 없고, 오글거리기도 해서 잘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차저차 이렇게 쓰게 되네요, 그나마 생신이라고 써드렸던 편지들의 내용은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말씀 잘 듣고 숙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전부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다른 내용들을 써볼까 해요.

먼저 아빠, 아빠께는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우리 삼남매에게 조금 더 다가오려는 노력이었고, 힘들지만 우리를 위해 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놀러간다고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던 저희를 보며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새삼 궁금해지네요.

아빠는 저희가 바라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터무니 없는 저희 부탁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힘드셨을 텐데 다 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회식 후 집에 돌아와 다가오는 아빠를 밀어내는 우리에게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늘 친근감 있게 다가오려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아빠께 조금 더 다가가 볼게요.

그리고 엄마, 엄마께는 죄송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삼남매가 더 재미있을까, 무엇을 하면 더 좋은 추억이 남을까 늘 고민하시고,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는 그 최선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의 최선을 간섭으로 느끼고, 엄마의 도움을 강요로 받아들였어요. 엄마도 하나의 사람인데, 엄마도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셨을 텐데 '엄마'라는 이유로 상처만 드려 죄송합니다.

되돌아보면 엄마 덕분에 제 생각이 넓어 졌고, 마음이 넓어 졌고, 제가 보는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사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엄마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둘께요.

가끔 흘러가듯이 이모, 할머니,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맞아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지금의 엄마, 아빠가 언제나 최고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다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20년 10월 가을날

딸 수연 올림

차상

우리 집

기린중학교 1학년 정예은

우리 집에는
사계절이 살고 있다.

노란 개나리가 활짝 핀
봄날에 태어난 나는
봄을 닮아
봄볕같이 따사로운 기쁨을 준다.

에어컨 바람과 찬물이 그리운
여름날에 태어난 엄마는
여름을 닮아
팥빙수 같이 시원 달콤한 행복을 준다.

단풍이 색칠하는
가을에 태어난 아빠와 언니는
가을을 닮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함을 준다.

흰 눈이 가득 쌓여 눈부신
겨울에 태어난 오빠는
겨울을 닮아
흰눈 같은 포근함을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집은 사계절을 품고 있다.

차상

나의 소원 한 가지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고 3학년 김희연

나의 소원,
그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할아버지 보는 것

이야기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내려와서
하룻밤만 같이 자고 싶어요

차상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기린고등학교 1학년 김혜지

파란 하늘에 손 마주 놓고 보는 친구
같이 마신 커피처럼 진한 친구
함께 있는 연이 있는 오랜 친구
행복한 미소가 불꽃놀이처럼 펑펑
헤어짐의 이별이 눈처럼 살포시
내 마음에 무겁게 갈아 앉은 돌멩이처럼
마주보았던 손등 산산조각 나듯 잊혀져
멀어져만 가는 서로의 길 위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뒷모습을
기억 속에 그 모습을 그리워만 하다.
친구라는 이름 속에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
영원히 함께 해주길 바란다.

차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기린고등학교 1학년 이진영

나이를 하나 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나 용기가 넘쳤던 우리
눈앞이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꺼내 볼래 마음의 나침반을
흔들리는 나침반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 수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 잃지 말고
똑바로 걸어 갈 거예요.
"같이 가요"

차하

선인장

기린고등학교 1학년 추예인

너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다
너에게 가까이 가는 게 힘들다
너는 나에겐 선인장이었다.
너에게 다가갈 때면
톡 건드리면
터지는 홍시처럼 내 심장은 뛰었다.
너와 가까워질 때면 점점 조여 오는
밧줄처럼 내 마음은 아팠다.
그래도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래도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차하

우리집

어론초등학교 3학년 정해주

빨간 색연필로는 무엇을 그릴까?
빨간 색연필로
웃는 얼굴 해님을 그리지

주황 색연필로는 무엇을 그릴까?
주황 색연필로
예쁜 단풍나무를 그리지

노랑 색연필로는 무엇을 그릴까?
노랑 색연필로
웃는 얼굴 꽃을 그리지

차하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론초등학교 4학년 남은규

어머니, 아버지는 많은 세월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일, 어머니는 미용사일 등 힘든 일을 하시며 사랑은 더욱 커가고 돈독해졌던 시절,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의미를 더해줄 저와 제 동생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괴로움을 달래며 누워있었고 저는 따뜻한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 긴 세월이 흘러 저는 의젓하고 씩씩한 열한 살 형이 되었고,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고 씩씩한 열 살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끔 싸우긴 해도 부모님께 가장 소중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웃으면서 저희를 안아 주시며 보고 싶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지금까지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차하

나의 꿈을 만드는 우리 엄마

원통초등학교 1학년 박승아

나의 꿈은 의사선생님 입니다.
일 하시느라 다리가 아플 때마다
아이구, 다리야 하시는
엄마의 다리를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꿈은 경찰관입니다.
우리를 집에 두고 일하러 가실 때마다
문 꼭 잘 잠그고 있어라, 걱정 하시는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꿈은 여행가입니다.
세계 여러 곳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곳을 다니며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
엄마도 함께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꿈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엄마의 모습이 제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만든 것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엄마의 꿈은
저의 꿈이 무엇이든 제가 행복한 것이 엄마의 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동화 속 공주님 입니다.
언제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동화 속 공주님처럼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차하

부모님께 쓰는 편지

인제중학교 3학년 최종빈

부모님께!

엄마 아빠, 무뚝뚝한 막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리 편지를 써보네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지 어언 15년이 지났고, 이제 16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도 부모님께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배움엔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아직 부모님께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예의범절이 중요하다, 웃어른께 인사를 잘 해야 한다. 등등 입이 닳도록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실천을 잘 못하는 것은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네요. 엄마 아빠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죄송해요. 심부름을 시키셔도 즐겁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들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을 할게요. 또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잘 되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 줄도 모르고 많이 흘려 듣고,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부모님의 속을 망가뜨린 일들, 제가 참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론 더욱 모든 말을 기억하진 못해도 새겨듣도록 노력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빠, 컴퓨터 사주시면 공부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계속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것 꼭 이루길 기도할게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제가 집안일을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시험 공부한다는 핑계로 늘 도와드리지 않았는데, 핑계를 대서 죄송해요.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 티끌만큼이나 기억도 안 나는 작은 행동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잘하면 소용없고, 지금부터 잘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변덕스런 막내를 잘 돌보아주셔서 또, 늘 감사합니다. 엄마가 공부는 못해도 차라리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하며 철 든 막내가 되도록 할게요. 엄마가 절 삼형제 중 늦둥이 막내로 낳으시고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 같아요. 부모님이 또 제 학원비를 내느라,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답 할게요. 올해가 지나면 저는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그 악명 높은 고등학생이 된다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 어색함을 느꼈던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덧 3학년이 되었고, 이제 두 달만 지나면 중학교를 졸업하네요. 중학생으로 불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불안해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해결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그게 참 고민이 돼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세요. 정말 많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 나이가 된다면 부모님이 저와 형들을 위해 고생하신 만큼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또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질께요. 아직 제 장래희망을 딱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직업을 가질 거예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먼 미래 같아요. 어느 한편으론 제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셨듯이 저도 제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잃지 않을께요. 제게 자식이 생긴다면 부모님처럼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주도록 노력할게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정말 중요한 요즘인데 몸조리 잘 하시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차하

우리 모두의 소원

어론초등학교 4학년 전수아

놀 때도 마스크
학교에서도 마스크
어딜 가도 마스크

마스크를 벗으면 위험한 지금
그런 지금, 내 소원은 뭘까?

아마 모든 사람의 소원은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는 거겠지?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간다 해도
사람들과 붙어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지금, 내 소원은 뭘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코로나19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겠지?

우리 모두의 소원
꼭 이루어지기 위해
모두 노력해 주세요.

차하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

원통 초등학교 3학년 황주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보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은 늘 내 곁에 있고, 내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어서 입니다. 나는 계곡에 가서 다 같이 튜브 타고 놀고,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속초 워터피아에 물놀이를 갈 때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플 때는 동생이랑 싸울 때 엄마, 아빠가 동생 편만 들어주어서 조금 밉습니다.

우리 가족의 칭찬 할 점은 참을성이 많고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3가지는 폭력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예의 갖추고, 배려하고, 존댓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규칙적입니다.

평일 아침 7시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등교하고 하교 후에는 각자 주어진 공부 량을 마친 후 독서도 하고 놀다가 온 가족이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수다 떨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놀기 좋은 곳, 새로운 곳으로 가면 신선해서 더 신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원통 생활체육공원에 가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게 신나고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약속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요.

체력이 안 좋아서 금방 지치시는 거 같아요. 엄마는 수영하고, 아빠는 걷기 운동을 해요. 나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운동을 못해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나의 소원은 행복

어론초등학교 4학년 장기범

우리 아빠는 군인이다. 그래서 아빠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시면 친구들과 자꾸자꾸 이별을 하게 된다. 나는 그 이별이 싫다. 이사를 가면 친구들과 있었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이별이 싫다.

나는 싸움이 싫다. 친구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나면 기분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싸움이 싫다.

나는 슬픔이 싫다. 슬픔은 나의 행복한 기억까지도 잠시 동안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슬픔이 싫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별, 싸움, 슬픔이 없고 기쁨, 추억, 사랑만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이 좋다.

나의 소원은 슬픈 기억은 없고 나만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행복이 나의 소원이다.

장려상

메뚜기 우리집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교 3학년 안혜령

콩밭에 있는 메뚜기는
콩 메뚜기

꽃밭에 있는 메뚜기는
꽃 메뚜기

쌀밭에 있는 메뚜기는
쌀 메뚜기

메뚜기 이름 짓기 재밌네.

장려상

가을

어론초등학교 3학년 문정훈

쌀쌀한 날씨
쌀쌀한 바람

멋진 단풍잎
토마토 색깔로 물 들었네
엄마 아빠 얼굴처럼
멋진 단풍잎

푸른 하늘과 높은 하늘
그 안에 있는 구름 하나가 솜사탕 같다
그 구름에 누우면
폭신한 이불 같겠지?

그래서
가을이 좋다.

장려상

멋진 가족

기린초등학교 3학년 김단우

나를 항상 아껴주는
예쁜 엄마

나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 아빠

싸우지만 나를 항상
따르는 내 동생

귀여움을 주는
막냇동생

항상 내 가족이 있으면
모든 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

멋진 우리 가족

장려상

나의 소원

기린초등학교 3학년 오민서

나의 소원은 세 가지가 있다

나의 소원 첫 번째
3층 건물 집 주인
1층은 엄마, 아빠
2층은 언니
3층은 나의 보금자리

나의 소원 두 번째
인제에 집 짓고 사는 것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아
살고 싶은 인제

나의 소원 세 번째
넓은 정원, 수영장, 놀이터가 있는 나의 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족이랑 함께하는 것

장려상

동생

기린초등학교 1학년 조승아

볼 살이 통통 귀여운 내 동생
언니 좋다고 엄마도 좋다고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어오네
귀여운 내 동생

언니랑 같이 놀자고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오네
옹알옹알 뽀뽀 쪽
사랑스러운 내 동생

장려상

단절

기린초등학교 5학년 공한결

숨 쉬고 싶어요.
산 속 깊은 곳처럼
맑은 공기를

뛰어 놀고 싶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마스크를 벗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친구의 웃는 얼굴
가족의 웃는 얼굴

누군가를 경계하고
전염될까 걱정하고
그만 걱정 없이
단절 없이

학교를…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장려상

산

어론초등학교 2학년 김민규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산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산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기
산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다
그런 산이 참 고맙다.

장려상

강아지

기린초등학교 3학년 이유준

우리 집 강아지는 나만 바라본다

눈은 검은 콩 두 개
꼬리는 강아지풀
털은 솜사탕

나에게
강아지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친구다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

편집실

陰德陽報

음 덕 양 보

뜻풀이 /

남이 모르게 덕을 베풀면 반드시 뒤에 그 보답을 받는다는 말.

해 설 /

초나라의 잠왕이 하루는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촛불이 꺼졌다. 그때 어둠속에서 왕이 아끼던 애첩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기는 신하가 있었으므로 그녀는 그의 갓끈을 끊어 들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였다.

그러자 왕은 애첩의 말을 흘러 버리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밤에 과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갓끈이 끊이지 않은 사람은 아직 기쁨이 덜한 것이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왕의 말에 따라 갓끈을 잘랐고 이어서 촛불이 켜지자 누가 범인인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그 날의 술자리는 즐겁게 끝났다.

그 후 2년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우게 되었는데 신하 한사람이 언제나 앞장서서 싸워 다섯 번씩이나 진나라를 무찔렀다. 초나라의 왕은 그가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거두자 이상하게 여겨 그를 불러 물었다.

과인은 덕이 모자라서 그대에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는가?

그러자 그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고했다.

제24회 인제서회임서전

2020년 9월 25일(금)~ 27일(일)
인제문화원 전시실(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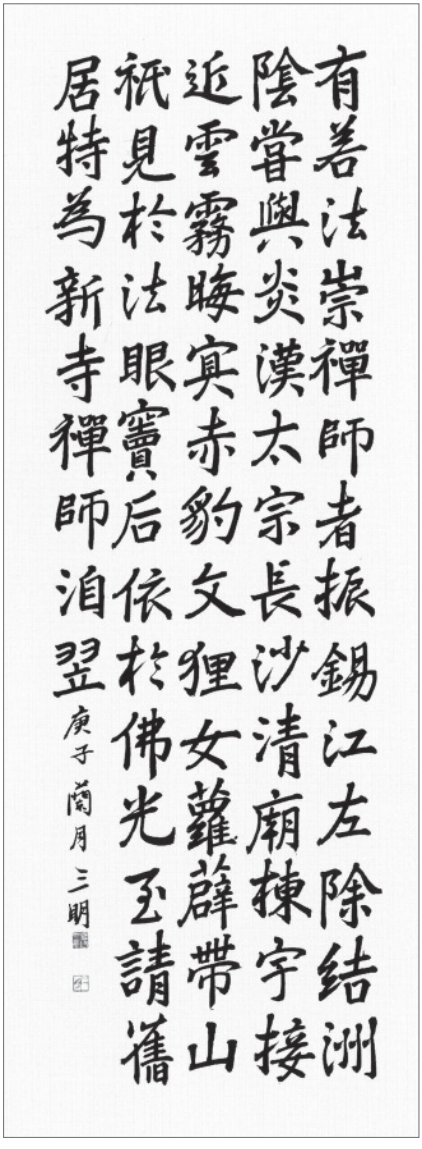
출품자 명단

강순복 고현숙 김옥남 김옥화 김인중 김진도
김희수 문근태 박민자 박신자 박정옥 사하정
서경숙 심종기 원연화 이나경 이득자 이명재
이상오 임규현 전영옥 정숙자 조덕증 조현태
최옥매 최은희 한길용 한순자 한순옥 한주림
홍연숙 서성호 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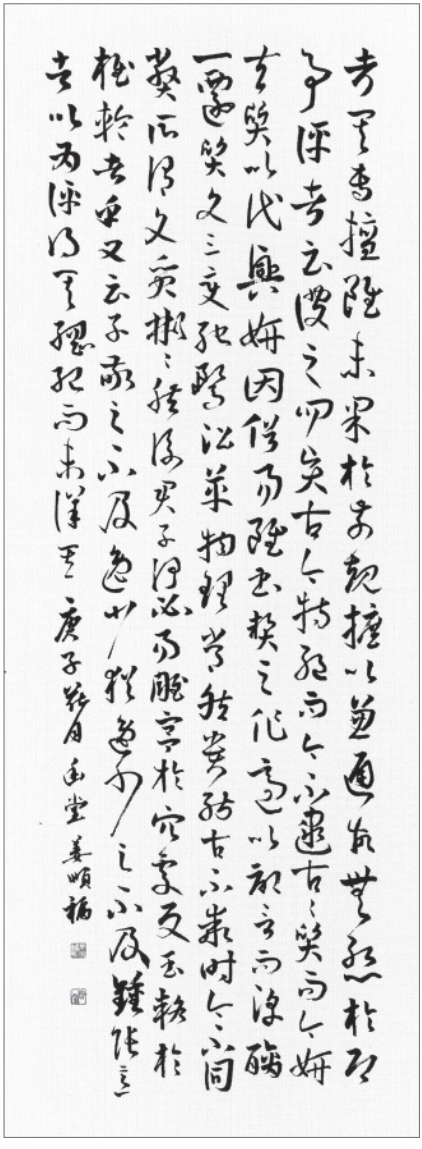
(이상 3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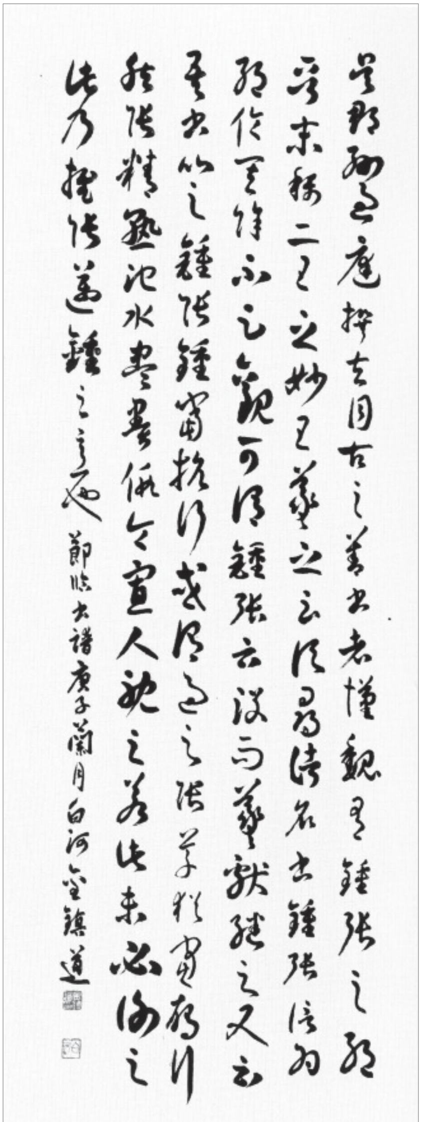
제 6 장

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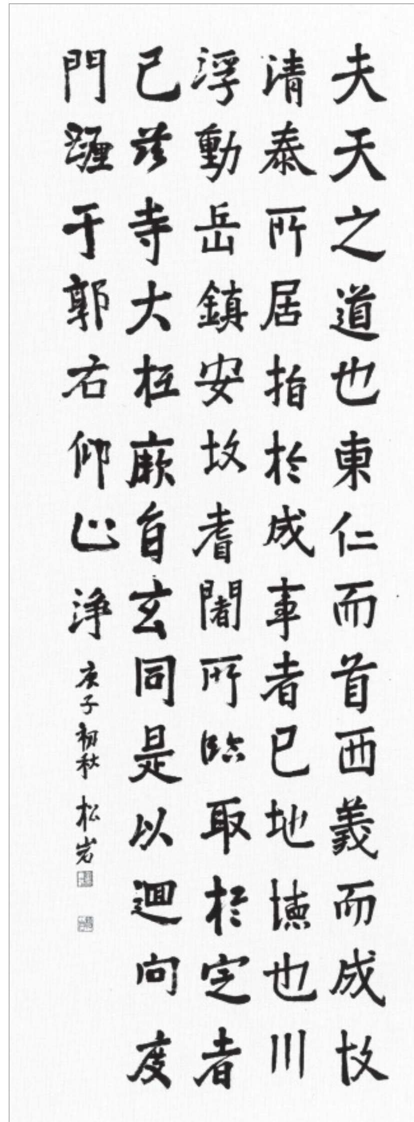

有善法崇禪師者振錫江左除結洲
陰嘗與炎漢太宗長沙清廟棟宇接
近雲霧晦寒赤豹文貍女蘿薜帶山
祇見於法眼竇后依於佛光至請旛
居特為新寺禪師洎翌
庚子 閏月 三明

三明 김인중


幽堂 강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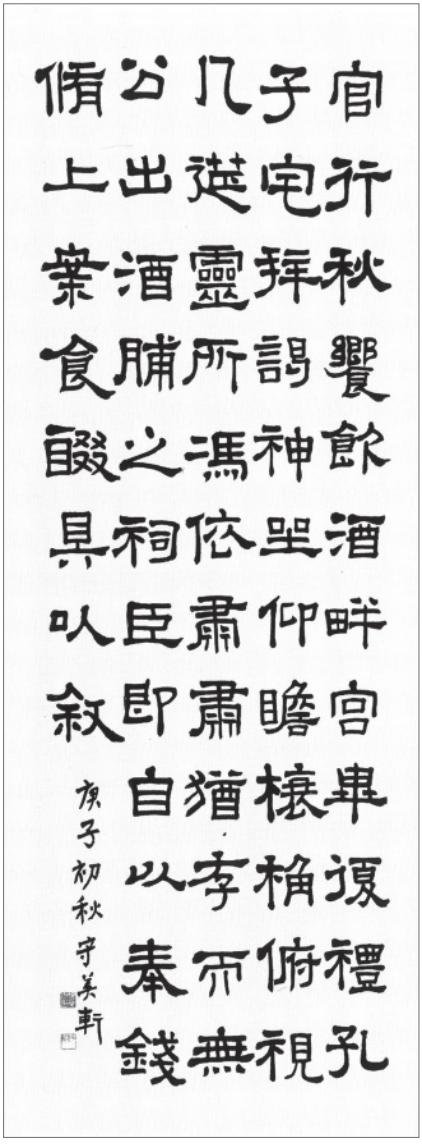
白河 김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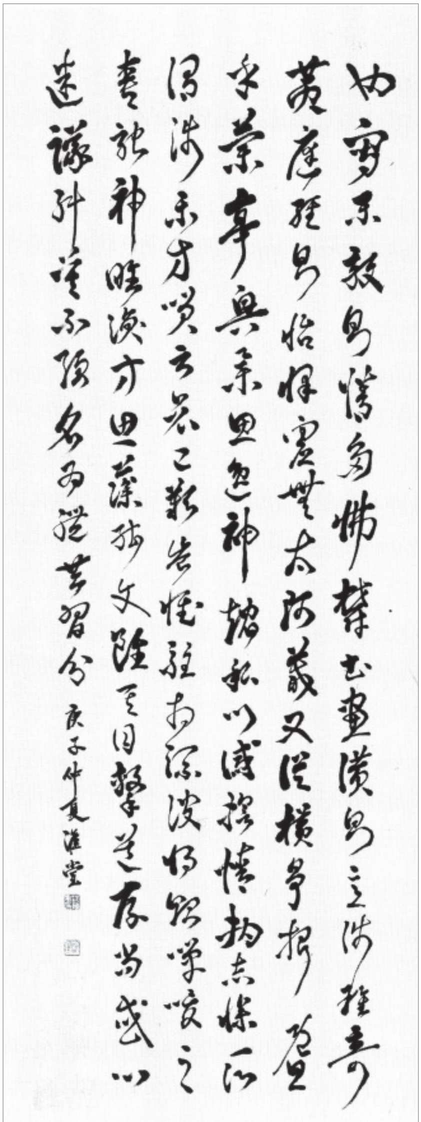
松岩 김희수

君諱遷字公方陳留己吾人也君之先出
自有周周宣王中興有張仲以孝友為行
披覽詩雅煥知其祖高帝龍興有張良善
用籌荒在帷幕之內決勝
庚子秋 清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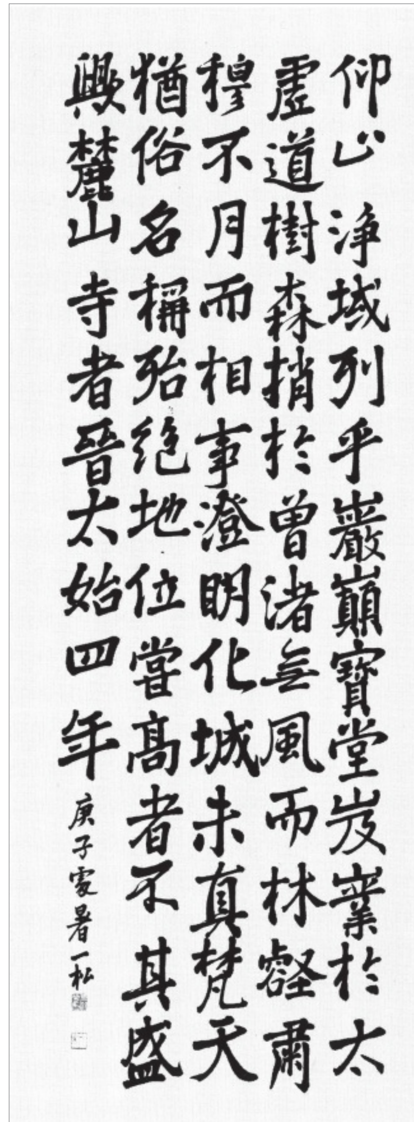
清淵 사하정


官行秋饗飲酒畔宮畢復禮孔
子宅拜謁神坐仰瞻榱桷俯視
几筵靈所馮依肅肅猶存而無
公出酒脯之祠臣即自以奉錢
脩上案食餟具以叙
庚子初秋 守美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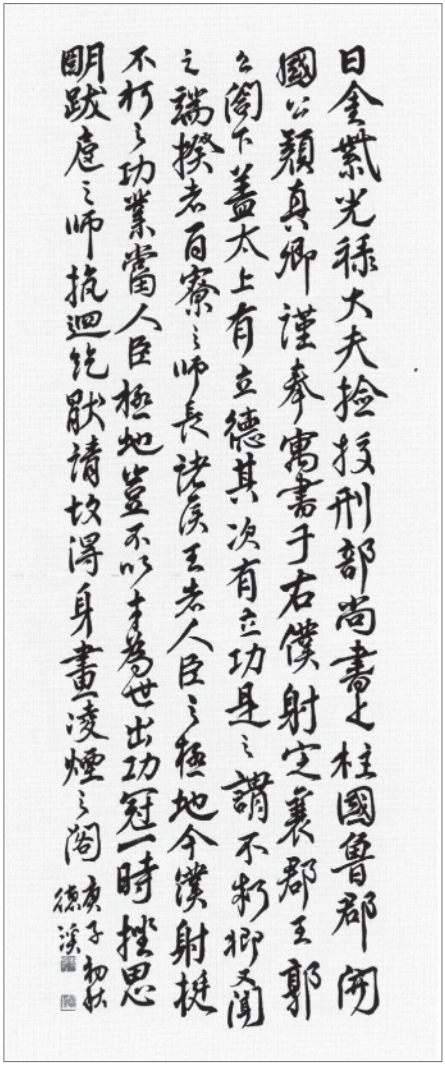
守美軒 서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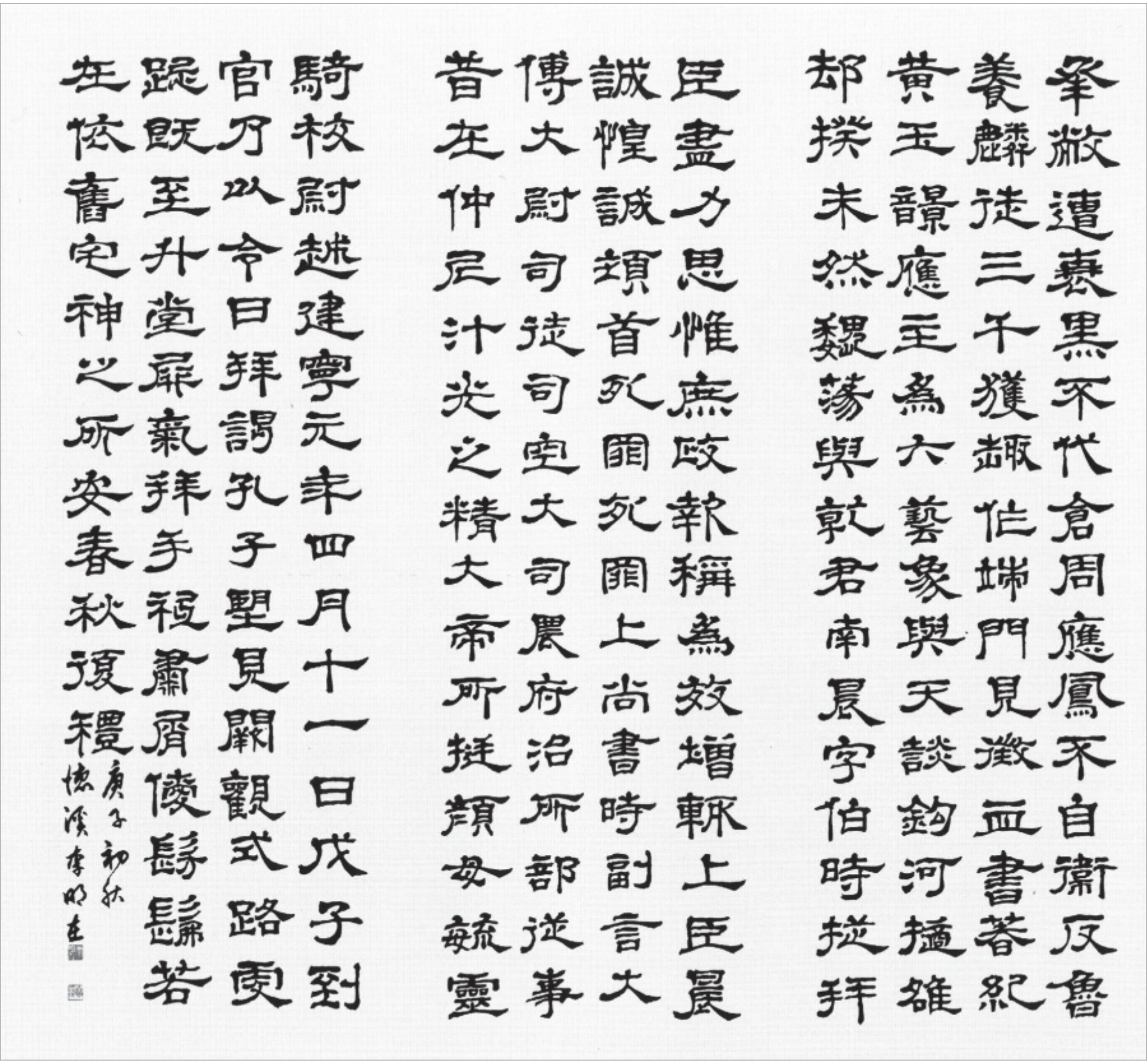
淮堂 심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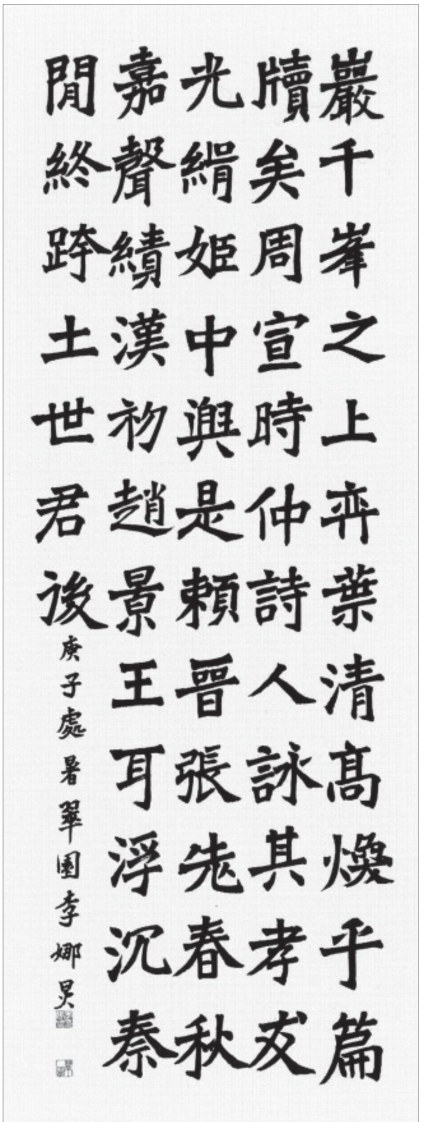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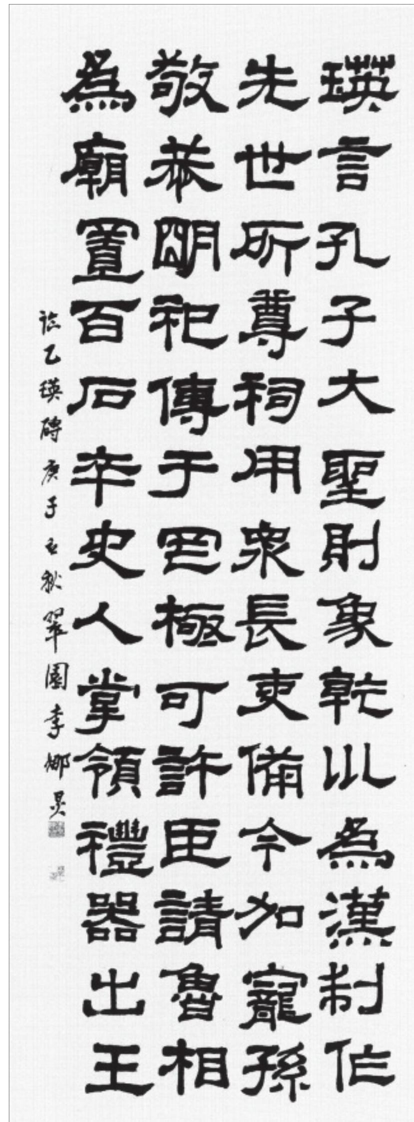
一松 원연화



德溪 이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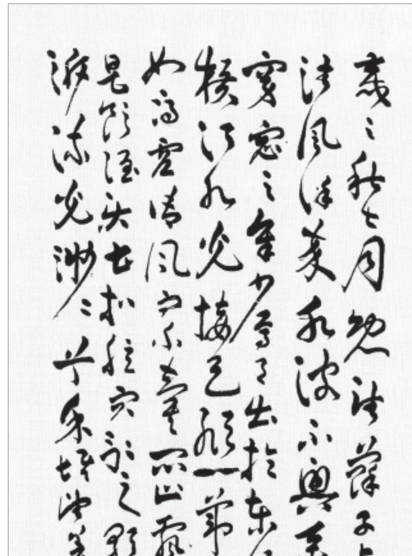

承敝遭衰黑不代倉周應鳳不自衛反魯
養麟徒三千獲趣作端門見徵血書著紀
黃玉韻應主為六藝象與天談鉤河擿雒
卻揆未然魏蕩與乾君南晨字伯時撰拜
臣盡力思惟庶政報稱為效增輒上臣晨
誠惶誠頓首死罪死罪上尚書時副言大
傳大尉司徒司空大司農府治所部從事
昔在仲尼汁光之精大帝所挺顏母毓靈
騎校尉趙建寧元年四月十一日戊子到
官乃以令日拜謁孔子望見闕觀式路虔
跽既至升堂屏氣拜手祗肅屑僾髣髴若
在依舊宅神之所安春秋復禮
庚子初秋


巖千峯之上卉葉清高爕乎篇
牘矣周宣時仲詩人詠其孝友
光緝姬中興是賴晉張先春秋
嘉聲績漢初趙景王耳浮沉泰
閒終跨土世君後
庚子處暑 翠園 李娜炅


瑛言孔子大聖則象乾以為漢制作
先世所尊祠用衆長吏備今加寵孫
敬恭明祀傳于罔極可許臣請魯相
為廟置百石卒史人掌領禮器出王
臨乙瑛碑 庚子立秋 翠園 李娜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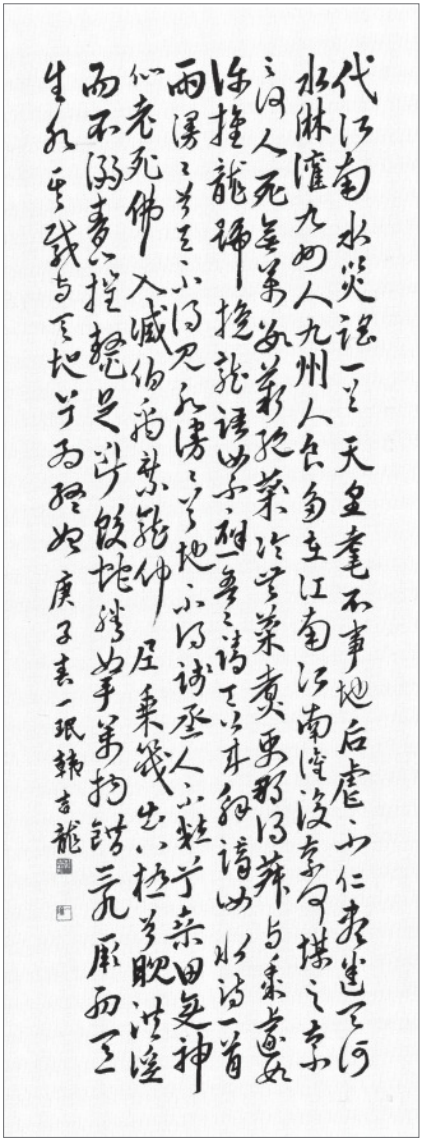
翠園 이나경

古軒 임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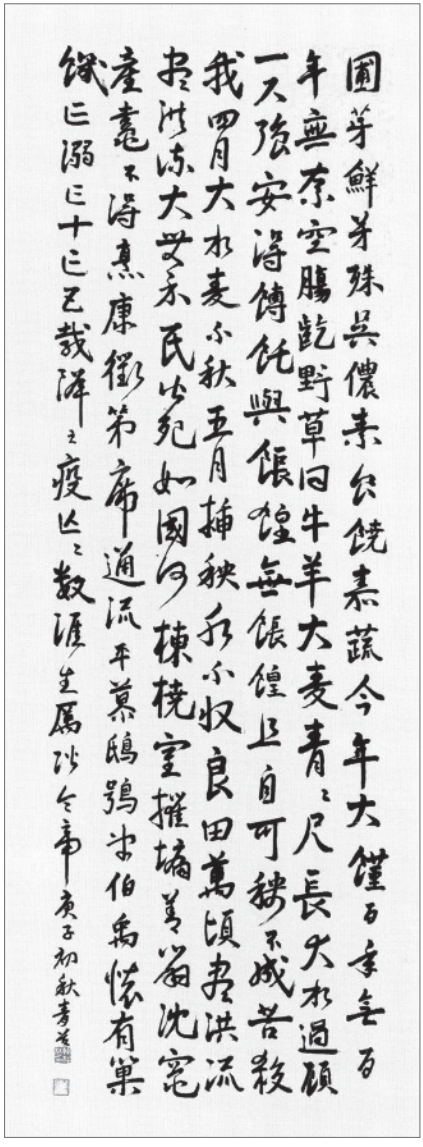


賢齋 전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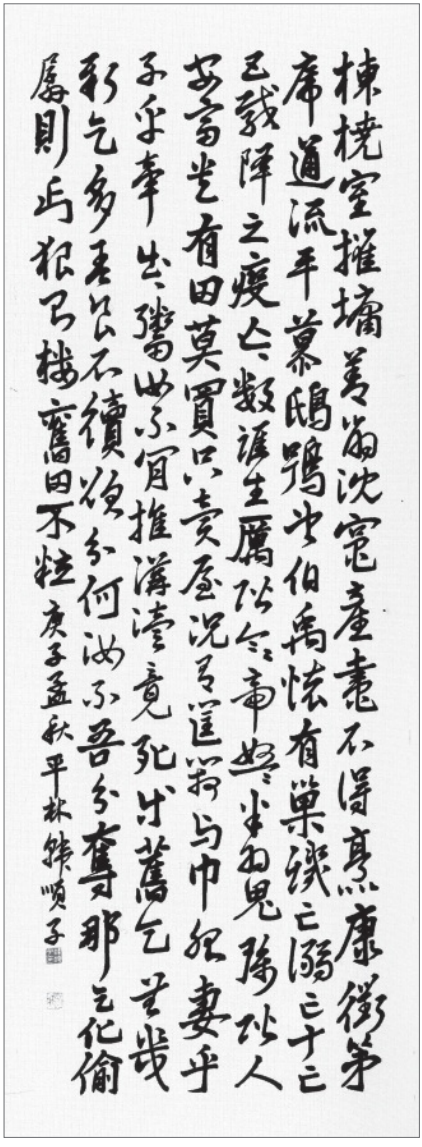
昭月 최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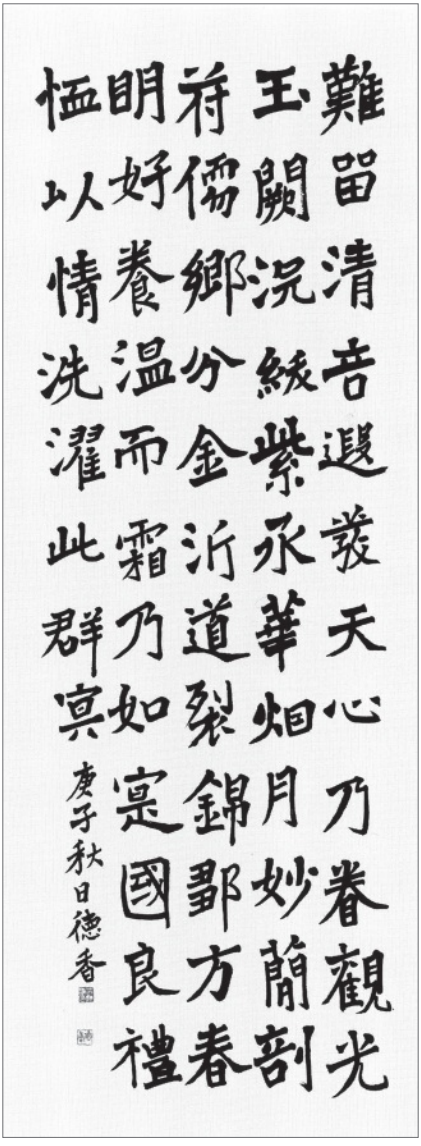
一珉 한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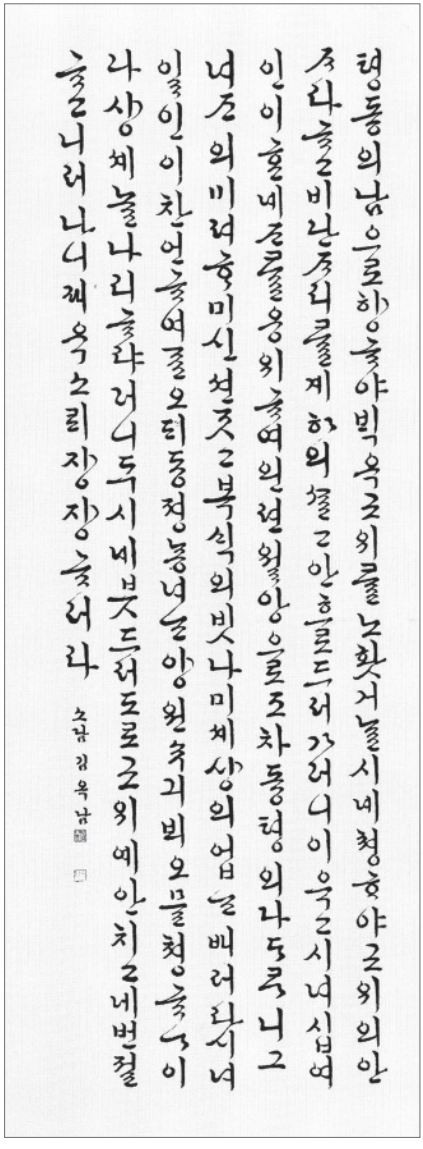
青谷 한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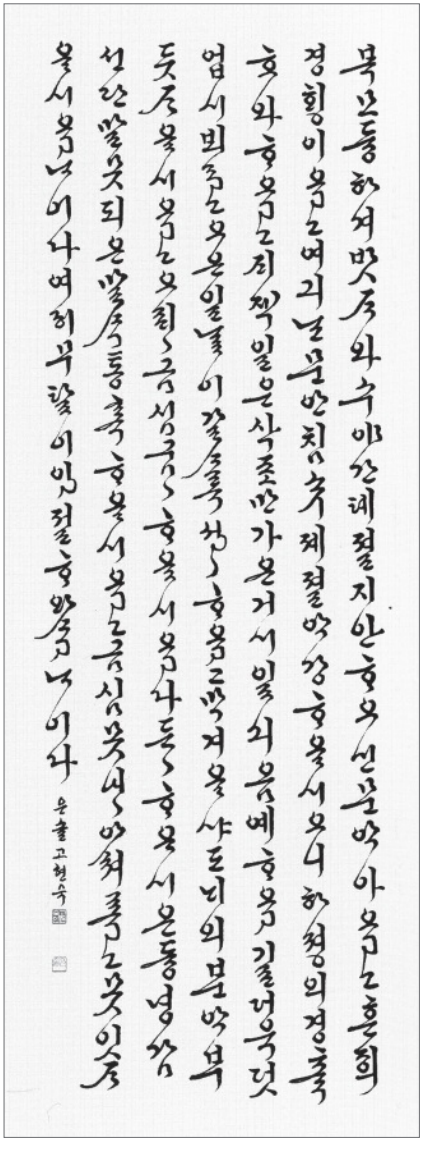
平林 한순자


難留清音邈發天心乃眷觀光
玉關況紱紫承華烟月妙簡剖
符儒鄉分金沂道裂錦鄂方春
好養温而霜乃如寔國良禮
明恤人情洗濯此群寃
庚子秋日德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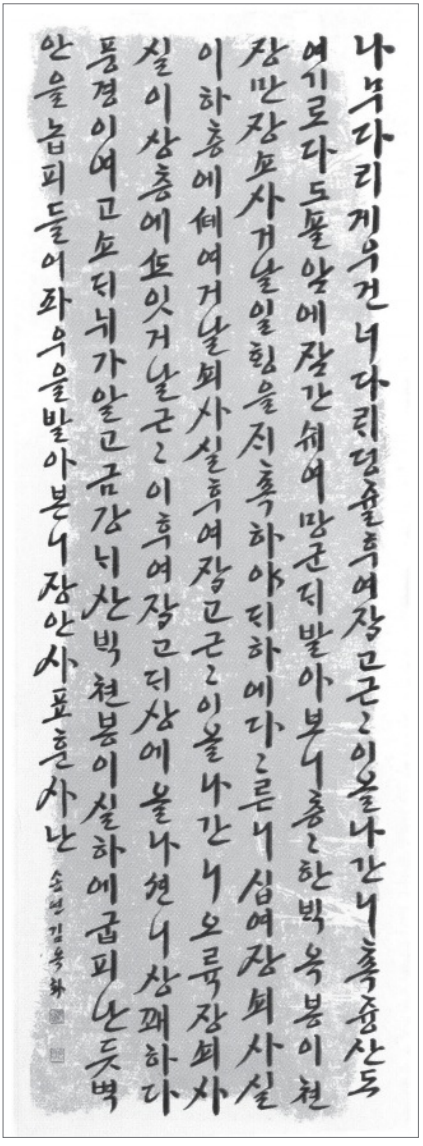
德香 홍연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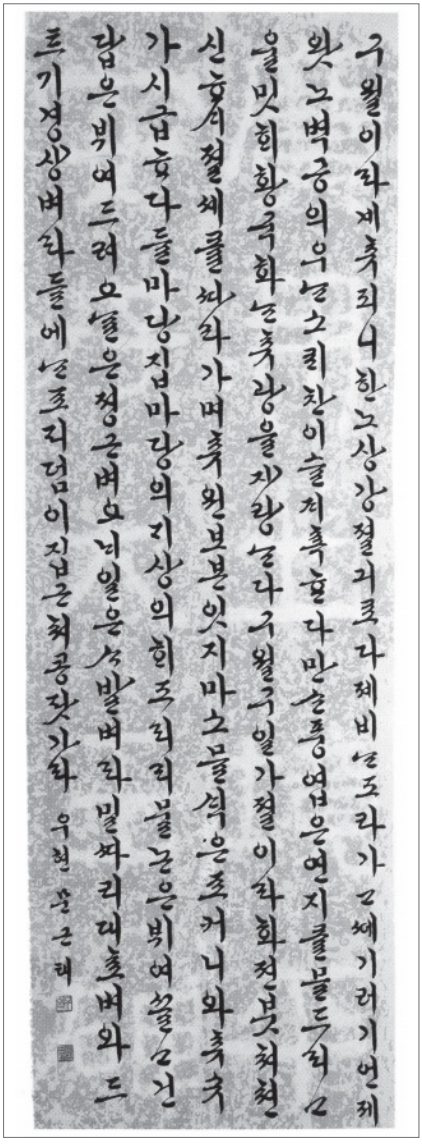
소담 김옥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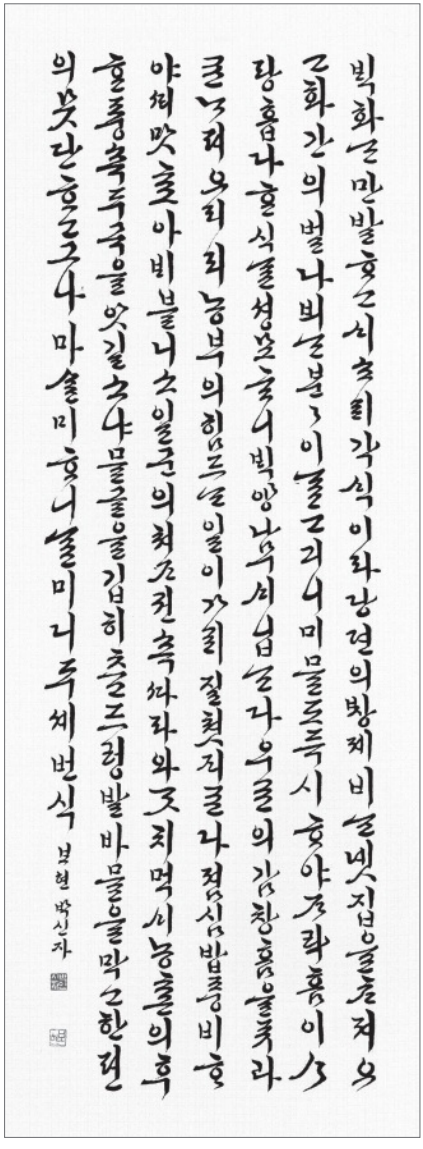
은솔 고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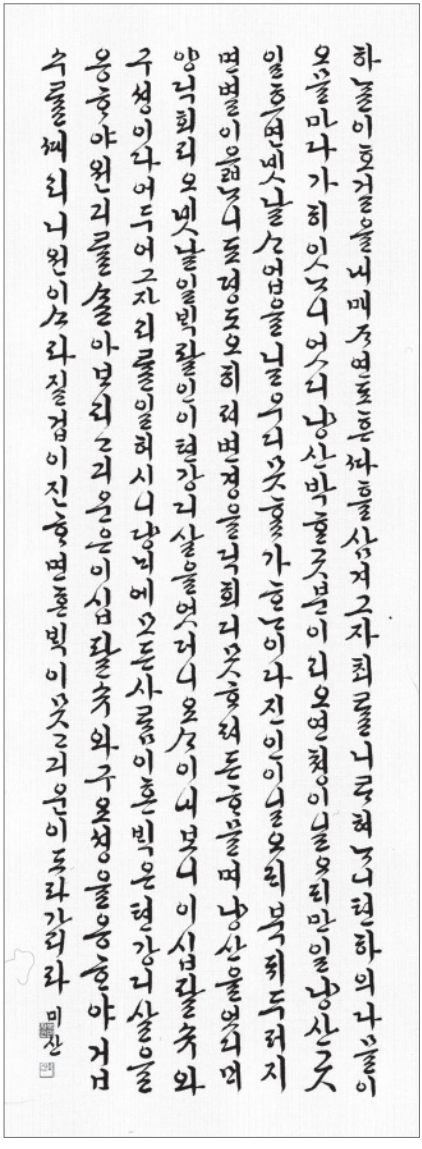
송연 김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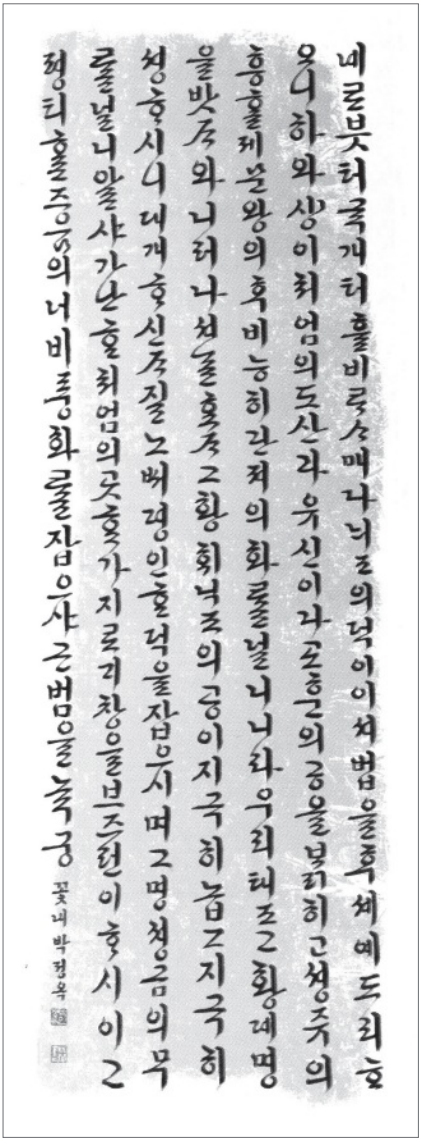
우현 문근태



보현 박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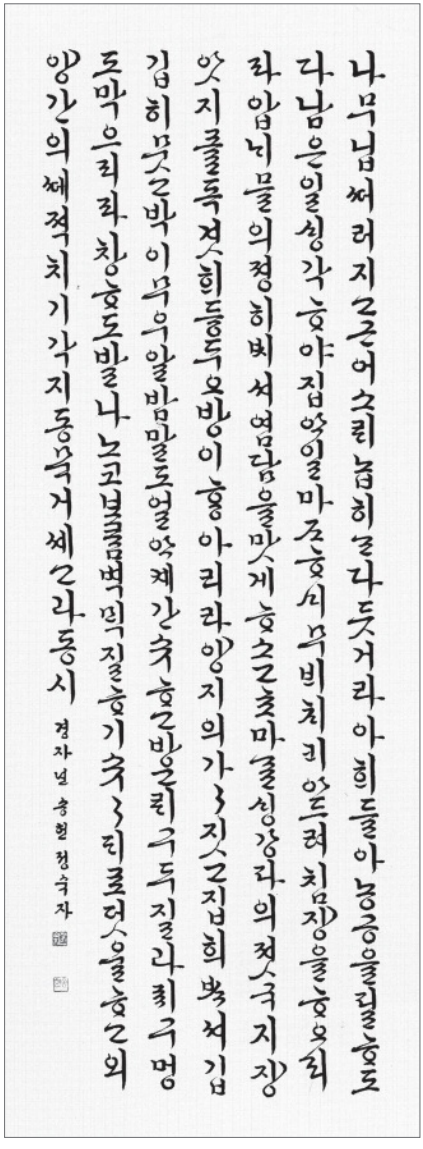


미산 박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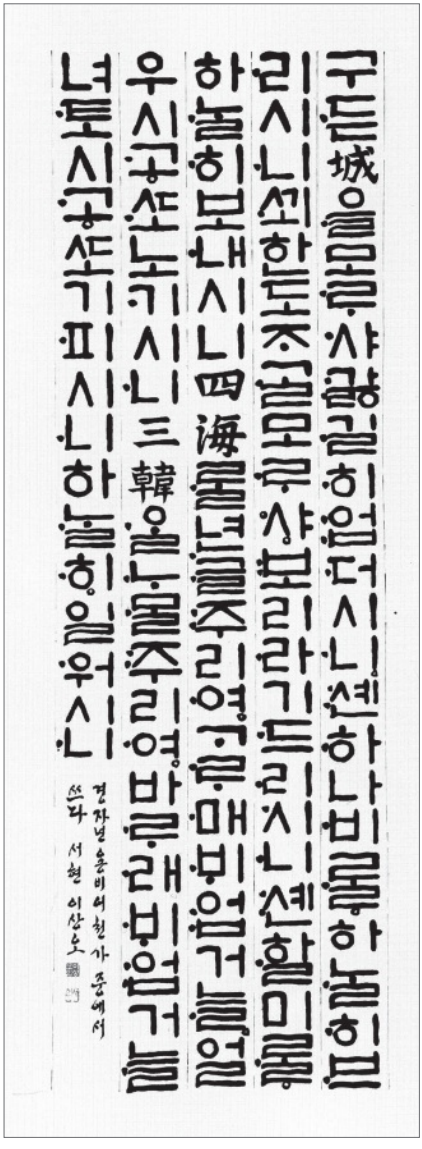


꽃내 박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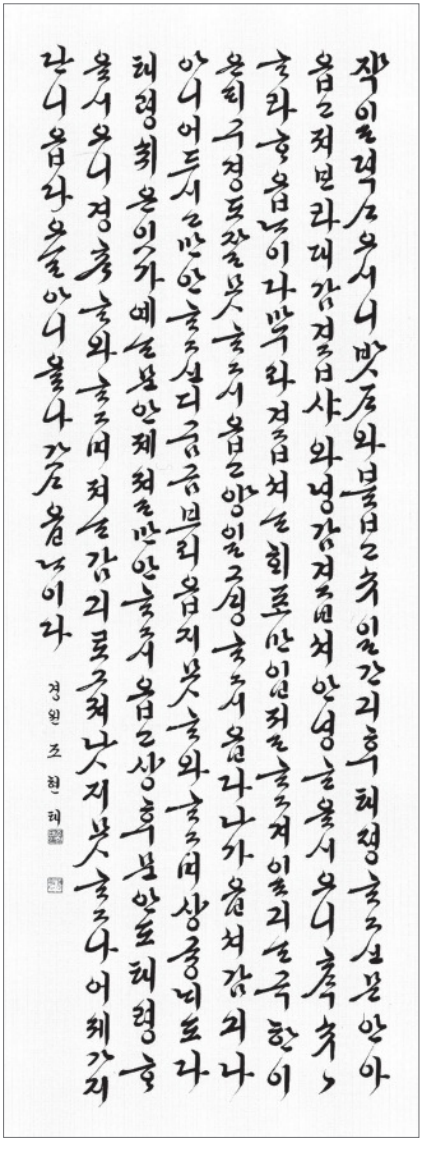
예늘 이득자


나무님써러지근어스릐놉히ᄃᆞ다듯거라아희들아농중을릴을호도
다님은일싱각호야집앗일마즌호시ᄆᆞᄋᆞᄇᆡ치리앗뎌치장을호오릐
라압닉물의정히ᄇᆡ셔여덤을맛게호ᄉᆞᄀᆞᆺ초마ᄀᆞᆯ싱강라의젓ᄉᆞ국지장
앗지ᄀᆞᆯ듁졋희들ᄃᆞᆨ오방이흥아리라앙지의가ᄀᆞ지ᄀᆞᆺ긋집희뽁셔깁
깁히ᄆᆞᆺᄀᆞᆺ박이ᄆᆞᄋᆞᆨ알밤말ᄃᆞ얼앗졔간ᄎᆞ호ᄀᆞᆺ방울릐ᄀᆞᄃᆞᆨ질라킈ᄀᆞ멍
ᄃᆞ막ᄋᆞ릐라창호ᄃᆞ빌나ᄂᆞ코보ᄀᆞᆷ벽ᄆᆞᆨ질흥기ᄎᆞᄀᆞ릐로더ᄉᆞ얼흥ᄀᆞ외
앙간의졔젹치기각지동ᄆᆞᆨ거쎄ᄀᆞ라동시 경자년 송헌 정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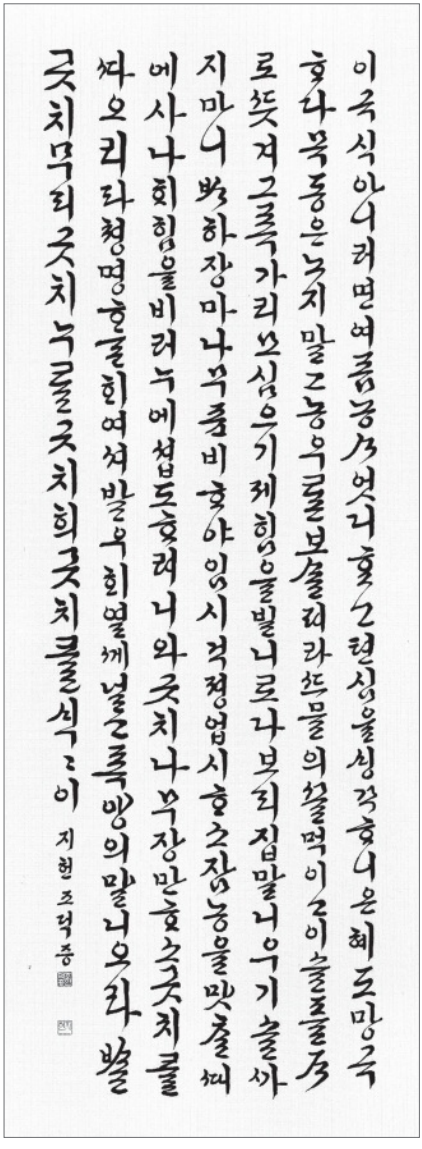
송헌 정숙자


구ᄃᆞᆫ城을ᄆᆞᆫ샤ᄀᆞᆼ길히업더시ᄂᆡ션하나ᄇᆡ물하놀히브
리시ᄂᆡ쏜한ᄃᆞᄌᆞ글모ᄒᆞᆫ샤보리라기ᄃᆞ리시ᄂᆡ션할미물
하놀히보내시니四海물녀ᄂᆞᆫ즈리영ᄀᆞᆫ매비업거늘얼
우시공쏜노ᄀᆡ시ᄂᆡ三韓을ᄂᆞ물주리영바ᄅᆞ래비업거늘
녀토시공쏜ᄀᆞ피시ᄂᆡ하놀히일워시ᄂᆡ 경자년 늦바서현가을에서
쓰다 서현 이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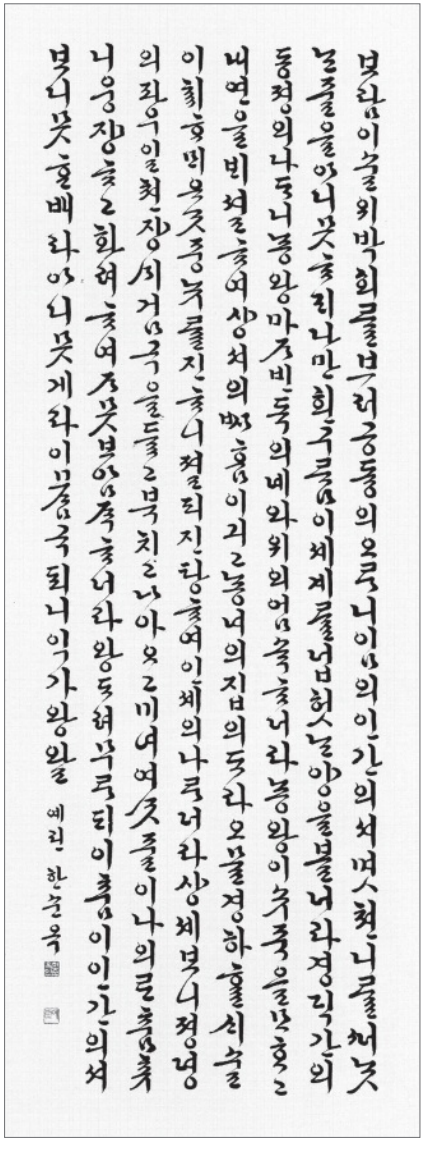
서현 이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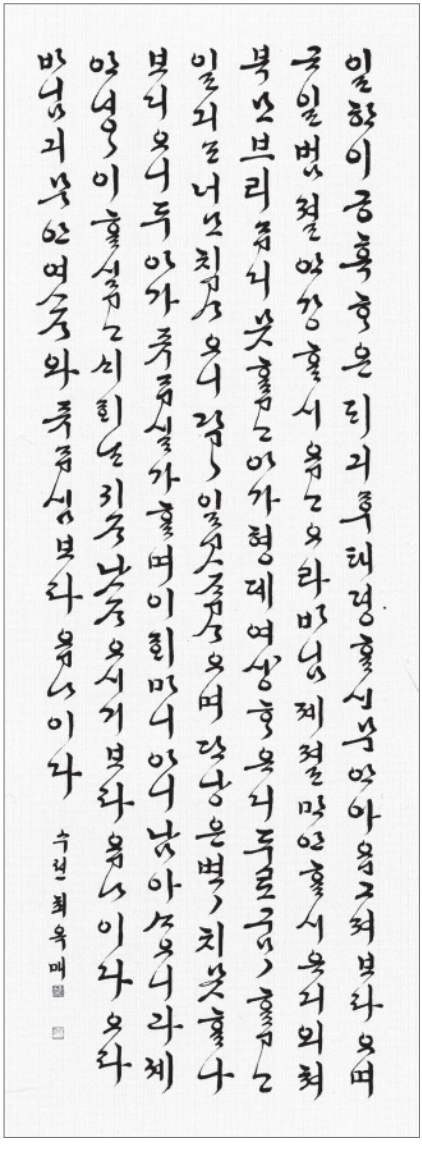
경원 조현태



지헌 조덕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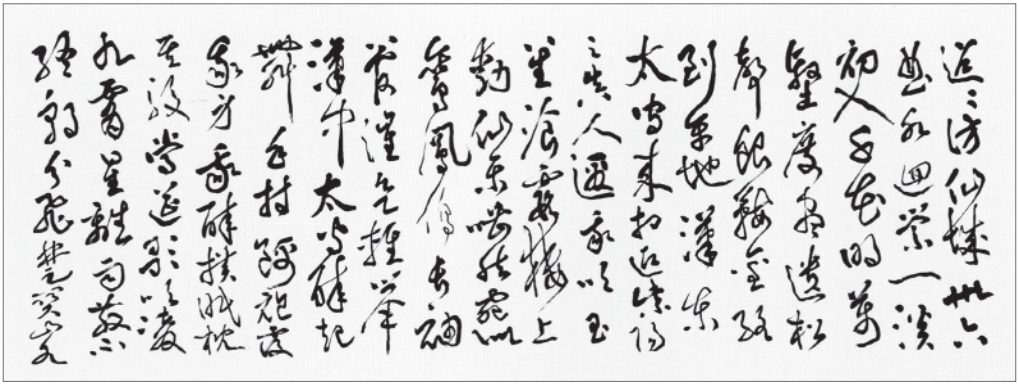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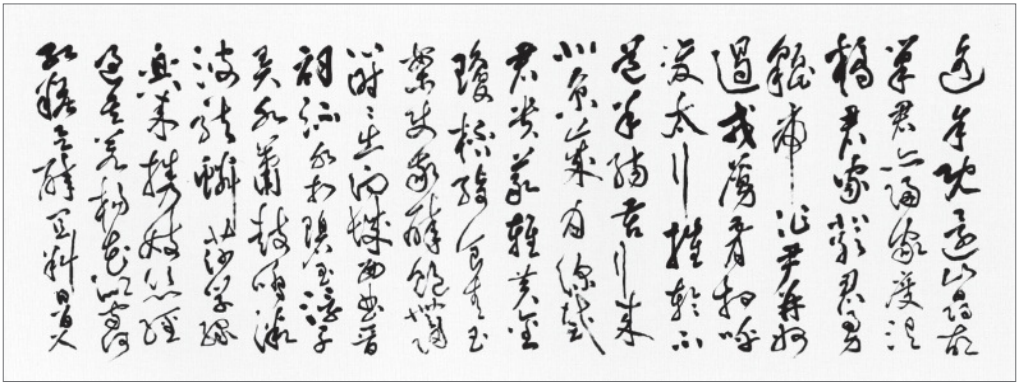
예린 한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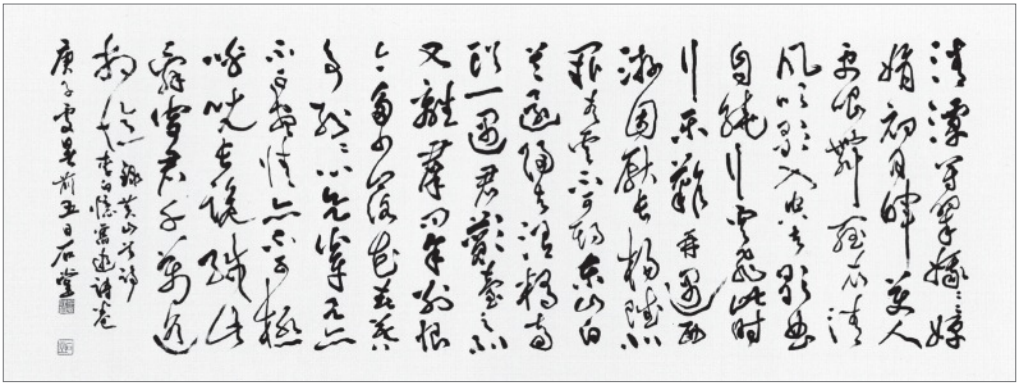


수련 최옥매

지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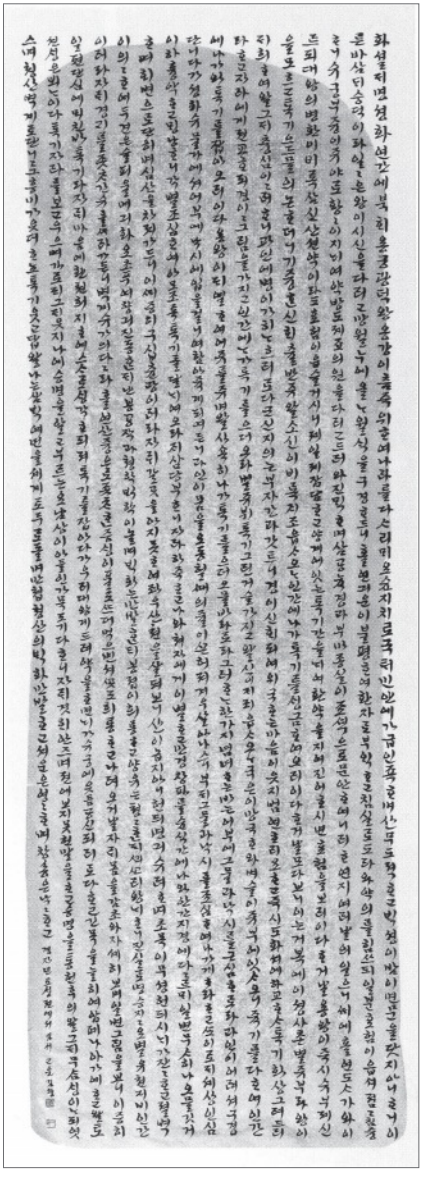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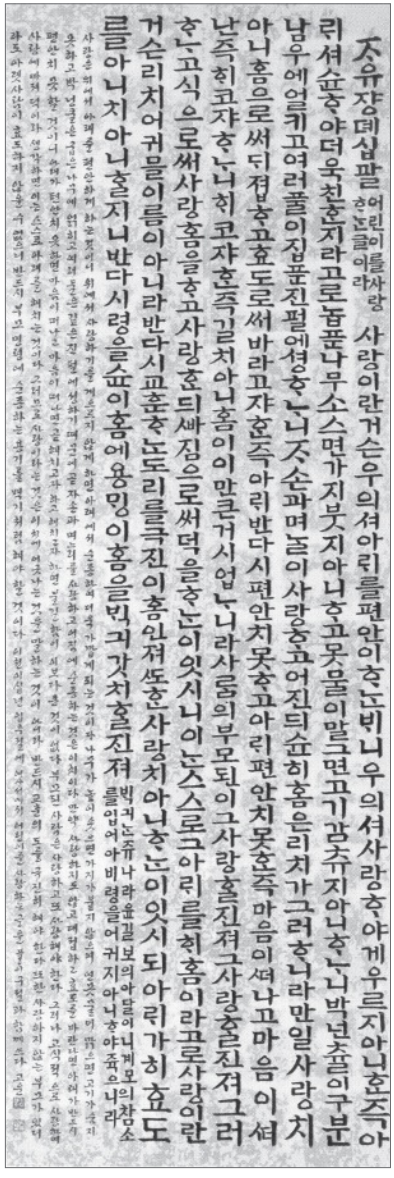




석당 서성호

지도강사





고운 김 향

마음 다스리기 Ⅰ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데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데서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하는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하는데서 생긴다.

마음 다스리기 Ⅱ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성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라.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라.

마음 다스리기 Ⅲ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 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라.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
남을 해치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긴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임원현황

직명	성명	연락처
원 장	이만철	010-2850-7005
부원장	김남구	010-7173-1624
부원장	엄윤순	010-5373-1238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이사	고재옥	010-5364-7660
이사	김연화	010-9028-2747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이사	김종길	010-6373-6243
이사	김헌래	010-6388-8658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이사	박수홍	010-3474-5156
이사	방선수	010-3679-0879
이사	손홍기	010-5364-8118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이사	심종기	010-3044-3088

직명	성명	연락처
이사	염종규	010-9109-1136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이사	이강희	010-6376-2879
이사	이영자	010-5370-5560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이사	정순자	010-8997-3412
이사	정옥수	010-4255-3959
이사	정재환	010-5308-4404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이사	최영식	010-4841-5355
이사	한경원	010-5367-0845
이사	허계홍	010-6377-6565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감사	이춘식	010-3702-6024
감사	정희은	010-5374-3032

직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주 임	박홍근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6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형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4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림.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인제문화원
T: 033-461-6678, F: 033-461-0220, E-mail: inje6678@kccf.or.kr

인제문화 제35집

인쇄 2020년 12월
발행 2020년 12월

발행인 이만철
편집인 백창현
발행처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9번길 17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산책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비매품〉